정책보고서 2021-00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793-01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

정세정·김문길
김태완·김동진·김성아·이원진·이혜정·임덕영·함선유·류진아·홍성운

국무조정실 로고 삽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류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홍성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국무조정실 귀하

본 보고서를 귀실과 용역계약(2021. 5. 20.)한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방향 수립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8

제2장 청년통계체계 고찰 ····· 15

제1절 조사통계 고찰 ····· 17

제2절 행정통계 고찰 ····· 28

제3장 청년 삶 실태조사 표본 설계와 조사 방법 검토 ····· 37

제1절 표본 설계 ····· 39

제2절 조사 방법 ····· 59

제4장 조사표 설계 ····· 75

제1절 「청년 삶 실태조사」 조사내용 설계의 기본방향 및 조사항목 구성(안) 도출 절차 ···· 77

제2절 영역별 조사내용 설계안 ····· 79

제5장 청년 삶 실태조사 최종 설계안 및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제언 ····· 187

제1절 조사설계 방안 ····· 189

제2절 예비조사 결과 분석 ····· 207

제3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 검토 사항 ····· 215

참고문헌 ····· 225

표 목차

〈표 1-1〉 청년층 관련 주요 통계청 승인 조사통계 ····· 5
〈표 1-2〉「청년 삶 실태조사」 최종 설계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9
〈표 1-3〉 전체 연구진 회의 및 세미나 주요 일정 ····· 11
〈표 1-4〉 표본 설계와 조사 내용 관련 주요 자문 및 협의 개요 ····· 11
〈표 1-5〉 세미나, 자문에 참여해 주신 외부 전문가, 연구자, 청년 당사자 및 활동가 리스트 ····· 13
〈표 1-6〉 예비 조사 실시 개요 ····· 14
〈표 2-1〉 통계법 제15조, 통계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 17
〈표 2-2〉 청년층 관련 주요 지정통계 및 통계청 승인 조사통계 ····· 20
〈표 2-3〉 청년층 관련 기타통계 ····· 21
〈표 2-4〉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주요 내용 ····· 23
〈표 2-5〉 청년패널조사 주요 내용 ····· 25
〈표 2-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주요 내용 ····· 27
〈표 2-7〉 통계청 중장년층 행정통계 작성 항목 ····· 32
〈표 3-1〉 2019년 인구총조사 - 시도별 가구 및 만 19~34세 인구 분포 ····· 40
〈표 3-2〉 서울 권역별 해당 구 현황 ····· 41
〈표 3-3〉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 41
〈표 3-4〉 2019년 인구총조사 - 세부 층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 ····· 42
〈표 3-5〉 표본크기에 대한 특성 ····· 43
〈표 3-6〉 시도별 조사구 특성별 표본배분 현황 ····· 44
〈표 3-7〉 시도별 예상 상대표준오차 현황 ····· 45
〈표 3-8〉 시도에서의 동부와 읍·면부 구분별 표본배분 결과 ····· 46
〈표 3-9〉 동부와 읍·면부 구분별 가구당 평균 청년 인구수 ····· 46
〈표 3-10〉 시도에서의 동부와 읍·면부 구분별 표본 조사구 수 ····· 47
〈표 3-11〉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수 ····· 48
〈표 3-12〉 표본크기에 대한 특성 ····· 53
〈표 3-13〉 시도별 조사구 특성별 표본배분 현황 ····· 54
〈표 3-14〉 시도별 예상 상대표준오차 현황 ····· 55
〈표 3-15〉 시도에서의 동부와 읍·면부 구분별 표본배분 결과 ····· 56
〈표 3-16〉 동부와 읍·면부 구분별 가구당 평균 청년 인구수 ····· 57
〈표 3-17〉 시도에서의 동부와 읍·면부 구분별 표본 조사구 수 ····· 57
〈표 3-18〉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수 ····· 58

〈표 3-19〉 조사목적별 적정 조사대상 ····· 64
〈표 3-20〉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개념으로써의 가구 정의(가계동향조사) ····· 65
〈표 3-21〉 생계를 같이하는 개념으로써의 가구 정의(가계금융·복지조사) ····· 66
〈표 3-22〉 2가지 가구 개념의 비교 ····· 67
〈표 3-23〉 통계청 주요 조사의 청년 1인 가구 비율 비교 ····· 68
〈표 3-24〉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의 비율 ····· 70
〈표 3-25〉 연령별 1인 가구 수와 비중 ····· 71
〈표 4-1〉 일반사항 영역의 조사 내용의 초점 ····· 81
〈표 4-2〉 일반사항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 84
〈표 4-3〉 일반사항 영역 조사표 구성(안) ····· 85
〈표 4-4〉 일반사항 영역의 조사 내용의 초점 ····· 86
〈표 4-5〉 청년 경제 영역의 조사 내용의 초점 ····· 88
〈표 4-6〉 경제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 93
〈표 4-7〉 경제 영역의 신규 문항 개발 ····· 95
〈표 4-8〉 경제 영역의 조사항목 구성(안) ····· 97
〈표 4-9〉 청년 노동 영역의 조사 내용의 초점 ····· 103
〈표 4-10〉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2020년 조사항목과 노동 영역 반영 사항 ····· 104
〈표 4-11〉 노동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 110
〈표 4-12〉 노동 영역의 신규 문항 개발 ····· 112
〈표 4-13〉 노동 영역 조사표 구성(안) ····· 113
〈표 4-14〉 청년 주거 영역의 조사 내용의 초점 ····· 120
〈표 4-15〉 주거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 122
〈표 4-16〉 주거 영역의 신규 문항 개발 ····· 124
〈표 4-17〉 주거 영역 조사표 구성(안) ····· 126
〈표 4-18〉 건강 영역의 조사 내용의 초점 ····· 134
〈표 4-19〉 건강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 137
〈표 4-20〉 건강 영역의 신규 문항 개발 ····· 141
〈표 4-21〉 건강 영역 조사항목 구성(안) ····· 144
〈표 4-22〉 청년층 주요선거 투표율 ····· 145
〈표 4-23〉 청년 참여 및 관계 영역의 조사 내용의 초점 ····· 149
〈표 4-24〉 참여 영역 및 관계의 기존 조사 검토 ····· 151

〈표 4-25〉 참여 및 관계 영역의 신규 문항 개발 ····· 154
〈표 4-26〉 참여 및 관계 영역 조사표 구성(안) ····· 155
〈표 4-27〉 문화·여가 영역의 조사 내용의 초점 ····· 158
〈표 4-28〉 문화·여가 영역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 160
〈표 4-29〉 문화·여가 영역의 신규 문항 개발 ····· 162
〈표 4-30〉 문화·여가 영역 조사표 구성(안) ····· 163
〈표 4-31〉 청년 교육 영역의 조사 내용의 초점 ····· 167
〈표 4-32〉 교육·훈련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 169
〈표 4-33〉 교육·훈련 영역 조사표 구성(안) ····· 170
〈표 4-34〉 청년 가치관·사회인식·미래설계 영역의 조사 내용의 초점 ····· 172
〈표 4-35〉 가치관·사회인식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 175
〈표 4-36〉 미래설계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 176
〈표 4-37〉 가치관·사회인식·미래설계 영역의 신규 문항 개발 ····· 178
〈표 4-38〉 가치관·사회인식·미래설계 영역 조사표 구성(안) ····· 181
〈표 4-39〉 개인사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 183
〈표 4-40〉 개인사 영역 조사표 구성(안) ····· 184
〈표 4-41〉 청년정책 영역 조사표 구성(안) ····· 186
〈표 5-1〉 법정조사 목적,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청년 삶 실태조사 관련 내용, 청년지표개발 목적 190
〈표 5-2〉 일반사항 영역 조사표 구성(안) ····· 195
〈표 5-3〉 경제 영역의 조사항목 구성(안) ····· 195
〈표 5-4〉 노동 영역 조사표 구성(안) ····· 196
〈표 5-5〉 주거 영역 조사표 구성(안) ····· 199
〈표 5-6〉 건강 영역 조사항목 구성(안) ····· 201
〈표 5-7〉 참여 및 관계 영역 조사표 구성(안) ····· 202
〈표 5-8〉 문화·여가 영역 조사표 구성(안) ····· 203
〈표 5-9〉 교육·훈련 영역 조사표 구성(안) ····· 204
〈표 5-10〉 가치관·사회인식·미래설계 영역 조사표 구성(안) ····· 205
〈표 5-11〉 개인사 영역 조사표 구성(안) ····· 206
〈표 5-12〉 청년정책 영역 조사표 구성(안) ····· 206
〈표 5-13〉 조사 집단의 구분 ····· 207
〈표 5-14〉 접촉 가구 및 조사 완료 가구 ····· 210

〈표 5-15〉 조사 집단의 구분 ····· 211
〈표 5-16〉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 211
〈표 5-17〉 조사 내용 불편도 보고 문항 ····· 212
〈표 5-18〉 문항 난이도 보고 내용 ····· 213
〈표 5-19〉 기타 ····· 215
〈표 5-20〉 식약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 위원회의 청년 삶 실태조사에 대한 의견 ····· 218
〈표 5-21〉 주요 조사통계의 조사 기준시점과 공표 시기 ····· 220
〈표 5-22〉 조사 시기와 기본계획 수립·의결 시기 예시 ····· 221
〈표 5-23〉 청년 삶 실태조사 1차 조사 일정(안) ····· 222

그림 목차

[그림 1-1] 청년기본법 제11조,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 ····· 3
[그림 1-2] 통계법 제12조의2 ····· 6
[그림 3-1] 미혼남녀(20~44세)의 연령집단별 세대유형 ····· 68
[그림 3-2] OECD 국가의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15~29세) 비중 변화 ····· 69
[그림 4-1] 조사항목 구성(안) 도출 프로토콜 ····· 78
[그림 4-2] 청년층 가계부채 변화 ····· 86
[그림 4-3]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생활비 조사 문항 ····· 90
[그림 4-4]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소득 조사 문항 ····· 91
[그림 4-5]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부채 조사 문항 ····· 91
[그림 4-6] 연령대별 우울 평균 점수 ····· 130
[그림 4-7] 연령대별 우울 위험군 비율 ····· 13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다양한 청년층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포괄적인 청년층 삶의 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는 대규모 횡단면 조사가 필요함.

○ 2022년은 「청년 삶 실태조사」가 첫 번째로 수행되는 해임. 『청년기본법』 제11조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해야 하며,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음.

- 「청년기본법시행령」 제8조(청년 실태조사)는 주요 조사내용과 조사 주기,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그림 1-1〕 청년기본법 제11조,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

청년기본법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청년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청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지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상태·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놀이·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 건강·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소관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지표(Youth Life Index) 개발'과 '실태조사'를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의 세부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청년지표는 청년의 지속가능한 입체적 삶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것으로, 실태조사는 청년지표 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삶 실태조사」 개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기존에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수행되었으나(예: 청년패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해당 조사들은 1) 주로 노동과 같은 특정 영역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음. 이와 같은 접근은 청년층의 문제 제기 계기 자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님. 2) 비교적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조사의 경우에는, 청년층의 다양성을 드러낼 만큼 청년층 표본이 충분치 않거나(정세정, 2020), 특정 영역에 따라서는 인식과 실태 문항의 양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기도 함.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3) 패널조사(예: 청년패널)의 경우에는 목표 모집단이 현재의 청년층을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청년패널과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조사목적이 노동시장이행 관련 정보 수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영역별 종합적 삶의 실태를 살펴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청년패널조사의 목표모집단은 2007년 15~29세 청년층으로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을 대표하는데 한계를 가지며,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대졸자에 한정됨.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영역별 삶의 실태에 대한 조사내용을 담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크기가 3,500명으로 다양한 청년의 삶을 살펴보기에는 충분히 크지 못하고, 일부 영역, 이를테면 소득, 지출, 자산의 경우에는 가구단위의 정보가 부재하는 등의 한계가 있음.

〈표 1-1〉 청년층 관련 주요 통계청 승인 조사통계

조사명	분야	작성기관	승인번호	승인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사회일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02004	2017
청년패널	노동	한국고용정보원	327005	2007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노동	한국고용정보원	327004	2006

○ 참고로, 통계청은 일자리, 주택, 소득, 부채와 관련된 '청년층 행정통계'를 개발 중임.

- 구축시에는 연도별 성별, 종사상 지위별, 조직형태별, 기업규모별, 공공부문 일자리 수 및, 임금근로 관련 통계(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일자리 이동 통계, 신혼부부 관련 통계, 주택소유통계(성별 주택소유 현황, 1인당 평균 소유주택 수, 소유물건수 주택 소유자 현황, 가구의 주택 소유 현황, 주택 소유 가구 특성 등)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통계청에서는 2017년부터 '중·장년층 행정통계'를 공표 중임.
  - (모집단) 매년 1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만40~64세 연령 내국인과 그 내국인을 포함하는 일반가구(외국인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는 제외).
  - (작성단위) 개인, 가구.
  - (활용행정자료) 인구 가구· 주택DB, 주택소유통계DB, 일자리행정통계DB, 퇴직연금통계DB, 공적연금 가입자· 수급자 자료(국민· 공무원· 군인· 별정우체국· 사학연금), 소득자료(국세청, 표본), 금융권 대출정보(한국신용정보원, 표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 등 16종.
  - (작성항목) 기본현황(거주지, 거주지 이동,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등), 경제활동(종사상지위, 근속기간, 산업대분류, 월평균 임금 등), 주택소유(개인주택 소유물건수, 소유자산가액 등), 소득과 금융권 대출 잔액(소득, 금융권 대출잔액), 연금가입(공적연금 가입여부, 퇴직연금 가입여부 등).

○ 한편, 최근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서 합리성과 과학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거

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 EBP)이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 증거기반정책은 정책이 과학적이지 않은 직관, 경험, 가치 등에 기반하거나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함.
-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통계와 정책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과학적 정책수립 체계 확립을 위해 2012년 통계법 개정을 통해 '통계기반정책평가'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음(통계법 제12조의2).

〔그림 1-2〕 통계법 제12조의2

통계법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선행연구는 근거기반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법정 대규모 전국단위 청년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을 제기해 옴(김문길, 2015, 2017).

□ 이에, 2022년에 첫 실시될 「청년 삶 실태조사」가 증거기반 청년정책 수립과 평가의 유용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사 추진방향 및 체계를 제시하고, 정책수립과 평가의 근거로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표본설계(안), 주요 정책영역별 조사문항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는 사전 연구가 필요함.

○ 주요 법정 실태조사와 같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규모 조사의 경우 본 조사 이전에 해당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연구가 부처별로 수행되어왔음.

-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연구"(2016), "청소년건강패널 구축을 위한 사전조사"(2017-2018),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위한 실태조사 방안 연구"(2020),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연구"(2020).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선행연구"(2014).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사전 연구”(2018),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사전연구”(2016).

2. 연구 목적

□ 법정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정책적 활용) 소득·재산 등 자산조사(means-test)를 전제로 하는 정책대상 규모 추정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생산.

- 예) 청년 자산형성사업(통장사업) 대상범위 확대에 따른 대상자 규모 추정.
  - 가용 데이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2019년), 국민생활실태조사(2018년), 한국복지패널조사(2019년) 등이나 가구소득과 개인소득 동시 고려할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활용 불가함, 국민생활실태조사 및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활용가능하지만 시차와 유효표본 수 등에서 제한점이 있음.

○ (정부 수요) 각 정책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대응.

- 청년정책기본계획, 청년정책시행계획 등 평가에 활용.

○ (현안 대응) 새로운 정책 환경 및 영향 분석.

- 예) 청년 정신건강, 투자 실태, 새로운 위험(기후, 노동시장, 기술,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 소득분배, 글로벌 경제 등), 청년담론(젠더, 공정성, 능력주의, 세대내 불평등, 세대간 불평등 등), 코로나19 영향(소득, 일자리, 정신건강 등).

□ 법정조사의 목적과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다음의 연구 목적을 도출함.

○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층의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청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계열적 자료 축적을 통해 청년층의 특성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의 노동, 주거, 건강, 소득, 지출, 재산 등 삶의 제 영

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인식 파악을 통해, 청년층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는 정책 방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제도 보완 및 정책 추진 우선순위 결정의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청년 삶 실태조사」의 사전 연구인 본 연구의 목적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정기적으로 파악, 축적해나갈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 첫째, 청년 삶 실태조사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임.
- 둘째, 청년 삶 실태조사의 기본방향에 따라 조사규모, 표본설계,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함.
- 셋째, 새롭게 개발될 청년지표(Youth Index) 개발을 비롯한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가. 청년 관련 주요 선행연구 고찰

○ 청년정책 환경, 사회구조 변화 관련 주요 이슈 및 청년실태·특성 분석.

○ 청년 지표(Youth Index) 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표 관련 주요 선행연구 고찰.

나. 청년 관련 기존 조사 내용 분석

○ 청년 대상 · 포괄 통계 · 조사 검토.

- 통계청 주요 조사, 영역별 승인통계 등.

○ 청년 대상 · 포괄 지표 검토.

○ 행정자료 연계를 위한 관련 자료 검토.

다. 청년 삶 실태조사 설계방안 도출 및 예비조사 실시

□ **「청년 삶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표본설계 및 조사문항 구성**

○ (표본설계) 조사모집단 및 목표모집단 정의, 표본설계안(층화 및 분류지표) 제시, 유효 표본규모 도출.

○ (조사방법) 본조사, 부가조사, 대면조사(타계식 · 자계식), 웹기반 설문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방식을 비교 · 검토.

○ (조사표 개발)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조사항목 구성, 조사항목 행정자료 결합 가능성 검토.

라. 청년 삶 실태조사 최종 설계방안 도출

□ **청년 삶 실태조사 기본방향 제시 및 체계 구축**

○ 조사영역 구성 및 영역별 문항(안) 제시, 행정자료 연계 가능성 검토,

〈표 1-2〉「청년 삶 실태조사」 최종 설계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청년 삶 실태조사목적과 방향	- 조사 목적 - 조사의 기본 방향
목표 모집단	- 해당년도 기준 만19세~34세 국민
조사 모집단	- 조사 기준시점의 국내 모든 가구 내 상주하는 만19세~34세 가구원
조사대상, 규모, 표본설계방안(안)	- 조사대상 및 규모 - 표본 설계 방안
조사내용 설계방안(안)	- 조사 영역 - 조사 문항
조사 추진 방안(안)	- 조사 방법 - 조사 결과 활용 방안 등

자료: 부록 [조사표] 참조

마. 청년 삶 실태조사 정책 활용 방안 제언

□ 청년 지표(Youth Index) 도출에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조사내용 제시.

□ 국내외 청년 대상 · 포괄 지표 (indicator) 검토·분석.

□ 조사결과에 대한 정책반영·활용체계 제시.

□ 국가 승인통계 지정·관리 방안 제시.

2. 연구 방법

가. 문헌 고찰

□ 최신 청년 연구, 청년 및 청년을 포괄하는 기존 실태조사 내용 검토, 청년 정책 동향 검토를 위한 문헌 고찰.

나. 연구진 회의 및 세미나

□ 연구 기본 방향 설정, 청년에 대한 이해 제고, 영역별 최신 청년 이슈 교환, 표본 설계 및 조사 내용(안) 설계를 위한 연구진 회의 및 세미나 실시.

〈표 1-3〉 전체 연구진 회의 및 세미나 주요 일정

구분	내용
6월	- 연구진 킥오프 회의
7월	- 청년 삶 전반의 이해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전체 연구진 회의 ·주요 내용: 조사 방식, 조사표 구성안(대/중/소분류), 조사 문항 도출의 방향 공유
8월 ~ 9월	- 사회과학 분야 행정데이터 활용 동향 이해를 위한 세미나 및 전체 연구진 회의 - 조사영역별 연구진 회의 진행 ·전문가 간담회, 서면자문을 병행한 영역별 온-오프라인 연구진 회의
10월	- 연구진 조사표 회의 및 조사표 추가 보완 - 청년연구자 조사표 자문 - 자문결과 리뷰 - 예비조사 관련 사전 절차 수행
11월	- 예비조사 수행 - 통계청 협의
12월	- 예비조사 결과 정리 및 문항 수정 - 연구진 회의 - 최종 보고서 작성

다. 자문 및 협의

□ 청년 삶 실태조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표본 설계와 조사 내용에 대해 관련 부처, 청년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 청년 단체 활동 유경험자, 통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서면 자문 및 협의를 실시.

○ (표본 설계) 가구의 정의 및 조사방법, 조사시기, 조사구와 집계구의 활용, 표본 규모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문과 협의를 수행.

○ (조사 내용) 필요 조사내용에 대한 의견수렴과 논리구조, 질문 방식, 보기 구성 등 조사내용 전반에 대한 자문과 협의를 실시.

〈표 1-4〉 표본 설계와 조사 내용 관련 주요 자문 및 협의 개요

회차	일정	방식	자문 내용
1차	2021년 6월 18일	회의	**[조사방법 및 표본 설계 방향에 관한 자문]** · 가구 조사 방식의 필요성 · 조사 방법 및 표본 설계 방안에 관한 논의 (청년조사 경험 조사업체 담당자의 의견 수렴)
2차	2021년 6월 23일	회의	**[조사방법 및 표본 설계 방향에 관한 자문]** · 가구의 정의 및 조사 단위 · 조사 방법 및 표본 설계 방안에 관한 논의 (통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3차	2021년 7월 8일	회의 세미나	**[청년의 특성 및 청년 연구에 관한 이해]** · 청년 집단의 특성 · 사회 전반에 드러난 청년 문제 소개 - 일자리 소멸, 소득 빈곤, 근로 빈곤, 고립 청년,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심화 등 · 청년의 삶 진단 방안 · 청년 문제의 쟁점과 접근 방향 제시
4차	2021년 7월 30일	회의	**[청년 조사에 반영되어야 할 주제와 내용]** · 청년기본법의 제정의 취지와 제시된 조사 주제·내용 공유 · 그 외 청년의 삶 진단이 필요한 영역의 주제·내용 논의 · 조사 결과를 활용한 청년 지표 산출 가능성
분 과 별	2021년 8월 19일	회의	**[참여·권리 영역, 개인사 영역에 관한 자문]** · 참여·권리, 개인사 영역 문항의 시의성, 적절성 검토 · 연구진 제안 문항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청년 삶 실태 및 인식
	2021년 8월 24일	서면 자문	**[건강 영역에 관한 자문]** · 건강 영역 문항의 시의성, 적절성 검토 · 연구진 제안 문항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청년 삶 실태 및 인식
	2021년 8월 25일	서면 자문	**[주거 영역에 관한 자문]** · 주거 영역 문항의 시의성, 적절성 검토 · 연구진 제안 문항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청년 삶 실태 및 인식
	2021년 8월 25일	회의	**[조사방법 및 표본 설계 방향에 관한 자문]** · 조사구·집계구 조사 방식의 장·단점 · 가구의 정의 및 조사 단위 · 적정표본 규모 · 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답례품 규모 등)
	2021년 8월 27일	회의	**[미래설계 영역에 관한 자문]** · 미래설계 영역 문항의 시의성, 적절성 검토 · 연구진 제안 문항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청년 삶 실태 및 인식
	2021년 9월 1일	서면 자문	**[문화·여가 영역에 관한 자문]** · 문화·여가 영역 문항의 시의성, 적절성 검토 · 연구진 제안 문항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청년 삶 실태 및 인식
	2021년 9월 1일, 15일	서면 자문	**[노동 영역에 관한 자문]** · 노동 영역 문항의 시의성, 적절성 검토 · 연구진 제안 문항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청년 삶 실태 및 인식

회차	일정	방식	자문 내용
	2021년 9월 16일	서면 자문	**[표본 설계에 관한 심층 자문]** · 표본 및 조사 설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 표본 추출 방법, 표본 추출틀 표본 설계 관련 사항 등 검토
5차	2021년 10월 21일	서면 자문	**[통합조사표 전 영역에 관한 자문]** · 전체 조사표 구성의 분량 및 일관성 · 문항 구성의 논리성 검토 · 세부 문항의 조사 기준 시점, 응답 대상, 문항 및 선택지 오탈자 등 오류 검증

〈표 1-5〉 세미나, 자문에 참여해 주신 외부 전문가, 연구자, 청년 당사자 및 활동가 리스트

영역	자문 위원
조사방법 및 표본 설계	강○○(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글로벌리서치), 김○○(서울연구원), 김○○(한국리서치), 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남○○(한국고용정보원), 변○○(한신대학교), 손○○(동국대학교), 이○○(한밭대학교), 장○○(마크로밀 엠브레인)
조사 내용	기○(고려대학교) 김○○(시민건강연구소) 김○○(경남연구원) 김○○(광주과학기술원) 김○○(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김○○(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김○○(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김○○(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한국노동연구원) 권○○(서울대학교) 문○○(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변○○(서울연구원) 배○○(전 국회) 송○○(가천대학교) 이○○(국토연구원) 이○○(서울의료원) 이○○(LH토지주택연구원) 이○○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중앙대학교) 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청년유니온) 정○○(불평등과 시민성연구소) 최○○(민달팽이) 채○○(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홍○○(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라. 예비조사

□ 조사문항의 적정성(질문방식, 분량 등)과 논리성 검증, 조사 방법의 적절성 평가, 개선점 제시를 위한 예비조사 실시.

○ 예비조사는 조사내용(문항 및 보기 구성/선택)의 적절성, 타당성, 문항 로직 검토, 소요 응답시간 체크 등을 목적으로 함.

〈표 1-6〉 예비 조사 실시 개요

구분	내용
표본 수	- 160사례
표집 방법	- 할당 표집
조사 내용	- 청년 삶 실태조사 조사표(안) 문항
조사시기	- 2021년 11월

제2장

청년통계체계 고찰

제1절 조사통계 고찰
제2절 행정통계 고찰

제 2 장 청년통계체계 고찰

□ 2장에서는 청년 삶 실태조사 개발을 위해 청년통계를 조사통계와 행정통계로 나눠 고찰함. 조사통계는 정의와 구분, 그리고 청년을 포괄하거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조사통계의 특성을 검토함. 행정통계는 청년통계 구축에 있어 행정데이터 활용의 필요성과 활용 방식,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봄.

제1절 조사통계 고찰

1. 조사통계의 정의와 구분

□ 통계승인업무지침 제2조에서 조사통계는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작성한 통계”로 정의됨. 이와 유사하게 오세영, 윤건, 오균(2017)은 조사통계를 “분석 대상 집단의 전부 혹은 일부를 조사하거나 그 결과인 조사표의 기록에 따라 작성된 통계”로 정의하고 있음.

□ 통계청이 승인하는 승인통계 작성기관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이 해당됨.

□ 따라서, 조사통계를 작성된 기관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통계청 작성통계, 통계청이 승인한 조사통계와 그 외의 통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조사통계를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와 청년을 포괄하는 통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특정 영역을 다룬 통계와 전 영역을 다룬 통계로 구분할 수도 있음.

〈표 2-1〉 통계법 제15조, 통계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구분	내용
통계법 제15조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3.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통계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기관등이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출 받은 신청 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법제처. (2021).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에서 2021. 12. 20. 인출.

2. 기존 관련 조사통계 고찰

□ 지정통계 또는 통계청 승인 조사통계 중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청년패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가 있으며, 청년층을 포괄하는 조사로는 사회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이 있음.

○ 지정통계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 중에서 지정되며, 지정통계에는 통계법상 자료제출명령, 실지조사 등 일정한 권한이 부여됨.

□ 그 외에, 청년층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청년패널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청년을 포괄하는 조사가 있음.

□ 여기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 승인 조사통계를 중심으로 기존 관련 조사통계의 주요 내용을 고찰함.

□ 그 외에 다음 표에 포함된 조사는 제4장 조사내용 설계에서 영역별 조사내용 구성을 위해 검토함.

〈표 2-2〉 청년층 관련 주요 지정통계 및 통계청 승인 조사통계

구분	조사명	분야	작성기관	승인번호	승인년도
청년층 대상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사회일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02004 (일반통계)	2017
	청년패널	노동	한국고용정보연구원	327005 (일반통계)	2007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노동	한국고용정보원	327004 (일반통계)	2006
청년층 포괄	사회조사	사회일반	통계청	101018 (지정통계)	1977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일반	한국행정연구원	417001 (일반통계)	2013
	한국복지패널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1009 (일반통계)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	복지	보건복지부	117097 (일반통계)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	통계청	101004 (지정통계)	1962
	한국노동패널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336001 (일반통계)	1998
	근로환경조사	사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80002 (일반통계)	2006
	주거실태조사	주거	국토교통부	116031 (일반통계)	2006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	질병관리청	117075 (일반통계)	2008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	질병관리청	117002 (지정통계)	1973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113014 (일반통계)	2007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113001 (일반통계)	1991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소비·자산	통계청	930001 (지정통계)	2006
	가계동향조사	소득·소비·자산	통계청	101006 (지정통계)	1962

〈표 2-3〉 청년층 관련 기타통계

구분	조사명	작성기관
청년층 대상	청년층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청년패널	서울연구원
	광진구 화양동 청년주거실태조사	서울특별시 광진주거복지센터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청년층 포괄	갤럽월드폴	Gallup
	세계가치관조사	Institute for Comparative Survey Research
	PIAAC	OECD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	종합사회조사수행각국의 사회조사 담당기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년가치관조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학교폭력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음.

○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전국17개 시도 만15~39세 일반국민을 조사 모집단으로 하며, 각 2,700명(2017년), 3,000명(2018년), 3,500명(2019년)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음.

○ 2020년에는 전국17개 시도 만18세~34세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됨.

○ 2017년~2019년에는 총 8개 영역에 대한 내용이, 2020년에는 총 7개 영역에 대한 내용이 조사됨.

- 2017년: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사회적응.
- 2018년: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

관, 관계와 참여, 신규졸업자.

- 2019년: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관계 및 참여, 정치·사회참여.
- 2020년: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가치관, 관계 및 참여

○ 또한, 2017년부터 해마다 별도의 부가조사를 실시해 왔음. 2017년에는 니트, 2018년에는 신규졸업(예정)자, 2019년에는 청년 참여, 2020년에는 청년 주거의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함(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 2020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조사의 실시는 7월 6일~9월 17일, 기초분석보고서 공표는 21년 2월 19일, 국가통계포털(KOSIS) 공표는 21년 3월 15일로,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 이상(74일), 본조사부터 공표까지는 각각 229일, 253일로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렸음.
- 2020년의 조사문항은 총 172개 항목으로 조사내용은 인구와 가족(16개), 교육과 훈련(32개), 경제와 고용(73개), 주거(19개), 건강(14개), 가치관(3개), 관계 및 참여(12개), 배경(19개)으로 구성됨(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21).

〈표 2-4〉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적	청년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와 청년들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통계작성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모집단	전국17개 시도 만18~34세 청년
표본 크기	3,500명
모집단층화	행정구역별 층화 및 세부 층화
표본배분	제곱근비례배분법(1차) 비례배분법(2차)
표본추출틀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명부
표본추출	층화2단집락추출법: 확률비례계통추출법(1차), 계통추출법(2차)
가중치	최종 가중치=가구 가중치×무응답 조정1×무응답 조정2×벤치마킹 조정계수
조사방법	태블릿 PC를 활용한 개별 면접조사(TAPI) (가구방문)
조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1종
조사항목	총 7개 영역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가치관, 관계 및 참여)
조사단위	개인 단, '가구소득' 등 가구에 대한 질문의 경우 가구를 기준으로 응답 받음
조사주기	1년
조사시기 (2020년 기준)	2020년 7월 6일~9월 17일
공표시기 (2020년 기준)	기초분석보고서 공표 - 2021년 2월 19일 국가통계포털(KOSIS) 공표 - 2021년 3월 15일
주된 활용	(기초자료) 청년들의 삶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관련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청년 삶의 변동 측정) 횡단반복조사를 통해 청년 사회·경제 지표의 변동 파악(학술연구 및 논문작성)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층 학술연구, 논문작성 등에 활용

주: 조사모집단, 표본 크기, 표본추출틀, 조사방법, 조사항목, 조사시기, 공표시기는 2020년 내용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통계정보보고서.

□ 청년패널

○ 만15~29세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및 노동시장경로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안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청년패널 YP2001이 구축 조사되었음. 2006년 청년패널 YP2001이 조사 종료되었으며, 2007년 새로운 청년패널 YP2007이 구축 조사되었음.

○ 현재 청년패널은 한국고용정보원(고용통계조사팀), 고용노동부(미래고용분석과)가 1년 주기로 약 1만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한국고용정보원, 2020a).

- 주요 조사내용은 학교생활, 경제활동상태(취업자, 미취업자), 경험일자리, 시험준비/직업훈련/자격증/직장체험프로그램, 사교육/취업사교육/해외연수, 진로지도/예상진로/진로발달/구직동기, 가구배경, 기타의 8개 영역, 약 1,80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음.

○ 청년패널조사는 매년 8월 1일~11월 30일 실시하며, 공표는 익익년 2월임.

〈표 2-5〉 청년패널조사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적	만15~29세(2007년 기준)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및 노동시장경로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안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심층분석을 통한 정책개발 지원
통계작성기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목표모집단	2007년 기준 전국의 만15~29세 청년층
조사모집단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조사)의 90% 조사구(섬지역 조사구와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237,680조사구)의 전체 가구 중 청년거주 가구가 모집단
표본 크기	12,000명을 목표로 표본배분을 실시했으며, 최종 표본추출결과는 13,380명임.
표본추출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추출	1단계: 2006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의 표본추출 가구를 대상으로 청년거주 가구 스크린 서베이를 실시 2단계: 스크린 조사를 통해 확보된 만15~29세 청년층 47,282명중 12000명을 청년패널 12,000명을 청년패널 본표본으로 구축
조사방법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방법 (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 활용
조사도구	태블릿 PC
조사항목	학교생활, 직장경험, 직업관, 진로, 직업·교육·훈련, 구직활동, 가계배경 등 700개 내외 항목
조사단위	개인
조사주기	1년
조사시기	매년 8월 1일 ~ 11월 30일
공표시기	익익년 2월
주된 활용	청년 고용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슈 및 노동시장 신호등 기능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과정, 노동시장 경로, 교육·훈련·고용안정 등에 관한 연구자료로 활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0).『 청년패널조사 』 통계정보보고서.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 전전년도 8월 및 전년도 2월 전문대, 일반4년제, 교육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이동경로를 추적조사하여 교육-노동시장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정보 제공 및 인력수급불일치 완화 도모를 위한 정책수립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1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함(통계청 통계설명자료, 2021).

- 2005년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2006년도에 구축되어 25,000명을 목표로 1차 조사를 실시했으며, 26,544명의 표본을 구축하여, 2007년 2차 조사, 2008년 3차 조사를 마치고 중단함.
- 2007년 졸업자에 대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부터는 1차 조사 및 2년 후 1회에 한해 추적조사하는 단기패널조사로 조사 설계 변경했으며, 매해년도 졸업자의 약 4%에 해당하는 18,000명의 표본을 구축.
- 2012년부터는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18,000명에 대한 횡단면 조사만 실시함.

○ 조사항목은 경제활동상태 판별, 현재 일자리, 구직 활동, 비경제활동인구상태에 대한 잠재실업 관련 내용, 첫 일자리 이행에 관한 실태, 경험 일자리, 학교생활, 졸업 후 진학 경험, 재학 중 경험 일자리, 어학연수 경험 및 외국어 시험, 졸업 전 취업목표, 직업능력 향상 교육 및 훈련, 취득 자격증, 시험 준비, 취업준비 및 기타 사항, 청년고용대책, 신체 및 정신건강, 인적사항, 소득 및 지출에 관한 내용임(한국고용정보원, 2020b).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2004년부터 실시하여 2006년부터는 일반대학원까지 포함하여 약 56만명에 이르는 졸업생들에 대한 전수 DB를 보유함으로써 목표모집단과 가장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임.

〈표 2-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적	대학 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직장) 이동경로를 조사하여 DB로 구축함으로써, 교육노동시장 간 진입 및 이동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및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통계작성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조사모집단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상의 2~3년제, 일반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졸업자
표본 크기	18,000명
표본추출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표본추출	대학을 기준으로 약 30%의 졸업생 명부를 제공 받음
조사방법	조사대상자 사전접촉: 전화를 이용한 사전접촉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태블릿 PC를 활용한 개별 면접조사(TAPI)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응답자가 대면면접조사
조사항목	경제활동상황, 현재일자리, 구직활동, 비경제활동상태, 첫일자리,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학교생활, 졸업 후 진학 경험, 재학 중 경험한 일자리, 어학연수 경험 및 외국어 시험, 졸업 전 취업목표, 취업준비 및 기타사항, 직업능력 향상 교육 및 훈련, 취득 자격증, 시험준비, 청년고용대책, 신체 및 정신건강, 인적사항, 소득 및 지출의 19개 영역
조사단위	개인
조사주기	1년
조사시기	매년 9월 1일~11월 30일
공표시기	익익년 2월
주된 활용	인력수급 전망의 기초자료 청년 및 고학력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진로 및 진학상담의 객관적 자료 전공-직업불일치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 학교-노동시장 이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3. 청년층 대상 통계청 승인 조사통계의 특성과 한계

□ 청년패널과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조사목적이 노동시장이행 관련 정보 수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영역별 종합적 삶의 실태를 살펴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청년패널조사의 목표모집단은 2007년 15~29세 청년층으로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을 대표하는데 한계를 가지며,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대졸자에 한정됨.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영역별 삶의 실태에 대한 조사내용을 담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크기가 3,500명으로 전국 청년을 살펴보기에는 충분히 크지 못하고, 일부 영역, 이를테면 소득, 지출, 자산의 경우에는 가구단위의 정보가 부재하며, 개인 단위의 조사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짐.

제2절 행정통계 고찰

1. 행정데이터 활용의 필요성

□ 표준적인 서베이 데이터의 특징

○ 표준적인 대규모 서베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짐.

- 수 천~수 만 규모의 가구 또는 개인을 표본으로 함.
- 다단계 층화 확률 표본추출: 전국 전체 가구를 목표모집단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를 조사모집단 및 표본추출틀로 하여, 층별로 조사구를 추출하고, 조사구 내에서 가구를 추출한 후, 알려진 모집단 특성과 표본의 특성이 일치하도록 사후층화를 실시함.
  - 청년과 같은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는 주로 전국 전체 가구를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한 후 가구 내 청년을 추출하는 방식을 취함.
- 대면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서베이의 시계열 설계로는 반복횡단 설계, 패널 설계, 연동표본 설계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음.

- 시간에 따른 개인 수준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패널 설계가 필요하지만, 시간에 따른 패널탈락이 표본의 대표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연동표본 설계는 반복횡단 설계와 패널 설계의 중간적 형태로, 주로 집단 수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통계청 조사에 활용되고 있음.

□ 표준적인 서베이 데이터의 한계

○ 표본추출과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짐.

- 표본 규모의 제약으로 인한 확률적 오차가 존재함. 따라서 표본으로부터 집계한 통계치가 모수치와 확률적으로 차이가 있음. 특히, 사례 수가 작은 하위집단에 대한 분석이나 시간에 따른 변화 분석이 어려움.
- 조사 분량의 제약으로 인한 조사 내용의 한계가 존재함.

○ 표본추출과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큰 한계를 가짐.

- 표본추출 과정에서 비확률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unit nonresponse) 고소득층이 과소표집되어 전체 소득 분포가 왜곡될 것임.
- 응답 과정에서 특정 항목에 대한 미싱이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득에 응답할 가능성이 낮다면(item nonresponse) 고소득층의 소득이 체계적으로 누락되어 전체 소득 분포가 왜곡될 것임.
- 응답하더라도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는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득을 과소보고할 가능성이 크다면 전체 소득 분포가 왜곡될 것임.

○ 이와 같은 서베이의 한계는 시간에 따라 점차 커지고 있음.

- 사회조사의 종류와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인식이 강해지면서 사회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순응도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음.
  - Meyer, Mok, & Sullivan(2015, pp.3-8)에 따르면 CPS, SIPP, CE, NHIS, GSS 등 미국의 주요 서베이의 단위무응답(unit nonresponse) 확률과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 확률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반면, 행정 정보화 수준의 향상으로 행정데이터의 질과 활용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음.

□ 행정데이터의 장단점

○ 행정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짐.

- 전수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에도 서베이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대규모 표본을 확보할 수 있음.
- 조사 시간 및 분량의 제약이 없고,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행정데이터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를 매우 자세하게 수집할 수 있음.
- 단위무응답, 항목무응답, 측정오차 문제를 피할 수 있음.
- 횡단, 반복횡단, 패널 등 다양한 표본 설계가 가능함.
  - 서베이 패널과 달리, 시간에 따른 패널탈락으로 인한 대표성 하락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행정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짐.

- 연구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아니므로, 변수와 표본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기가 쉽지 않음.
- 아직까지 행정데이터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가 많음. 예를 들어, 전 국민의 교육수준이나 경제활동상태를 행정데이터로 파악하기는 어려움.

2. 행정데이터 활용 방식

□ 행정데이터의 주요 활용 방식

○ 개별 행정기관이 각각 보유한 단일 DB를 활용하는 방식이 가능함.

-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DB, 고용보험DB, 국민연금DB 등을 활용하여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실태를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음.
- 하지만 개별 제도의 행정 과정에서 수집하지 않은 정보는 활용할 수 없고, 여러 제도의 결합 실태나 비수급자-수급자 비교가 불가능함.

○ 서베이와 행정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식이 가능함.

- 예를 들어,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에 국세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 등의 행정자료를 개인 단위로 연계하여 소득 및 비소비지출 변수를 보완하고 있음.
- 서베이 표본에 행정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단위무응답 문제에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항목무응답과 측정오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이원진, 정해식, 전지현(2019, 제4장)에 따르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자료 보완은 서베이가 소득불평등 수준을 과소추정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 비교적 효과적임.

○ 여러 개의 행정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식이 가능함.

- 예를 들어, 사회보장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사회보장정보원, 각 연금공단 등이 관리하는 각종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연계하여 〈1차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구축하였음(이현주 외, 2020).
- 여러 행정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결합하면,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소득, 재산, 사회보장 수급 실태를 포괄하는 표본 또는 전수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음.

□ 통계청의 〈중장년층 행정통계〉 사례

○ 통계청은 각종 행정데이터를 결합하여 중장년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장년층 행정통계〉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음.

○ 만 40~64세 인구와 해당 인구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성, 연령 등 인구학적 정보와 지역, 일자리, 소득, 주거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음.

〈표 2-7〉 통계청 중장년층 행정통계 작성 항목

구분	작성 항목
기본현황	거주지, 거주지 이동,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세대구성유형, 가구원수, 거처유형, 주거면적,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자녀 연령
경제활동	종사상지위, 근속기간, 산업대분류, 종사자규모, 월 평균 임금, 전년 종사상 지위, 전년 근속기간, 전년 산업대분류, 전년 종사자규모, 전년 월 평균 임금, 개인기업체 창업
주택소유	개인 주택 소유물건수, 개인 주택 소유자산가액, 가구 주택 소유물건수, 가구 주택 소유자산가액
소득과 금융권 대출잔액	소득금액, 금융권 대출잔액
연금가입	공적연금 가입 여부, 퇴직연금 가입 여부

자료: 통계청. (2020). 2019년「중·장년층 행정통계」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에서 2021. 12. 20. 인출. p.62.

3. 청년 삶 실태조사의 행정데이터 활용 가능성 검토

□ 개별 행정기관의 기존 집계자료 및 DB 활용

○ 조사 분량과 시간의 제약이 있는 서베이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수급 관련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기존 행정데이터 DB를 활용하여 청년의 사회보장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음.

- 사회보험 가입, 고용보험 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각종 직업훈련 및 교육, 근로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임대주택, 장학금 등 각종 사회보장 관련 실태를 행정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음.

○ 개별 행정기관이 이미 주요 사회보장제도 수급 관련 실태를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으므로, 기존 집계치 중 청년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주요 지표가 산출되어 있지 않거나 19~34세 기준 청년 대상 집계치가 따로 생산되지 않은 경우, 개별 행정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미시 수준 데이터에 접근하여 새로운 집계치를 산출해볼 수 있음.

○ 실태조사 결과를 행정데이터 집계치와 비교하여 조사의 정확도를 확인하거나, 실태조사로 수집하지 못한 정보를 파악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음.

□ 청년 삶 실태조사 표본과 행정데이터의 결합

○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사례처럼, 청년 삶 실태조사 표본에 행정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조사 분량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서베이로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회보장제도 수급 관련 정보를 행정데이터로 수집하여 서베이 표본에 연계하는 방식임.
- 서베이로 확보하지 못한 실태를 추가로 조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베이로 파악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보완하여 서베이 조사 결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단, 현 단계에서 실태조사 표본에 행정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제도적 제약을 극복해야 함.

- 우선, 실태조사 표본에 행정데이터를 결합하는 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키가 필요함.
  - 법적 제약으로 인해, 통계청과의 협업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매칭은 대체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름-성-생년월일-지역 등 몇 가지 개인정보를 활용한 매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매칭의 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조사표에서 구성한 항목에 대응하는 행정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일치도와 자료의 가용성과 관련하여 개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오랜 시간의 검토가 필요함.
- 여러 행정기관의 협조를 조직·관리하여 행정데이터를 추출·결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함.
  - 특히, 시간에 따라 청년 삶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계획이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안정적인 조사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여러 개의 행정데이터를 결합한 청년 행정데이터 구축

○ 장기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결합하여 전 국민의 교육, 고

용, 소득, 재산, 주거, 사회보장 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데이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이는 청년 삶 실태조사만의 과제가 아니라 노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등 각종 법정 실태조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통의 과제임.

○ 사회조사 영역에서 이러한 방향의 행정데이터 구축 시도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음.

- 통계청은 여러 행정데이터를 결합하여 〈중장년층 행정통계〉, 〈신혼부부통계〉, 〈일자리행정통계〉 등 다양한 행정통계 데이터를 구축·제공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운영 및 집행 과정에서 수집한 다양한 행정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가공하여 표본연구DB와 맞춤형연구DB를 구축·제공하고 있음. 주로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소득·자산 분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실태 분석으로 연구 주제가 확장되고 있음(예를 들어, 서울연구원, 가천대학교 불평등과 사회정책 연구소, 국민건강보험, 2021).
-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청년의 소득, 자산, 부채와 관련한 정보를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큼.

- 소득, 자산, 부채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인 동시에, 고용지원, 소득보장, 자산형성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성과지표이기도 함.
- 소득, 자산, 부채 등과 같은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 특성은 서베이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자료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자료 보완 작업을 통해 국세청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과소보고와 같은 서베이 편의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음(이원진, 정해식, 전지현, 2019).
- 통계청의 〈중장년층 행정통계〉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를, 한국신

용정보원으로부터 금융권 대출정보를, 주택소유통계DB로부터 주택소유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통계청, 2020, p.61).

○ 또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의 사회보장 가입 및 수급 실태와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보험 가입 및 수급 실태, 각종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수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정보와 소득, 자산, 부채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과 사회보장 실태 정보를 연계·결합한 데이터를 구축한다면 청년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임.

제3장

청년 삶 실태조사 표본 설계와 조사 방법 검토

제1절 표본 설계
제2절 조사 방법

제3장 청년 삶 실태조사 표본 설계와 조사 방법 검토

제1절 표본 설계

□ 표본규모 10,000가구를 기반으로 표본설계 과정을 서술하고, 15,000가구를 목표로 한 경우도 함께 제시함.

□ 표본설계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자료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 기준 연도에 맞춰 수정·보완이 필요함.

1. 목표 표본규모 10,000가구에 대한 표본설계

가. 모집단

□ 목표모집단은 2021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일반가구 내의 만 19~34세 가구원임.

○ 만 19~34세 가구원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가구만 해당함.

□ 조사모집단은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중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지역 조사구 등은 제외한 조사구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임.

□ 모집단 내 전체 일반가구[1]는 20,343,188가구이며, 만 19~34세 청년 인구는 10,191,573명임.

○ 시도별 가구 비중과 청년 인구 비중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

1) 일반가구는 ①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②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③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를 의미함.

을 보임.

○ 가구당 평균 청년 인구수는 서울, 경기도, 세종시,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에서 전국보다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남.

〈표 3-1〉 2019년 인구총조사 - 시도별 가구 및 만 19~34세 인구 분포

(단위 : 가구, %, 명, %)

지역	가구		만 19~34세 인구(청년)		가구당 평균 청년 인구
	가구	비율	인구	비율	
전국	20,343,188	100.0	10,191,573	100.0	0.50
서울	3,896,389	19.2	2,204,571	21.6	0.57
부산	1,377,030	6.8	653,572	6.4	0.47
대구	968,620	4.8	479,525	4.7	0.50
인천	1,120,576	5.5	595,206	5.8	0.53
광주	587,159	2.9	314,408	3.1	0.54
대전	609,043	3.0	340,497	3.3	0.56
울산	437,094	2.1	218,739	2.1	0.50
세종	129,664	0.6	66,896	0.7	0.52
경기	4,907,660	24.1	2,616,789	25.7	0.53
강원	633,942	3.1	272,644	2.7	0.43
충북	654,713	3.2	313,792	3.1	0.48
충남	864,102	4.2	402,659	4.0	0.47
전북	738,307	3.6	317,157	3.1	0.43
전남	741,026	3.6	270,463	2.7	0.36
경북	1,102,934	5.4	448,219	4.4	0.41
경남	1,321,213	6.5	562,767	5.5	0.43
제주	253,716	1.2	113,669	1.1	0.45

주: 통계청(2019). 2019년 인구총조사.

나. 층화

□ 표본틀은 2019년 인구총조사 조사구 자료를 사용하며 특성번호 “아파트(A)” 및 “일반(1)”에 해당하는 372,373 조사구로 구성되어 있음.

○ 1차 층화는 17개 시도이고, 9개 도 지역은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2차 층화함. 2차 층 내에서는 일반 조사구와 아파트 조사구로 세부 층화함.

- 서울과 경기의 경우, 인구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지역도 넓어서 표본의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표 3-2〉, 〈표 3-3〉와 같이 세부 층화함.
  - 경기의 만 19~34세 청년 인구 수 비중은 25.7%이고, 서울은 21.6%임(〈표 3-2〉 참조).

〈표 3-2〉 서울 권역별 해당 구 현황

권역	해당 지역
북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북동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남서부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남동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표 3-3〉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권역	해당 지역
북부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중부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광명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시흥시, 김포시, 하남시, 광주시, 의정부시
남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표 3-4〉 2019년 인구총조사 - 세부 층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

(단위 : 개)

지역		전체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전국		184,005	188,368	135,246	166,460	48,759	21,908
서울	북서부	7,816	4,550	7,816	4,550	-	-
	북동부	11,949	9,264	11,949	9,264	-	-
	남서부	13,438	8,477	13,438	8,477	-	-
	남동부	6,735	7,306	6,735	7,306	-	-
부산		10,994	14,686	10,994	14,686	-	-
대구		7,164	9,597	7,164	9,597	-	-
인천		9,126	10,827	9,126	10,827	-	-
광주		3,510	6,712	3,510	6,712	-	-
대전		4,714	5,870	4,714	5,870	-	-
울산		3,173	5,096	3,173	5,096	-	-
세종		575	1,817	575	1,817	-	-
경기	북부	5,496	6,478	1,615	3,809	3,881	2,669
	중부	18,154	23,546	16,625	22,923	1,529	623
	남부	15,287	19,275	11,208	16,531	4,079	2,744
강원		6,636	5,623	2,749	4,174	3,887	1,449
충북		6,333	5,958	2,715	3,961	3,618	1,997
충남		8,786	7,496	2,697	4,421	6,089	3,075
전북		7,424	6,397	3,619	5,683	3,805	714
전남		8,483	5,589	2,031	3,698	6,452	1,891
경북		12,594	9,057	4,570	6,039	8,024	3,018
경남		12,042	13,162	5,976	9,563	6,066	3,599
제주		3,576	1,585	2,247	1,456	1,329	129

주: 통계청(2019). 2019년 인구총조사.

다. 표본크기 결정

□ 표본크기를 결정 시 통계 생산단위의 목표허용오차 크기, 사용 가능한 예산, 조사 수행 시간 등을 고려하며, 표본크기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n = \frac{\sum_{h=1}^{L} N_h^2 S_h^2 / w_h}{N^2 D + \sum_{h=1}^{L} N_h S_h^2}$$

○ 여기서, n은 표본 크기, N은 모집단 크기, S_h^2은 h에 대한 모집단 분산, w_h는 h에 대한 표본배분식, $D = B^2 / Z_{\alpha/2}^2$ 이고, B는 허용오차의 크기를 의미함.

○ 목표 표본크기는 단순임의확률추출 가정에서 모비율 추정의 최대 허용 표본오차를 고려하여 산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10,000가구로 결정함.

- 95% 신뢰수준 하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0.98%p임(〈표 3-5〉 참조).
- 층화집락추출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 값보다 조금 더 크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함.

〈표 3-5〉 표본크기에 대한 특성

표본 크기	10,000가구
최대 허용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0.98%p

라. 표본배분

□ 통계작성 단위인 시도별 표본 조사구의 배분은 층별 만 19~34세 청년인구 규모에 대한 제곱근비례배분법을 기반으로 하여 최종 방안을 마련하였음(〈표 3-8〉 참조).

○ 본 조사에서는 가구수에 따라 표본을 배분할 경우 읍·면지역의 표본규모가 과소 표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조사의 주요 목적에 적합한 19~34세 청년인구 규모에 따라 표본을 배분함.

○ 표본배분법은 비례배분법, 제곱근비례배분법, 우선할당비례배분법을 비교하여 결정하였음.

- 우선할당비례배분법의 경우 시도별 300가구를 우선 할당한 다음에, 나

머지 표본규모는 시도별 만 19~34세 청년인구 규모에 비례배분함.

○ 청년인구가 작은 세종은 300가구로, 나머지 시도는 최소 400가구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 청년 실태 관련 시도별 통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표 3-6〉 시도별 조사구 특성별 표본배분 현황

(단위 : 가구)

지역	만 19~34세 인구(청년)	표본배분 방안			
		비례배분	제곱근비례배분	우선할당비례배분	최종 배분방안
전국	10,191,573	10,000	10,000	10,000	10,000
서울	2,204,571	2,220	1,280	1,360	1,250
부산	653,572	640	680	620	670
대구	479,525	480	590	530	580
인천	595,206	600	670	590	660
광주	314,408	300	470	450	460
대전	340,497	320	490	460	480
울산	218,739	210	400	410	390
세종	66,896	80	220	330	300
경기	2,616,789	2,600	1,390	1,560	1,360
강원	272,644	250	430	430	420
충북	313,792	300	470	450	460
충남	402,659	370	530	490	520
전북	317,157	310	480	450	470
전남	270,463	260	440	430	430
경북	448,219	410	550	520	540
경남	562,767	540	620	570	610
제주	113,669	110	290	350	400

○ 시도별 최종 표본배분 방안에 대한 모비율 추정에서의 예상 상대표준오차는 다음과 같음.

- 전국은 1%이고 시도별 전체 평균은 4.37%로, 경기가 2.71%로 가장 작고 세종이 5.78%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나, 통계적으로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표 3-7〉 시도별 예상 상대표준오차 현황

(단위 : 가구, %)

지역	표본크기	예상 상대표준오차(RSE, p=0.5 기준)
전국	10,000	1.00
서울	1,250	2.83
부산	670	3.87
대구	580	4.15
인천	660	3.89
광주	460	4.67
대전	480	4.57
울산	390	5.07
세종	300	5.78
경기	1,360	2.71
강원	420	4.88
충북	460	4.67
충남	520	4.39
전북	470	4.62
전남	430	4.83
경북	540	4.31
경남	610	4.05
제주	400	5.00

○ 시도에서의 동부와 읍·면부 구분별 표본배분은 2019 인구총조사 결과의 만 19~34세 인구 규모(청년)를 기준으로 한 비례배분법을 적용함.

〈표 3-8〉 시도에서의 동부와 읍·면부 구분별 표본배분 결과

(단위 : 명, 가구)

지역	만 19~34세 인구(청년)			표본배분 결과		
	동부	읍·면부	합계	동부	읍·면부	합계
전국	8,856,785	1,334,788	10,191,573	8,470	1,530	10,000
서울	2,204,571	-	2,204,571	1,250	-	1,250
부산	653,572	-	653,572	670	-	670
대구	479,525	-	479,525	580	-	580
인천	595,206	-	595,206	660	-	660
광주	314,408	-	314,408	460	-	460
대전	340,497	-	340,497	480	-	480
울산	218,739	-	218,739	390	-	390
세종	66,896	-	66,896	300	-	300
경기	2,234,700	382,089	2,616,789	1,160	200	1,360
강원	174,937	97,707	272,644	270	150	420
충북	201,555	112,237	313,792	300	160	460
충남	218,973	183,686	402,659	280	240	520
전북	254,059	63,098	317,157	380	90	470
전남	142,943	127,520	270,463	230	200	430
경북	268,973	179,246	448,219	320	220	540
경남	398,801	163,966	562,767	430	180	610
제주	88,430	25,239	113,669	310	90	400

○ 지역별 가구당 평균 청년 인구수는 읍·면부에 비해서 동부에서 많은 편으로, 이러한 지역성 특성을 반영하고자 표본조사구에서의 목표 표본가구로 동부는 8가구, 읍·면부는 6가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함.

- 표본조사구 당 15~16가구를 계통추출법에 따라 표본가구를 선정함.
- 표본조사구에서 조사해야 할 가구 수는 실제 본 조사 시 조사예산, 실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함.

〈표 3-9〉 동부와 읍·면부 구분별 가구당 평균 청년 인구수

지역	모집단 가구수	19~34세 청년인구수	가구당 평균 청년인구수
전국	20,343,188	10,191,573	0.50
동부	16,436,952	8,707,782	0.53
읍·면부	3,906,236	1,483,791	0.38

○ 표본설계에 의해서 추출되는 1차 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 수는 1,318개(동부: 1,063개, 읍·면부: 255개)임.

- 추출단위와 조사단위는 다음과 같음.

① 1차 추출단위: 표본 조사구

② 2차 추출단위: 조사구 내의 가구

③ 최종 조사단위: 가구 내 거주하는 만 19~34세 가구원 전부

〈표 3-10〉 시도에서의 동부와 읍·면부 구분별 표본 조사구 수

(단위 : 명, 가구)

	동부	읍·면부	합계
전국	1,063	255	1,318
서울	156	-	156
부산	84	-	84
대구	73	-	73
인천	83	-	83
광주	58	-	58
대전	60	-	60
울산	49	-	49
세종	38	-	38
경기	145	33	178
강원	34	25	59
충북	38	27	65
충남	35	40	75
전북	48	15	63
전남	29	33	62
경북	40	37	77
경남	54	30	84
제주	39	15	54

○ 1차 층화는 17개 시도이고, 9개 도 지역은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2차 층화함. 2차 층 내에서는 일반 조사구와 아파트 조사구로 세부 층화함.

○ 각 지역층에 배분된 표본크기를 조사구 수 기준의 비례배분법을 적용하며, 세부 층별 표본 배분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11〉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수

(단위 : 개)

지역		동부		읍·면부		합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전국		460	603	181	74	1,318
서울	북서부	18	10	-	-	28
	북동부	27	21	-	-	48
	남서부	29	19	-	-	48
	남동부	15	17	-	-	32
부산		36	48	-	-	84
대구		31	42	-	-	73
인천		38	45	-	-	83
광주		20	38	-	-	58
대전		27	33	-	-	60
울산		19	30	-	-	49
세종		9	29	-	-	38
경기	북부	3	8	9	6	26
	중부	33	46	2	1	82
	남부	22	33	9	6	70
강원		14	20	18	7	59
충북		15	23	17	10	65
충남		13	22	27	13	75
전북		19	29	13	2	63
전남		10	19	26	7	62
경북		17	23	27	10	77
경남		21	33	19	11	84
제주		24	15	14	1	54

마. 표본추출 및 표본대체

□ 표본조사구 추출 시 내재적 층화변수 선정 및 조사구 추출은 다음과 같음.

○ 층별 내재적 층화변수는 3개로, 인구총조사의 항목 중 활용 가능한 변수인 만 19~34세 인구 비율, 주거면적(중형 이하), 1인 가구 수 비율을 선정함.

- 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은 조사과정 중에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층별 만 19~34세 인구 비율, 주거면적(중형 이하), 1인 가구 수 비율 순으로

정렬한 후, 만 19~34세 인구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로 조사구를 추출함.

□ 표본가구 선정은 표본조사구의 요도와 가구명부에서 계통추출법으로 선택하고 방문하여 적격 조사 대상가구를 조사함.

○ 표본조사구당 15~16가구를 추출하며 동부는 8가구, 읍·면부는 6가구를 조사완료 목표로 함.

○ 가구명부에는 가구에 대한 세부정보가 없으므로, 가구명부 순서에 따라 계통추출하는 방식으로 표본 가구대상을 선정함.

□ 표본대체는 재개발, 천재지변 등으로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가 조사 불가능인 경우 실시함.

○ 동일 층 내에서 예비조사구(표본조사구의 20%)로 대체하여 조사 진행.

바. 가중치 산정 및 추정

□ 가중표본 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를 산출하고, 이를 사용하여 평균, 구성비 등의 통계치를 산출하도록 함.

○ 추정치 편향을 없애기 위해 사후 층화(Post Stratification)를 하여 가중치 조정을 실시함.

□ 표본추출 단계와 동일한 순서로, 조사구 추출이 1단계이고 추출된 조사구에서 가구 추출이 2단계로 가중치를 부여함.

○ 각 조사구 내 가구들은 동일한 가중값(설계 가중치)을 가지며, 조사 완료 후 추출확률을 고려하여 가중값을 부여함.

○ 설계가중치 식은 다음과 같음.

L : 층의 수

N_h : 층 h의 모집단 조사구 수

n_h : 층 h의 표본 조사구 수

S_{hi} : 층 h의 i번째 조사구의 총 가구 수

$S_h = \sum_{i=1}^{N_h} S_{hi}$: 층 h에서 총 가구 수

M_{hi} : 층 h의 i번째 조사구 내 가구 수

m_{hi} : 층 h 의 i번째 조사구 내 조사착수 가구 수

r_{hi} : 층 h의 i번째 표본조사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

$$\text{설계가중치} = \frac{S_h}{n_h m_{hi}}$$

○ 무응답 조정은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해 최초 목표 표본 크기를 유효 표본크기로 나누어 조정함.

- 최초 표본단위를 대체표본으로 교체(substitution)하는 경우 무응답 보정은 필요하지 않음.

$$\text{무응답 조정 가중치} = \frac{m_{hi}}{r_{hi}}$$

○ 사후층화는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으로 가중치를 적용함.

-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가중치로 계산된 가구가중치는 17개 지역(동, 읍·면 고려), 가구원수 정보를 이용하여 조사완료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자료인 장래가구추계 결과로 사후층화보정을 실시함.
- 설계모집단 청년 인구의 분포에 맞게 사후층화 조정하며, 조사완료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자료인 장래인구추계 결과 중 17개 지역에서의 성별과 연령대별(19~24세, 25~29세, 30~34세) 청년 인구를 적용하여 산출

함.

○ 최종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를 모두 곱한 값이며, 식은 다음과 같음.

최종 가중치 = 설계 가중치 × 무응답 조정 가중치 × 사후층화 가중치

- 전체 가구의 평균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overline{\hat{Y}}= \sum_{h=1}^{L}\sum_{i=1}^{n_h}\sum_{j=1}^{m_{hi}} w_{hij}y_{hij} / \sum\sum\sum w_{hij}$$

w_{hij}: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 각 응답결과

L: 층의 수

n_h: 층 h에서의 표본 조사구의 수

m_{hi}: 층 h내 i번째 표본 조사구의 응답자 수

$w_{...} = \sum_{h=1}^{L}\sum_{i=1}^{n_h}\sum_{j=1}^{m_{hi}} w_{hij}$: 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

- 추정량의 분산은 아래와 같음.

$$var(\overline{\hat{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overline{e_{h..}})^2$$

L: 층의 수

n_h: 층 h에서의 표본 조사구 수

m_{hi}: 층 h내 i번째 표본 조사구의 응답자 수

$f_h = n_h / N_h$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

$$\overline{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오차한계는 다음과 같음.

-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hat{\overline{Y}}) = \sqrt{var(\hat{\overline{Y}})}$$

-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rse(\hat{\overline{Y}}) = \frac{s.e(\hat{\overline{Y}})}{\hat{\overline{Y}}} \times 100(\%)$$

-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

$$\text{오차의 한계} = 1.96 \times \sqrt{var(\hat{\overline{Y}})}$$

2. 목표 표본규모 15,000가구에 대한 표본설계

□ 목표 표본규모를 15,000가구 기준으로 표본설계한 결과, 표본 조사구 수는 1,978개(동부: 1,588개, 읍·면부: 390개)로 나타남.

□ 목표 표본규모 10,000가구에서 살펴본 모집단 분석 및 층화 관련 내용은 동일하여 생략하고, 표본크기 결정과 표본배분에 대해 작성함.

가. 표본크기 결정

□ 목표 표본크기는 단순임의확률추출 가정에서 모비율 추정의 최대 허용 표본오차를 고려하여 산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15,000가구로 결정함.

- 95% 신뢰수준 하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0.80%p임(〈표 3-12〉 참조).
- 층화집락추출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 값보다 조금 더 크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함.

〈표 3-12〉 표본크기에 대한 특성

표본 크기	15,000가구
최대 허용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0.80%p

나. 표본배분

□ 통계작성 단위인 시도별 표본 조사구의 배분은 층별 만 19~34세 청년인구 규모에 대한 제곱근비례배분법을 기반으로 하여 최종 방안을 마련하였음(〈표 3-6〉 참조).

○ 표본배분법은 비례배분법, 제곱근비례배분법, 우선할당비례배분법을 비교하여 결정하였음.

- 우선할당비례배분법의 경우 시도별 300가구를 우선할당한 다음에, 나머지 표본규모는 시도별 만 19~34세 청년인구 규모에 비례배분함.

〈표 3-13〉 시도별 조사구 특성별 표본배분 현황

(단위 : 가구)

지역	만 19~34세 인구(청년)	표본배분 방안			
		비례배분	제곱근비례배분	우선할당비례배분	최종 배분방안
전국	10,191,573	15,000	15,000	15,000	15,000
서울	2,204,571	3,240	1,890	2,440	1,880
부산	653,572	960	1,030	940	1,030
대구	479,525	710	880	770	880
인천	595,206	880	980	880	980
광주	314,408	460	710	610	710
대전	340,497	500	740	630	740
울산	218,739	320	590	510	590
세종	66,896	100	330	360	350
경기	2,616,789	3,850	2,060	2,840	2,050
강원	272,644	400	660	560	660
충북	313,792	460	710	600	710
충남	402,659	590	810	690	810
전북	317,157	470	720	610	720
전남	270,463	400	660	560	660
경북	448,219	660	850	740	850
경남	562,767	830	950	850	950
제주	113,669	170	430	410	430

○ 시도별 최종 표본배분 방안에 대한 모비율 추정에서의 예상 상대표준오차는 다음과 같음.

- 전국은 0.82%이고 시도별 전체 평균은 3.61%로, 경기가 2.21%로 가장 작고 세종이 5.35%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나, 통계적으로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표 3-14〉 시도별 예상 상대표준오차 현황

(단위 : 가구, %)

지역	표본크기	예상 상대표준오차(RSE, p=0.5 기준)
전국	15,000	0.82
서울	1,880	2.31
부산	1,030	3.12
대구	880	3.37
인천	980	3.19
광주	710	3.75
대전	740	3.68
울산	590	4.12
세종	350	5.35
경기	2,050	2.21
강원	660	3.89
충북	710	3.75
충남	810	3.51
전북	720	3.73
전남	660	3.89
경북	850	3.43
경남	950	3.24
제주	430	4.82

○ 시도에서의 동부와 읍·면부 구분별 표본배분은 2019 인구총조사 결과의 만 19~34세 인구 규모(청년)를 기준으로 한 비례배분법을 적용함.

〈표 3-15〉 시도에서의 동부와 읍·면부 구분별 표본배분 결과

(단위 : 명, 가구)

지역	만 19~34세 인구(청년)			표본배분 결과		
	동부	읍·면부	합계	동부	읍·면부	합계
전국	8,856,785	1,334,788	10,191,573	12,670	2,330	15,000
서울	2,204,571	-	2,204,571	1,880	-	1,880
부산	653,572	-	653,572	1,030	-	1,030
대구	479,525	-	479,525	880	-	880
인천	595,206	-	595,206	980	-	980
광주	314,408	-	314,408	710	-	710
대전	340,497	-	340,497	740	-	740
울산	218,739	-	218,739	590	-	590
세종	66,896	-	66,896	350	-	350
경기	2,234,700	382,089	2,616,789	1,750	300	2,050
강원	174,937	97,707	272,644	420	240	660
충북	201,555	112,237	313,792	460	250	710
충남	218,973	183,686	402,659	440	370	810
전북	254,059	63,098	317,157	580	140	720
전남	142,943	127,520	270,463	350	310	660
경북	268,973	179,246	448,219	510	340	850
경남	398,801	163,966	562,767	670	280	950
제주	88,430	25,239	113,669	330	100	430

○ 지역별 가구당 평균 청년 인구수는 읍·면부에 비해서 동부에서 많은 편으로, 이러한 지역성 특성을 반영하고자 표본조사구에서의 목표 표본가구로 동부는 8가구, 읍·면부는 6가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함.

- 표본조사구 당 15~16가구를 계통추출법에 따라 표본가구를 선정함.
- 표본조사구 당 목표 표본규모는 10,000가구와 동일하게 적용함.
- 표본조사구에서 조사해야 할 가구수는 실제 본 조사 시 조사예산, 실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함.

〈표 3-16〉 동부와 읍·면부 구분별 가구당 평균 청년 인구수

지역	모집단 가구수	19~34세 청년인구수	가구당 평균 청년인구수
전국	20,343,188	10,191,573	0.50
동부	16,436,952	8,707,782	0.53
읍·면부	3,906,236	1,483,791	0.38

○ 표본설계에 의해서 추출되는 1차 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 수는 1,978개(동부: 1,588개, 읍·면부: 390개)임.

- 추출단위와 조사단위는 다음과 같음.

① 1차 추출단위: 표본 조사구

② 2차 추출단위: 조사구 내의 가구

③ 최종 조사단위: 가구 내 거주하는 만 19~34세 가구원 전부

〈표 3-17〉 시도에서의 동부와 읍·면부 구분별 표본 조사구 수

(단위 : 명, 가구)

	동부	읍·면부	합계
전국	1,588	390	1,978
서울	235	-	235
부산	129	-	129
대구	110	-	110
인천	123	-	123
광주	89	-	89
대전	93	-	93
울산	74	-	74
세종	44	-	44
경기	219	50	269
강원	53	40	93
충북	58	42	100
충남	55	62	117
전북	73	23	96
전남	44	52	96
경북	64	57	121
경남	84	47	131
제주	41	17	58

○ 1차 층화는 17개 시도이고, 9개 도 지역은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2차 층화함. 2차 층 내에서는 일반 조사구와 아파트 조사구로 세부 층화함.

○ 각 지역층에 배분된 표본크기를 조사구 수 기준의 비례배분법을 적용하며, 세부 층별 표본 배분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18〉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수

(단위 : 개)

지역		동부		읍·면부		합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전국		689	899	272	118	1,978
서울	북서부	27	15	-	-	42
	북동부	41	31	-	-	72
	남서부	45	29	-	-	74
	남동부	23	24	-	-	47
부산		55	74	-	-	129
대구		47	63	-	-	110
인천		56	67	-	-	123
광주		31	58	-	-	89
대전		41	52	-	-	93
울산		28	46	-	-	74
세종		11	33	-	-	44
경기	북부	5	11	13	9	38
	중부	50	69	4	1	124
	남부	34	50	14	9	107
강원		21	32	29	11	93
충북		24	34	27	15	100
충남		21	34	41	21	117
전북		28	45	19	4	96
전남		16	28	40	12	96
경북		28	36	41	16	121
경남		32	52	29	18	131
제주		25	16	15	2	58

제2절 조사 방법

1. 조사 방법과 관련한 이슈

□ 표본 설계에 이어서 조사 방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조사 방법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조사대상 또는 조사단위를 선택해야 함. 개인단위 조사와 가구단위 조사, 그리고 가구단위와 개인단위 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구분됨.

○ 둘째, 가구단위 혹은 개인과 가구 혼합조사의 경우 가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가구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household)로 할 것인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family)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셋째, 표본추출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구를 선택할 것인가 집계구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임. 이는 제1절에서 조사구 기반으로 표본 추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므로 별도의 검토는 필요하지 않음. 다만, 조사구 기반으로 조사를 할 경우 조사 편의와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응답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 즉, 주 응답자를 가구주(또는 가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사의 주 대상자인 청년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조사 대상을 가구와 개인의 혼합으로 할 경우 가구조사표는 가구주(또는 가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가, 개인조사표는 청년이 각각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음.

○ 다섯째, 가구 내 청년이 2인 이상일 경우 모든 청년을 조사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표 청년 1인만을 조사대상으로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음. 후자의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대표 청년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이에 본 절에서는 주요 선행 조사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위 다섯 가지 이슈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함.

2. 선행 조사 사례 검토

□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기존 청년 대상 조사인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청년패널조사'를 참고할 수 있으며, 특정 집단에 대한 조사라는 측면에서 '노인실태조사'를 참고할 수 있음.

가.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조사 대상

○ 18~34세 개인

- 2016년 첫 조사는 15~39세.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영하여 18~34세로 변경됨.

□ 가구 정의(비해당)

○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원가족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 여부에 상관 없이 조사구 내 접촉한 모든 가구 대상.

□ 조사 방법

○ 조사원 가구 직접 방문. 조사대상자 접촉 대면 개별면접.

○ 표본 선정 가구 방문 → 조사 취지 및 목적 설명, 조사 수락 요청 → 조사대상 적격 연령대 가구원 확인 → 조사 대상자 재택 시 개별 면접 원칙. 부재시 유치조사 병행.

나. 청년패널조사

□ 조사 대상

○ 15~29세 개인

□ 가구 정의(비해당)

□ 조사 방법

○ 이중추출법 활용

- 1단계 표본: 「2006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 취업자가 1인 이상 있는 50,000가구의 약 70,000명 표본 중 청년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청년패널 표본 추출.

○ 청년 거주 가구 스크린 서베이(유치조사) 실시.

○ 청년 패널은 개인 베이스 조사로 가구 정보(가구 소득, 유년기 경험, 부모님 학력 등)는 조사표 후반부에서 별도 질문.

다. 노인실태조사(2020년)

□ 조사 대상

○ 17개 시·도의 일반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개인.

- 2018년 인구센서스 조사구 중 기숙사, 특수시설 조사구, 섬 지역 조사구는 제외.
- (표본추출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전국 아파트 조사구와 보통 조사구 리스트.
- (층화) 1차: 시·도, 2차: 도지역(동부, 읍·면부)로 층화. 보통 조사구와 아파트 조사구로 세부 층화.

□ 가구 정의(비해당)

○ 노년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으로 독립 여부에 상관 없이 조사구 내 접촉한 모든 가구 대상.

□ 조사 방법

○ 2020년 17개 시·도의 일반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목표

모집단으로 하여 2018년 인구센서스 조사구 중 기숙사, 특수시설조사구, 섬 지역 조사구는 제외한 일반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사용.

○ 노인 실태조사는 개인 베이스 조사.

라. 사례검토의 함의

□ 청년 대상 실태조사(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청년패널)와 특정 정책대상자 조사(노인실태조사)의 경우 모두 개인 단위 조사를 수행

○ 청년 관련 조사 중 청년패널은 종단면 조사의 특성상 청년 개인의 종단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 개인에 초점을 두고,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횡단면 조사로 청년들의 삶의 맥락보다 현재의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는 것에 비중을 두면서 가구조사가 아닌 개인조사로 접근한 것으로 보임. 노인실태조사의 경우는 노인의 현재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가족이나 가구의 맥락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크지 않음. 모든 조사에서 가구가 아닌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한 이유에 대한 논거는 제시되지 않음.

○ 조사대상 관련 정책과 문제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조사단위 결정 필요.

- 노인실태조사의 경우는 가족이나 가구의 맥락이 정보로써의 가치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발달의 과정이나 이행의 과정에 있는 대상은 가족(가구)의 맥락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 특정 정책대상자 조사 중 정책대상자(응답자)가 보완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나, 각 조사대상자의 가족관계 속에서 진솔한 응답을 끌어내기 어려운 경우에 페어(pair)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아동,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 주로 활용(부모의 눈치, 정보의 부족 등)되지만, 신혼부부를 각각 조사한 사례도 있음(조성호 외, 2019). 결혼, 출산과 관련된 인식의 부부간 차이를 발견하고 이 같은 차이가 야기하는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페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2. 조사 단위: 개인 vs 가구

□ 특징 비교

○ 개인 단위 조사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청년패널, 노인실태조사 등 개인의 정보가 중요한 경우 실시.
- (표집) 대부분의 승인통계의 모집단인 인구총조사는 가구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개인단위 표집 시 확률기반 추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등이 통계승인을 득한 것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예상 이슈) 대상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경우 가구일반사항, 경제상황 등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해당 변수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가족이나 가구의 맥락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가구 단위 조사

- 주거실태조사 등과 같이 가구 단위의 정보가 중요한 경우 실시.
- (예상 이슈) 대상 청년의 개인특성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가구 단위 조사와 개인 단위 조사 병행

- 국민생활실태조사, 보훈대상자 실태조사, 출산력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등과 같이 가구와 개인의 정보가 모두 중요한 경우 실시.
- (조사표 구성) 가구조사표(일반사항, 경제상황 등), 개인조사표로 구성.
- (접촉의 어려움)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경우 한 가구 내 2명(또는 그 이상)을 조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사원이 방문하는 낮 시간에 청년이 부재할 가능성이 커서 전체 조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특히,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원의 경우 타 지역의 조사팀이 접촉을 해야 하거나(이 같은 경우는 매우 랜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사원 분포 상황에 따라 조사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온라인조사 등 상이한

조사방법을 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가구단위로 구성된 모집단 특성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가구가중치)이 있지만 개인단위 분석을 위해서는 개인가중치를 별도로 산출해야 함. 그러나 이 같은 조사방법을 택하는 모든 조사에서 개인가중치를 별도로 산출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음.

〈표 3-19〉 조사목적별 적정 조사대상

목적	필수 조사항목	조사대상
청년기본법 (정책수립의 근거)	- 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책 영역 전반의 실태와 인식·경험·태도 - 취약계층 발굴(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위한 제 인과·상관관계 분석에 필요한 제반 변수	가구, 개인
청년기본계획 (청년지표 생산)	청년지표 중 기존 통계에서 활용불가능한 새로운 변수	가구, 개인
정책대상규모 추계	- 가구기준 소득, 재산, 지출 등 - 개인개준 소득, 재산, 지출, 경활상태 및 인구사회경제적 변수	가구, 개인
정책평가	정책수혜자, 정책신청자, 잠재 수혜자 등 욕구, 실태 정책평가를 위해 제 인과·상관관계 분석에 필요한 제반 변수	개인
현안 대응 (실태, 인식, 태도)	조사시점 정책 환경 포착	개인
취약계층 청년 발굴	고립청년 발굴	가구
청년행정통계 구축	청년 삶 전반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작성으로 청년층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가구, 개인

□ 장단점 비교

○ 개인조사는 청년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보다 유리하며, 주거와 가구구성을 파악하는데는 제한점이 있음.

○ 가구조사의 경우 원 가족 외 다른 구성원과의 동거 상황 파악에 용이.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1인 가구 청년의 동거 등 실태 파악 어려움. 그러나 가구조사에서 개인 조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음.

- 표본추출과 관련한 이슈: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경우 추출은 가구 단위, 조사는 개인 단위로 이뤄짐.

3. 가구 정의

가. 가구 정의에 관한 2가지 개념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household).

○ (사례) 가계동향조사, 주거실태조사 등

〈표 3-20〉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개념으로써의 가구 정의(가계동향조사)

-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및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단위
- 가구주: 호적상의 호주나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의 구성원 중 실제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생활비용을 주로 조달하고 있는 사람
- 가구원: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고, 자산 또는 소득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구성원. 가구는 혈연관계인 가족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비혈연 관계의 가구원이 동거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가족이라해도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2020년), 가계동향조사 지침서

□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조사대상 시점(1년) 중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 가구원.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family)

○ (사례) 가계금융·복지조사, 국민생활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등.

〈표 3-21〉 생계를 같이하는 개념으로써의 가구 정의(가계금융·복지조사)

- 가구: 가구는 1인 이상이 모여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적 생활 단위, 학업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미혼 자녀와 직장 때문에 외지에 살고 있는 배우자는 포함하여 조사
- 가구원: 가구주와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 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함께 생활하지 않더라도, 생계(소득과 지출)를 같이 하는 가구원은 조사대상
  - 같은 집에 살아도 소득 및 지출을 달리하는 친인척은 제외

자료: 통계청(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지침서

나. 2가지 개념 비교

□ (1안) household 조사

○ 청년의 경제적 독립 유무에 상관없이 방문한 가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조사 (청년이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않음). 이 때 부모동거가구는 가구 조사를 하나 이는 청년의 환경을 알기 위한 부가적 조사임 (예: 청년의 주거상태는 부모의 상태에 종속되어 있어 부모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태를 밝힘)

○ 청년을 (원) 가구단위에서 벗어나 분석단위로 설정함으로써 가구주 중심의 분석에서 벗어날 수 있어 청년을 중심으로 한 상태를 살펴볼 수 있음. 단, 청년 실태의 배경이 되는 원가족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일 수 있음.

□ (2안) Family 조사

○ 방문한 가구의 청년이 동거 유무에 상관없이 비독립적으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원가구 조사와 청년조사를 병행함. 이 때 청년조사는 별도로 실시하며 경제적 독립유무는 조건(9개월 이상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함 등)을 부과하여 판별.

○ 비독립 청년의 배경 실태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원가구로부터의 이행 배경을 분석할 수 있음. 단, 독립/비독립의 구분이 자의적일 수 있음. 그러나 한국복지패널조사와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

사를 실시한 바 있음.

- 가족 단위로 조사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한 청년 1인 가구는 개별 가구로 조사(가구상황 조사=개인상황 조사).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지만 1인 가구 청년은 원가족 조사에서 개인조사 대상으로 조사(가구상황과 개인상황 조사)

〈표 3-22〉 2가지 가구 개념의 비교

구분			원 가구 조사	청년 가구 조사	청년 개인 조사
(1안) household 조사	독립청년		×	○	○
	비독립	부모동거청년	○	○	○
		부모비동거청년	×	○	○
(2안) family 조사	독립청년		×	○	○
	비독립	부모동거청년	○	○	○
		부모비동거청년	○	×	○

□ 전문가 검토 의견

○ 청년의 원가구 배경 및 실태 파악 문제

- family 조사의 경우, 생계로 연결된 원가구(가족)의 소득·자산 배경 파악에 이점은 있음.
- 청년 조사가 대부분 인식 조사이므로, 실태 파악에 관한 조사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청년의 계층 문제에 있어 각 청년 계층별로 가구 배경을 면밀히 파악 가능한 family 방식이 더 적절할 것임.
- 소득·자산 배경의 파악은 표본 추출과 접근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사표와 조사 방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임.
- household 방식의 접근이 조사 대상의 포괄성(coverage) 정도와 조사관리, 대표성 확보 측면에서 모두 용이할 수 있음.

□ 연구진 검토사항

○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가족 단위 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청년 1인 가구 비중은 2.4%, 가구 단위 조사인 가계동향조사는 8.2%임. 가족 단위로 조사할 경우 2.4%의 청년 1인 가구가 개별 가구로 조사되고, 5.8%(=8.2%-2.4%)는 가구조사에서 개인 조사로 연계되어 조사가 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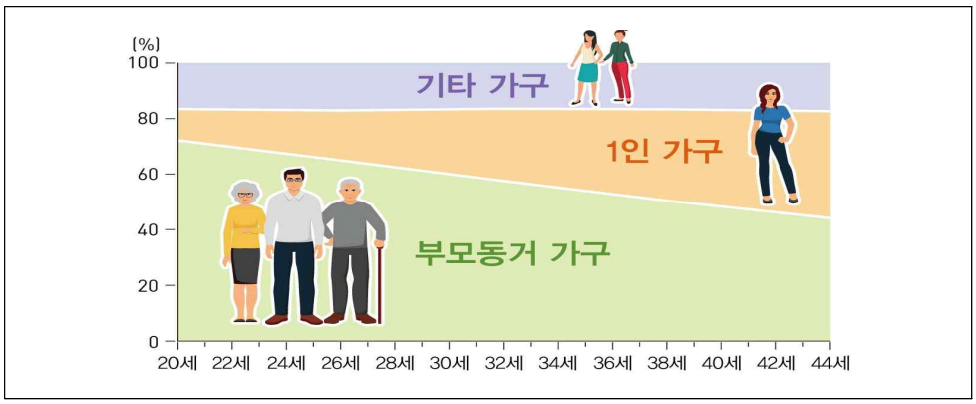
〈표 3-23〉 통계청 주요 조사의 청년 1인 가구 비율 비교

(단위 : %)

가구주 연령	2020년 가계동향조사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인 가구	2인 가구 이상	소계	1인 가구	2인 가구 이상	소계
18 ~ 34세 (청년)	8.2	4.4	12.6	2.4	3.2	5.6
35 ~ 39세	2.1	7.7	9.8	1.1	6.9	8.0
40 ~ 49세	4.2	16.8	21.0	2.4	19.5	21.9
50 ~ 59세	4.9	18.9	23.8	3.3	21.1	24.5
60 ~ 64세	2.3	7.8	10.1	2.2	9.5	11.8
65세 이상	7.9	14.8	22.7	10.5	17.9	28.3
합계	29.7	70.3	100.0	21.9	78.1	100.0

자료: 통계청(2020년), 가계동향조사(연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3-1〕 미혼남녀(20~44세)의 연령집단별 세대유형



주: 기타 가구는 3세대 가구, 비혈연 가구 등임.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2015년)
출처; 박시내(2020). 저(저)혼인 시대, 미혼남녀 해석하기.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봄호. 통계개발원.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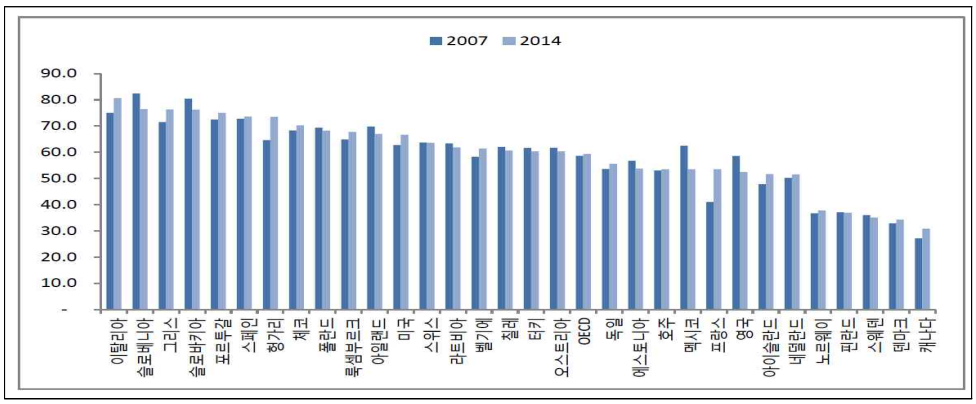
○ 2015년 기준으로 미혼남녀(20~44세) 중 부모동거 가구('캥거루족') 비중은 30~34세 57.4%, 35~39세 50.3%로 나타남. 청년층의 고용 상황 악화와 비혼과 만혼 경향이 강해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

○ [그림 3-1]에서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25세 무렵에도 부모 동거비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음.

○ 부모 동거 가구는 청년의 고용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OECD 주요국들도 공통적인 경향으로 추측됨.

- OECD(2016)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과 이후인 2014년을 비교해보면 부모 동거 비율은 전체적으로 약 0.7% 포인트 증가한 반면, 배우자나 파트너와 같이 사는 청년의 비율은 약 1% 포인트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OECD, 2016: 84; 김문길·이주미, 2017: 32).

[그림 3-2] OECD 국가의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15~29세) 비중 변화



주: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자료는 없음.
자료: EU-SILC(EU 국가), HILDA(호주), SLID(캐나다), CASEN(칠레), CPS(미국)을 이용해 OECD가 계산. OECD(2016). OECD Society at a Glace 2016. p.34 재가공
출처: 김문길·이주미(2017). p.33

○ 이와 별도로 OECD와의 비교를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부모와 같이 사는 15~29세 청년의 비율을 산출한 결과임.

- OECD와 동일한 정의와 방법을 따라 산출할 경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은 2014년 84.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이탈리아(80.6%)보다 높은 수준이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 77.1%에 비해 7.5% 포인트 증가함.
- 18~25세 청년은 2007년 84.8%에서 2014년 89.5%로 4.7% 포인트 증가했고, 26~34세 청년은 같은 기간 31.1%에서 34.1%로 3% 포인트 증가(김문길·이주미, 2017: 34).

〈표 3-24〉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의 비율

(단위 : %)

연령	2007년	2014년		
		계	취업자	비취업자
15~29세	77.1	84.6(100.0)	(32.0)	(68.0)
18~25세	84.8	89.5(100.0)	(37.6)	(62.4)
26~34세	31.1	34.1(100.0)	(74.9)	(25.1)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계산
출처: 김문길·이주미, 2017. p.34

○ 청년 고용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움.

- 청년고용률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음(2007년 청년고용률 43.2%. 2015년 41.2%, 2020년 42.2%). 여기에 청년 주거비용 증가, 비혼·만혼 경향 심화 등의 요인.

○ 1인 가구 비중 31.7%는 전체 일반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 1인 가구 중 청년(20~34세) 1인 가구 비중은 28.4%. 일반가구 중 청년 1인 가구 비중은 9.3% 수준(2020년 인구총조사 기준).

- 청년 1인 가구 수를 인구 기준으로 보면 전체 20~34세 청년 인구 10,332,347명 대비 18.2%(19~34세 청년인구 대비 18.5%).

〈표 3-25〉 연령별 1인 가구 수와 비중

(단위: 가구, %)

가구주 연령	가구 수	1인 가구 중	전체가구 중
(20 ~ 24세)	492,331	7.4	2.4
(25 ~ 29세)	774,580	11.7	3.7
(30 ~ 34세)	618,401	9.3	3.0
20 ~ 34세	1,266,911	28.4	9.0
1인 가구 합계	6,643,354	100.0	31.7
일반가구 합계	20,926,710	-	100.0

4. 가구(가족) 내 조사대상 청년 범위

□ 1인 or 전수

○ 표본가구 규모 15,000가구 기준으로 1인만 조사할 경우 표본청년 수는 15,000명, 전수를 조사할 경우는 22,580명 정도로 추산.

- 2020년 기준 19~34세 청년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 수 약 723만 가구(2020년 주거실태조사), 해당 연령 청년 인구 수 약 1,051만 명(2020년 인구총조사).
- 이 중 1인 가구 194만 가구. 즉, 1인 가구의 청년 수는 194만 명(청년 인구의 18.5%)(주거실태조사).
- 2인 이상 가구 529만 가구(=723만 가구-194만 가구), 857만 명(청년 인구의 81.5%).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청년 인구 수는 1.62명(=857/529).
- 따라서 15,000가구를 1인 가구(18.5%)와 2인 이상 가구의 비율(81.5%)을 적용하면 22,580명(=15,000×18.5% + 15,000×81.5%×1.62).

○ 표본수가 많을수록 표본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뢰성과 대표성 측면에서는 전수 조사가 바람직하지만 전술한 조사단위(개인vs가구)와 가구정의(가구vs가족) 검토결과와 연계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조사단위를 가구로 할 경우 가구주(또는 대표응답자)와 청년 개인을 동시에 조사해야 함. 이 경우 가구주와 동거하는 청년 전수(평균 1.62명)를 조사해

야 하고, 여기에 조사단위를 동거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청년을 포괄하는 가족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조사기간과 조사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경우는 대표 청년 1인만 조사하는 것이 유리.

- 조사단위를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전수를 조사하기에 보다 용이.

○ 대표 청년 1인만 조사를 할 경우에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이 경우 통상적 조사에서 빠른 생일자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있음.

5. 가구접촉 방식: 조사구 vs 집계구

□ 조사구, 집계구

○ 조사구는 조사에 있어 대상의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고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분할 설정한 조사구역단위(약 40가구).

- 인구주택총조사의 목표모집단의 조사구는 보통조사구, 섬조사구, 기숙시설조사구, 특수사회시설조사구, 관광호텔및외국인거주지역조사구, 아파트조사구 등으로 구분됨.
- 통상 조사모집단은 조사하기 어려운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보통 및 아파트 조사구로 한정.
- 주요 승인통계는 조사구 방식. 통계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구 조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8.25. 자문회의).

○ 시설조사구는 조사구 중에서 기숙시설(학교, 회사, 기숙시설을 갖춘 학원 등), 사회시설(보육원, 양로원,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시설, 기타 복지시설)에 특화한 조사구.

- 조사구나 집계구 조사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거주 청년을 표집하는데 강점이 있음.

○ 집계구는 기초단위구를 결합시켜 만든 구역으로 기초단위구에 통계적 특성인

동질성, 동량성을 부가하여 확정한 근린지역 통계서비스 구역(최적 500가구)

- 고시원, 기숙사 등 특수주거 형태 접근 가능성은 조사구보다 높음(6.23. 자문회의).

□ 집계구, 시설조사구 활용에 대한 검토

○ 집계구에 대한 사전 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해당 과와 협의가 필요한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임(11.16. 통계청 간담회). 또한 대부분의 승인통계가 조사구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집계구를 활용할 경우 통계승인이 불가할 수 있음.

○ 시설조사구 활용에 대해서는 자문회의와 통계청 간담회를 통해 검토하였음.

- 시설조사구 제외시 실제보다 양호한 결과 나올 것(6.23. 자문회의)
- 시설조사구의 경우 조사원 접근이 어려울 수 있음. 기숙사 거주 청년과 원룸 거주 청년은 주거 형태를 제외하면 동질적인 집단으로 생각해도 무방. 학업을 위해 학교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음.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은 시설조사구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통계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임(8.25.자문회의). 또한 기숙사 청년에 대해 조사를 한다면, 어떤 주제로 연구할지 구체화 필요(8.25. 자문회의)
- 통계청이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11.16. 통계청 간담회).
- 그러나 대학기숙사 수용률은 약 23%로 적은 비중이 아니므로 시설조사구 포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8.25. 자문회의).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시설조사구 활용의 실현가능성이 낮고, 통계청으로부터 제공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조사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설조사구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조사가능성은 조사시기와 조사시기의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매우 가변적임. 예를 들어 대학기숙사 조사구의 경우는 방학기간 중 활용 불가능,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 운영일 경우에도 조사 불가능.

□ 조사구 활용시 조사효율성 제고 방안

○ 통계청 표본과에서 제공하는 조사구의 대략적 특성은 파악이 가능함. 예컨대, 각 조사구에 청년이 밀집해 있는지 정도는 파악이 가능함.

- 표본과 제공 정보로 조사구의 평균적인 특성. 예) 평균 인구 수, 청년 비율, 아파트조사구는 평형별 비율,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정도 등이 있음. 이는 조사구 선택에 참고할 수 있음.

○ 여기에 통계청 등록센서스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경우 조사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음.

- 가구명부에 청년포함 가구 체크 추가 가능(해당 과와 협의 필요)
- 등록센서스과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조사구 내 가구의 특성(청년 포함 여부 등 가구원별 정보)임.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는 MDIS에서 파악이 가능함. 이는 조사구 내 조사 가구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음.

제4장

조사표 설계

제1절 조사내용 설계의 기본방향 및
조사항목 구성(안) 도출 절차
제2절 영역별 조사표 설계안

제4장 조사내용 설계

제1절 「청년 삶 실태조사」 조사내용 설계의 기본방향 및 조사항목 구성(안) 도출 절차

□ 청년 삶 실태조사 조사내용 설계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함.

□ 첫째, 청년 삶 실태조사 조사내용은 삶과 밀접해야 함.

○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을 포괄하는 조사통계들이 파악하고 있는 삶의 영역과 내용을 고려함.

○ 특히, 이행기 특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뿐 아니라 미래 계획에 대한 내용과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기 조사를 통해 관리될 필요가 있고, 관리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

○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기본법에 의해 매2년마다 실시하여 시계열적 추세를 장기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는 조사통계임.

○ 따라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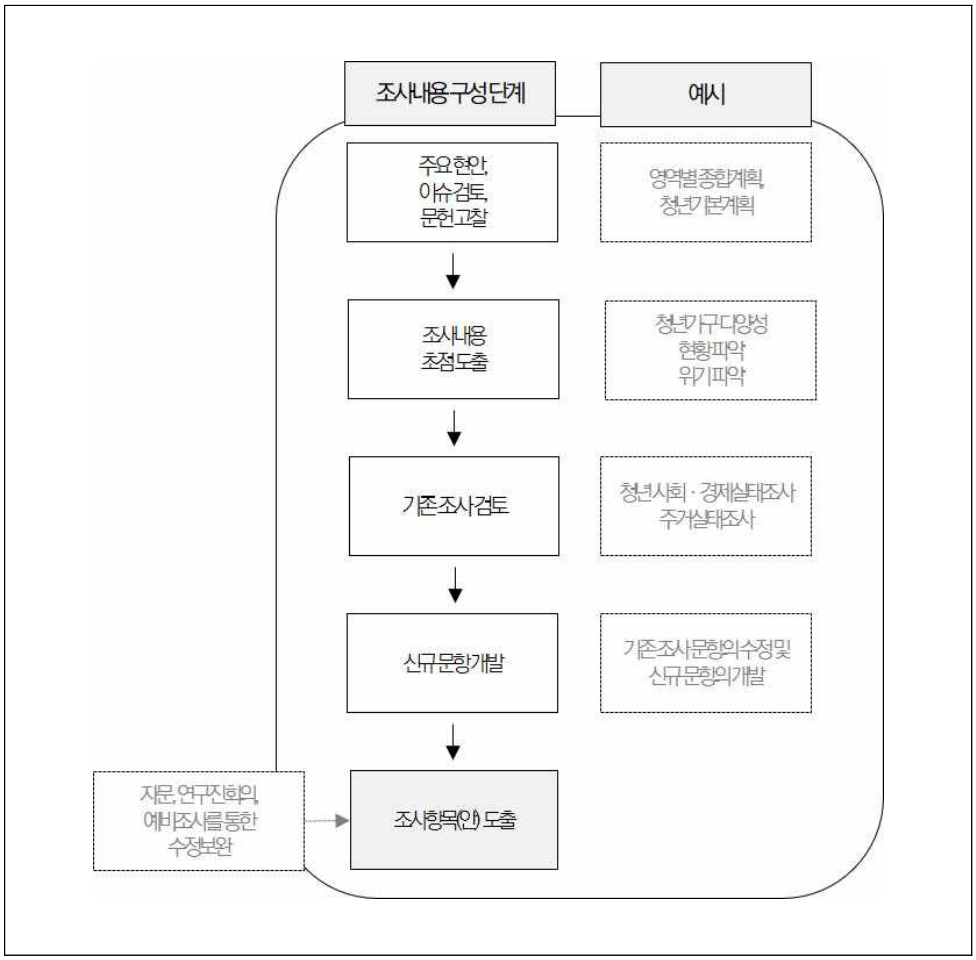
□ 셋째, 청년의 욕구에 기반한 대응을 위해 실태와 인식문항을 포함할 것.

○ 청년의 욕구에 기반한 대응을 위해서는 실태를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기대 수준과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갖고있는 비전, 삶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인식문항은 청년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변화하는 청년들의 사회에 대한 인식을 포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고려사항을 토대로 조사영역은 일반사항, 경제(소득·자산, 지출) 노동, 주거, 건강, 교육·훈련, 여가, 참여, 사회인식, 미래설계로 구성함. 조사내용의 설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짐. 먼저, 영역별로 주요 현안과 이슈 검토 및 문헌 고찰을 실시함. 이를 통해, 조사내용의 초점을 도출함. 다음으로, 기존 조사 검토를 통해 기존의 문항들을 참고하고 영역별 조사내용 초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항목을 구성함.

〔그림 4-1〕 조사항목 구성(안) 도출 프로토콜



제2절 영역별 조사내용 설계안

1. 일반사항

가. 주요 현안, 이슈 검토, 문헌 고찰

□ 일반사항은 청년 개인과 가구원의 인구·사회·경제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다양한 청년 삶의 영역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가 됨.

○ 주요 통계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인 성별, 연령, 지역, 학력, 혼인 여부, 장애 여부, 경제활동상태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음.

○ 청년 삶 실태조사에는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청년기본법시행령」 제8조(청년 실태조사)에 명시되어 있음.

□ 기존 청년 대상 조사들은(예: 청년패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주로 조사단위를 청년 개인으로 함.

○ 개인 단위로 수행된 청년 조사의 경우, 청년 특성의 배경이 되는 가구 및 가구원의 인구·사회·경제적 정보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움.

□ 청년을 포함한 가구 내 모든 가구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일반사항 영역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문항 구성이 필요함.

○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상 공간적으로는 독립된 생활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독립하지 않은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부모 가구의 경제 상황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성별이나 연령 등 여러 특성이 거의 동일한 청년이더라도, 공간적·경제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서로 이질적인 청년 집단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가구원 정보의 파악은 잠재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 집단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됨.

나. 일반사항 영역 조사내용의 초점

□ 청년 삶 실태조사는 가구 단위로 조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에 일반사항에서는 청년의 인구·사회·경제적 일반적 정보에 대해 파악하고, 가구 및 가구원의 일반사항도 병행 조사함.

○ 일반사항에서 파악되는 특성에 따라 조사 대상을 여러 세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 집단에 따라 삶의 영역별 실태 파악과 인식 차이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설계함.

○ 청년 가구의 가구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청년의 생활실태와 욕구 파악에도 이점이 있음.

- 이를테면, 경제적 혹은 거주 차원에서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의 경우, 부모(가구주)에게 의존하며 가구원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청년 당사자만이 아니라 청년 특성의 배경이 되는 원가구(부모가구)와 그 가구원 정보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테면, 장애·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과 함께 사는 청년(young carer),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 등을 가구원 정보 문항을 통해 식별 가능하며, 청년 삶의 영역별 문항과 연계하면 이들의 생활실태 및 욕구도 파악이 가능함.
- 「청년기본법시행령」 제8조(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실태조사에는 청년의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가구 경제 영역(소득 및 지출)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즉, 가구주의 파악이나 가구 특성 파악 등을 위해 가구 및 가구원의 기초 정보 수집이 필요.

○ 가구 및 가구원 특성(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과 공적 소득의 연계를 통해 청년 가구 혹은 청년 개인이 받는 정책 지원에 대해 살필 수 있음.

□ 각각의 표본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일반사항 영역의 조사가 중요함.

○ 수집된 청년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통해, 각각의 청년 표본 특성이 모집단인 전국 청년들의 특성을 잘 대표하고 있는지 검토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일반사항'은 조사표의 흐름과 논리 구조상 가장 앞부분에 배치

○ 객관적인 정보인 일반적 특성을 일반사항 영역에서 조사 전반부에서 조사한 후, 중·후반부에서 개별 청년의 삶 영역의 실태와 인식 문항에 응답하도록 함. 응답자를 일관성 있게 응답하도록 유도하여, 응답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음.

〈표 4-1〉 일반사항 영역의 조사 내용의 초점

구분	내용
청년의 인구·사회·경제적 일반적 정보	- 청년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일반사항' 조사 항목에 대해 명시 - 다양한 청년 삶의 영역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
청년의 원가구 정보 및 가구원 특성에 관한 정보를 함께 파악	- 청년 특성의 주요 배경이 되는 원가구(부모가구)와 그 가구원 정보에 대한 병행 조사 필요 - 가구원 정보를 파악해 정책 지원이 필요한 청년 집단의 생활실태와 욕구 파악에 이점
가구 경제 영역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정보 수집	- 가구 및 가구원 특성(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과 공적 소득의 연계를 통해 가구 전체 혹은 청년이 받는 정책 지원에 대해 살필 수 있음.
표본의 대표성 문제	- 조사된 청년 표본의 특성이 모집단인 전국의 청년 특성을 잘 대표하고 있는지 검토하는데 활용 가능함.
'일반사항' 조사 영역의 전반부 배치	- 응답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음.

다. 일반사항 영역 조사 내용의 개발

1) 기존 조사 검토

①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조사단위가 청년 개인으로, 청년 특성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청년 (원)가구 및 청년 가구 내 가구원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임.

○ 본 연구에서는 청년 특성의 배경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청년 개인뿐만 아니라 청년이 속한 (원)가구 및 가구원의 인구·사회·경제의 일반적 특성을 함께 조사하는 가구 단위의 조사 방식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 개인 단위로 고안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배경 문항 중에서 가구 및 가구원 단위의 질문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 '부모님 최종학력' 문항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현직장 정보와 전직장 정보에 관한 배경 문항 중, 청년의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는 청년 실태조사의 '일반사항' 영역에서 파악하고, 그 외 정보는 중·후반부의 '노동' 영역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② 한국복지패널, 국민생활실태조사, 사회조사

□ 개인 단위 조사인 청년 패널 등은 일반사항의 문항들이 여러 영역에 걸쳐 분산·배치되어 있으며, 가구 단위 조사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가구 단위 조사이면서, 경제 영역(가구 소득 및 지출)의 조사를 병행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먼저 검토하였음.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과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참고하였으며, 통계청의 사회조사의 조사 항목도 함께 검토하였음.

□ 상기 나열한 주요 통계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하는 문항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청년 특성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문항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선별하였음.

○ 가구원 수,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 정도(학력), 혼인 상태 등의 문항은 여러 가구 단위 조사에서 공통으로 활용하는 문항이며, 조사 대상 및 조사 대상 가구에 대한 기초적인 인구·사회적 정보가 됨.

○ 종사상 지위 혹은 경제활동상태는 모든 가구원의 정보를 조사함. 그 외의 상세한 고용 형태, 종사 산업, 종사 직종 등의 현직장과 관련된 정보는 본 조사의 일반사항에서 다루지 않고, '노동' 영역에서 청년의 정보만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가구원의 장애 유무는 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가구원의 공적연금 가입상태 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 문항은 조사 전반부의 경제 영역 조사와 연계하여 청년 가구가 받는 정책 지원과 사회보험 등을 살펴보는데 활용가능함.

〈표 4-2〉 일반사항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조사명	년도	조사항목	검토 사항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각 년도	성별	- 필수적인 인구·사회적 특성 조사 항목으로 승계
		부모님 최종 학력	
		부모님 소득 수준	- 본 조사의 '경제' 영역에서 가구 소득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승계 가능
		현직장 정보	- 본 조사의 '노동'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승계 가능 - 현직장 정보 중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는 일반사항에서 경제활동상태 문항으로 승계
		전직장 정보	
한국복지패널· 국민생활실태조사	각 년도	가구주와의 관계	- 필수적인 항목, 청년 특성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주요 항목으로 조사 필요 - 청년 포함 전 가구원의 정보를 기재
		성별	
		생년월일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장애 유무	
		혼인상태	
		공적연금 가입상태	
		기초생활보장 수급경험	- 청년 특성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주요 항목으로 조사 필요 - 청년 가구의 정보를 기재
		가구원 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가구주와의 관계	- 필수적인 항목, 청년 특성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주요 항목으로 조사 필요 - 전 가구원의 정보를 기재 - 종사상 지위는 일반사항에서 경제활동상태 문항으로 승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 정도	
		종사상 지위	
		취업 여부	- 필수적인 항목, 청년 특성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주요 항목으로 조사 필요 - 본 조사의 '노동'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승계 가능
		산업	
		직업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년도	성별	- 필수적인 항목, 청년 특성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주요 항목으로 조사 필요 - 전 가구원의 정보를 기재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동거여부	
		교육 정도	
		혼인 상태	
		종사상 지위	
		장애 여부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성별	- 필수적인 항목, 청년 특성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주요 항목으로 조사 필요 - 개인의 정보를 기재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 정도	
		혼인상태	

2) 청년 일반사항 영역 조사항목 구성(안)

〈표 4-3〉 일반사항 영역 조사표 구성(안)

개념			조사목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구 일반사항	가구원 정보	가구주와의 관계	식별 문항
		가구원 성별	
		가구원 생년월	
		조사 대상자 여부	
		가구원의 교육수준	가구 및 가구원 특성 파악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가구원 장애 유무 및 정도	
		가구원 혼인 상태	
		가구원의 공적연금 가입 형태	가구원 공적연금 가입, 수급 정보 파악
		가입한 연금 제도	
		국민연금 가입 유형	
	가구 정보	가구원 수	청년가구 가구 규모 산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	기초보장 수급 정보 파악

2. 경제

1

가. 주요 현안

□ 현세대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주거비 부담 수준을 보면 주택가격 대비 금융기관 대출금(LTV)는 2020년 청년가구는 46.3%로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특히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느끼는 비율은 2020년 74.8%로 일반가구에 비해 많이 높은 상황임.

〈표 4-4〉 일반사항 영역의 조사 내용의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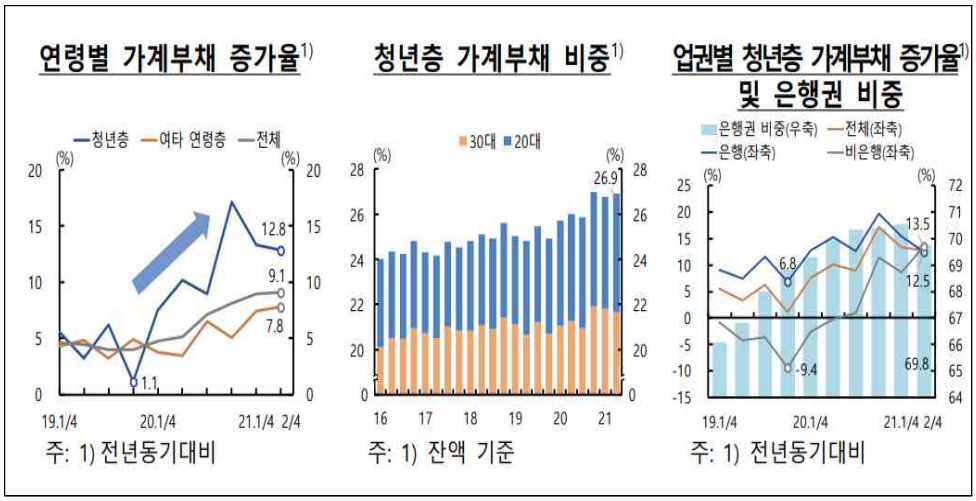
구분		LTV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느끼는 가구 비율	자가 PIR (중위수 기준)	임차 RIR (중위수 기준)
청년가구	2017년	45.7	80.8	5.0	18.8
	2018년	45.6	84.3	5.1	20.1
	2019년	46.3	76.3	5.0	17.7
	2020년	46.3	74.8	5.5	16.8
일반가구	2017년	38.2	66.0	5.6	17.0
	2018년	37.8	70.7	5.5	15.5
	2019년	38.1	65.0	5.4	16.1
	2020년	37.2	63.9	5.5	16.6

자료: 김강산. (2021).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현안분석 216호. 국회입법조사처.

□ 최근 청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 중임. 한국은행(2021)에 의하면 2021년 2분기 청년층 가계대출은 전체 대출대비 27%까지 상승함.

○ 특히 주택관련 대출(전세대출)이 25.6%로 높아져 다른 연령층(7.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그림 4-2〕 청년층 가계부채 변화



자료 : 한국은행(2021). 금융안정상황 9월 보도자료. 재인용.

나. 청년 '경제' 영역 조사 내용의 초점

□ 조사 목적

○ 청년 삶 실태조사 중 경제 영역은 청년이 기본적 삶을 유지하고, 다른 사회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기본 사항으로 구성함.

- 가구 생활비, 가구소득 및 가계부채와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구 생활비

○ 생활비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삶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본 항목으로 구성함.

- 식비, 주거비(월세 및 주거관리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및 문화여가비를 조사할 예정임.
- 의식주는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 항목으로 우리 조사에서도 식비, 주거비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함.
- 통신, 교통 및 문화여가비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주요한 항목임.

○ 이와 같이 파악된 생활비를 통해 청년들이 소득 혹은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부담하고 있는 지출항목을 파악하면 이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도 가능할 것임.

□ 가구 소득

○ 소득은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적 관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개인과 가구에게 주는 영향이 매우 큼.

○ 소득은 청년의 삶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문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근본적 자료이지만, 실제 조사의 어려움이 큰 항목이기도 함.

○ 연구진이 제안하고 있는 소득부문은 기존 통계청, 연구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있는 소득항목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구성하여,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피로감을 줄이고자 하였음.

○ 소득은 가구단위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시장소득에 해당되는 근로 및 사업소득, 이전소득인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공적이전소득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 사적이전소득은 청년들이 부모, 친지 혹은 기타 기관 등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향후 청년정책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가능함.

〈표 4-5〉 청년 경제 영역의 조사 내용의 초점

구분	내용
가구생활비	청년이 생활하는데 있어 기본적 지출 항목을 조사. 예를 들어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
가구 소득	청년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 항목으로 구성. 예를 들어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적소득 등으로 구성
가계부채와 재산	재산은 청년들이 미래 설계와 자기발전을 위한 기본적 토대이며, 부채는 청년의 미래 발전과 생활환경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임, 여기에는 금융 및 부동산 재산, 부채로는 학자금, 생활부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가계부채와 재산

○ 재산은 소득과 더불어 개인과 가구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단위이며, 한 사회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볼 수 있음.

○ 재산을 통해 안정된 생활은 물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른 세대에 비해 가지는 의미가 높음.

○ 반면 부채는 부채 형태에 따라 청년에게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줄 수 있는 항목임.

- 긍정적 측면 : 학자금, 사업 관련 부채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도 있음.

- 부정적 측면 : 생활부채 등은 직간접적으로 현재 청년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로 이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청년이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음.

○ 재산과 부채는 청년 개인은 물론 가구원(부모, 형제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구 단위로 조사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부채는 청년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부모나 형제 등 가족관계 등을 통해 필요치 않게 생길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은 물론 가구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경제'영역 조사의 주요한 쟁점은 지출과 소득은 개인단위로도 이루어지지만 가구단위로도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혼자 사는 청년 중에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소득과 지출이 자신은 물론 부모의 지원을 통해 함께 이루어짐으로 청년과 더불어 부모의 경제적 측면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이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이에 대한 파악은 어렵지 않지만, 만약 여러 사유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청년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할 경우, 과소 추정의 가능성이 있으며, 부모를 함께 조사할 경우에는 조사비용이 증가하고, 조사거부에 따른 표본 확보의 어려움이 함께 발생할 수 있음.

○ 하지만 청년층의 실질적 지출, 소득 및 재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단위 조사가 필요하고, 부모에 대한 추적조사 또한 진행될 필요가 있음.

다. 청년 '경제' 영역 조사 내용의 개발

1) 기존 조사 검토

□ 이하에서는 청년 삶 실태조사 영역 중 하나인 '경제' 부문 조사항목 설계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기존 조사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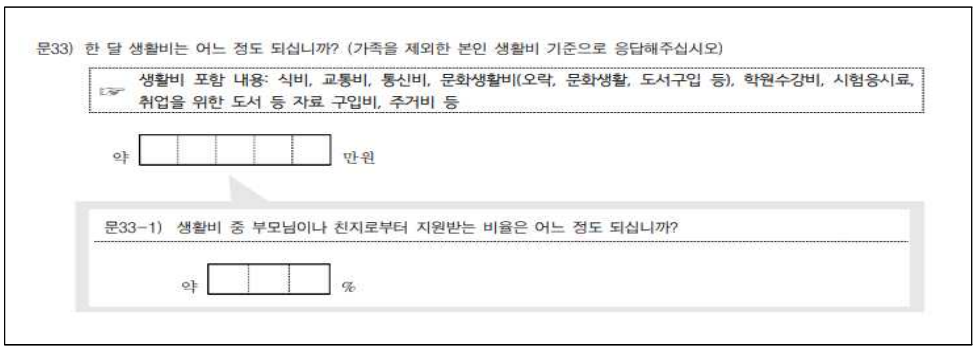
①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경우 지출, 소득 및 재산 관련 항목이 제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지출은 총생활비와 부모와 친지 등으로부터 받은 비용만을 조사 중.

- 2019년과 2020년 조사표를 보면, 아래와 같음. 이는 지출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협소하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지출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

〔그림 4-3〕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생활비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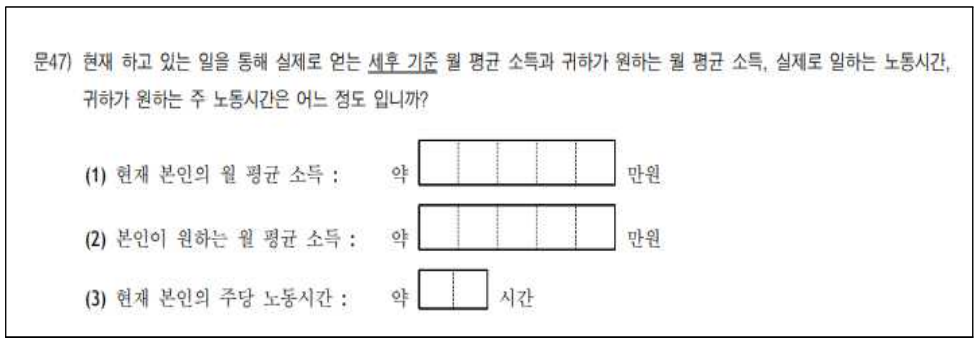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표.

○ 지출과 더불어 소득 역시 2019년 2020년 조사표를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제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청년개인에 대한 월평균 소득만을 파악함.
- 더불어 정부 정책, 부모 혹은 지인 등으로부터 지원 등 청년의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소득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지만 청년 사회·경제실

태조사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려움.

〔그림 4-4〕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소득 조사 문항


문47)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실제로 얻는 세후 기준 월 평균 소득과 귀하가 원하는 월 평균 소득, 실제로 일하는 노동시간, 귀하가 원하는 주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 약 ☐☐☐☐☐ 만원

(2)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 : 약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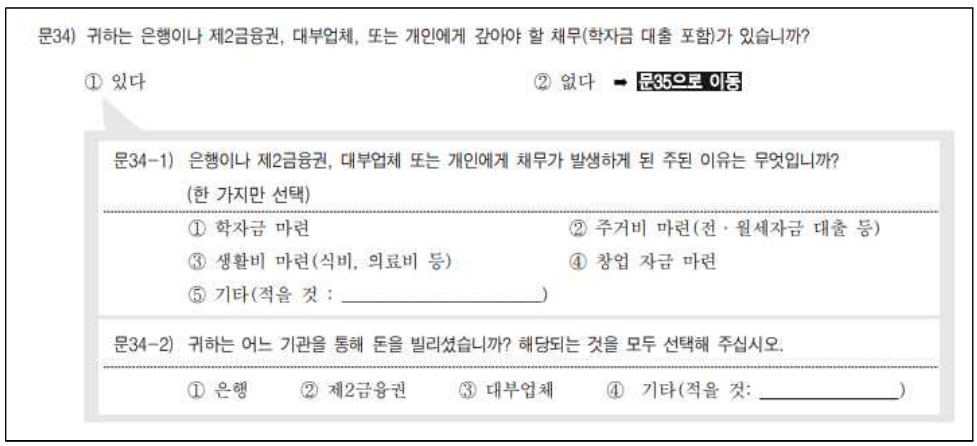
(3)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 약 ☐☐ 시간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표.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재산에 대한 조사는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지 못함. 2019년과 2020년 조사표를 기준으로 볼 때 채무 유무와 주된 이유를 중심으로 구성됨.

- 재산과 부채는 청년층의 현재와 미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높음에도 기존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는 데 한계를 지님.

〔그림 4-5〕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부채 조사 문항


문34)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35으로 이동

문34-1)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

① 학자금 마련 ② 주거비 마련(전·월세자금 대출 등)

③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등) ④ 창업 자금 마련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34-2) 귀하는 어느 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은행 ② 제2금융권 ③ 대부업체 ④ 기타(적을 것: _____)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표.

□ 내년에 시행 예정인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지출, 소득 및 부채 항목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청년에 대한 경제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②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청의 대표적인 지출, 소득 및 재산(부채) 조사자료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7년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국가 소득통계로 공식 인정되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소득조사에서 행정데이터가 보완되면서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조사 자료임.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함께 재산 및 부채 조사를 공동 조사함으로써 재산 및 부채 관련 항목에 대한 세부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③ 가계동향조사

□ 가계동향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국가공식통계로 인정되기 이전까지 공식통계로 활용된 조사로 지출과 소득을 중심으로 조사가 수행되었음.

○ 특히 지출은 가계부 기장방식으로 조사로 정밀한 조사가 수행되고 있어 지출 항목을 구성하는데 있어 주요한 참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표 4-6〉 경제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조사명	년도	조사항목	검토 사항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019	지출, 소득 및 부채	기존 조사표를 확대하여 추가 문항 개발
	2020	지출, 소득 및 부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2011 ~ 현재	지출, 소득 및 재산 (부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가소득통계(2017)로 공인되면서 한국의 소득, 재산(부채) 공식통계임. 동 조사 항목중 소득과 재산(부채) 항목에 대해 검토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2006 ~ 현재	지출, 소득	한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지출 및 소득을 조사해온 대표 조사임. 특히 지출이 특징적으로 조사되어 있어 지출항목에 대해 검토
국민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7, 2020년	지출, 소득 및 재산 (부채)	1999년부터 시작된 조사로 저소득층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출, 소득 및 재산을 주기적으로 조사. 관련항목을 검토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현재	지출, 소득 및 재산 (부채)	패널조사로 매년 지출, 소득 및 재산(부채) 항목을 조사하고 있으며, 시간흐름에 따른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관련항목을 조사 및 검토

④ 국민생활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국민생활실태조사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는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 2005년부터 5년단위로는 저소득층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차상위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조사가 진행되어오고 있음.

○ 저소득층과 비빈곤층의 소득, 지출 및 재산(부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저소득층 지원 사업 개발을 위한 주요 기초통계로 활용되고 있음.

⑤ 한국복지패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통계청 소득조사와 비교되는 것으로 2006년 이후 동일 조사 항목(지출, 소득 및 재산)을 꾸준히 조사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은 조사임.

○ 특히 동일 가구를 장기간 조사하면서 시간흐름에 따른 지출, 소득 및 재산 변화를 파악하고 비교분석한다는 점에서 청년실태조사 조사항목 개발과 향후 비

교를 위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2) 신규 문항 개발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청년의 지출, 소득 및 재산(부채)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조사항목이 매우 부족한 상황.

○ 반면에 통계청,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출, 소득 및 재산 항목은 매우 세밀하게 구축되어 있어, 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부족한 조사항목을 보완하면서 기존 조사 자료가 가지고 있는 복잡하고 장기간 조사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 항목을 축소하여 조사항목을 구성함.

□ 신규 문항 개발의 근거(필요성)

○ 가구 지출

- 의식주는 인간이 생활하고 활동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이를 측정하는 것은 지출임.
- 기존 청년조사의 경우 지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매우 협소하여, 이를 확대조사할 필요가 있음.

○ 가구 소득

- 개인 및 가구가 사회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소득이며, 개인 및 가구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됨.
- 현세대 청년들이 현재 시점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주요한 근거라는 점에서 소득 항목의 조사는 필수적임.
- 기존 청년조사에서는 청년 개인은 물론 가구 소득에 대한 파악이 분명하게 조사되지 않아 그 측정을 다른 조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던 문제가 있음.
-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기존 조사가 가진 문제를 극복하고 향후 청년들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소득 조사가 필요.

○ 부채 및 재산

- 재산은 청년들이 사회출발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임.
- 재산을 통해 주거와 같은 생활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며, 경제활동을 위한 기초항목임.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을 통해 창업, 자기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청년의 사회참여를 위해 주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음.
- 부채 역시 그 활용도에 따라 긍정과 부정적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음. 부채가 청년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부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표 4-7〉 경제 영역의 신규 문항 개발

개념			문항	척도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구 지출	총생활비		월평균 생활비	연속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식비		월평균 식비	연속	가계동향조사 복지패널, 국민생활
	주거비	월세	월세	연속	
		주거관리비	월평균 주거관리비	연속	
	교육비	공교육비	월평균 공교육비	연속	
		사교육비	월평균 사교육비	연속	
	통신비		월평균 통신비	연속	
	교통비		월평균 교통비	연속	
	의료비		월평균 의료비	연속	
	문화여가비		월평균 문화여가비	연속	
가구 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월평균 근로 및 사업소득	연속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복지패널, 국민생활
	공적이전소득	전체	월평균 공적이전소득	연속	
		고용보험	월평균 고용보험	연속	
		산재보험	월평균 산재보험	연속	
		근로장려세제	월평균 근로장려세제	연속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월평균 장애인연금 및 수당	연속	
		기타 정부 보조금	월평균 기타공적이전소득	연속	
	사적이전소득		월평균 사적이전소득	연속	

개념			문항	척도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구총소득			연속	
부채 및 재산	부채 총액		부채 총액	연속	가계금융복지조사 복지패널조사
	학자금부채		학자금 부채 금액	연속	
	주택관련 부채		주택관련 부채 금액	연속	
	생활비 부채		생활비 부채 금액	연속	
	월평균 이자		월평균 이자	연속	
	금융채무불이행 유무		금융채무불이행 있음, 없음	2점척도	
	금융재산		금융재산 금액	연속	
	기타 부동산 및 재산		기타 부동산 및 재산 금액	연속	

□ 신규 문항 활용 방안

○ 지출, 소득 및 부채(재산)

- 지출, 소득 및 부채 항목은 청년층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됨.
- 지출 항목에서는 청년층이 과하게 부담하는 지출에 대한 지원방안을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 소득은 빈곤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이 가능함. 재산 및 부채를 통해서는 자산형성, 과도한 채무를 가진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모색이 가능.

○ 교육과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재무관리, 경제교육 등을 통해 개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잘못된 경제상식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역할도 가능.

3) 청년 경제 영역 조사항목 구성(안)

〈표 4-8〉 경제 영역의 조사항목 구성(안)

개념			조사목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구 지출	총생활비		주요 지출 영역별 지출 실태를 통한 가구경제 특성 파악 →청년에게 필요한 현물지원 정책지원방안 마련
	식비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문화여가비		
가구 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근로소득 수준 파악
	공적이전소득	전체	유형별 사회보장제도 수급 여부 및 공적이전 소득 규모 파악 →정부정책효과 분석과 추가 현금지원을 위한 근거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장려세제	
		장애인 연금 및 수당	
		기타 정부 보조금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규모 파악
	가구총소득		→청년 빈곤, 소득분배 상황 비교 분석
부채 및 재산	부채 총액		부채 유형별 보유실태 및 규모 파악 →청년 재무관리 현황 파악과 정책방안 마련
	학자금부채		
	주택관련 부채		
	생활비 부채		
	월평균 이자		
	금융채무불이행 유무		가구경제 취약성 파악
	금융재산		재산 유형별 규모 파악 →청년 자산분배 상황 비교 분석
	기타 부동산 및 재산		

3. 노동

가. 주요 현안, 이슈 검토, 문헌 고찰

□ **노동 영역에서는 새로운 일의 형태와 양식, 노동의 불안정성과 자율성, 위험한 노동환경과 근로기준법,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주목함.**

□ **새로운 일의 형태와 양식**

○ 최근 전형적인 고용관계가 줄어들고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가 생겨나면서 기존의 고용관계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 전형적인 고용관계는 종신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단일한 고용주에게서 직접 업무지시를 받는 형태를 나타내며 이러한 고용관계 하에서 사회보험과 연금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음.
- 그러나 자본시장과 기술혁신의 변화로 기업은 핵심활동들에 초점을 맞추며 실질적인 업무의 상당 부분을 외부 하청업체에 맡기는 등의 변화가 지난 수십년간 이뤄짐(와일, 2015).
- 이에 따라 시간제, 임시직, 기타 기간제, 독립계약 등이 특정 직업이나 산업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전형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다양한 고용관계가 나타나고 있음.

○ 비전형적인 형태의 고용관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면서 기존에 종사상 지위(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 항목으로는 “위장 자영업”과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를 누락시킬 가능성이 있음(서정희, 박경하, 2016).

-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보험판매원, 배달원 등 해외에서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임금근로와 비임금 근로에 경계에 있는 근로자들이 최대 22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을 비임금 근로가 아닌 비정규직으로 분류할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더 높아지게 됨(장지연, 2017).

○ 이처럼 기존의 고용관계와 다른 형태의 고용관계에 따른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김영아, Bonneuil, 2019)에 따라 이들을 구분해내고,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노동의 불안정성과 자율성**

○ 고용관계의 다변화와 노동시장의 균열 강화의 맥락에서 노동시장 내 발생하는 임금, 고용, 직무 유연성을 노동자가 감내하는 양상이 나타내고 있음(Standing, 2011).

- 노동 유연성의 형태는 단지 고용 형태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임금 변동성을 감내하거나, 노동자들의 과업이 때로는 하루를 단위로 조정되는 등 노동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임(조해언, 2021).

○ 한편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이 중시되고 있는데, 이는 불안정성과 반대로 일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자율성과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 관심이 높아짐을 의미함.

-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과 가정생활 중 일을 우선시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일과 가정을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통계청, 2019).

- OECD의 일자리 질 지표에서 일자리의 위험요소와 동시에 일자리의 자원 측면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순서, 방법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자율성을 측정하고 있음(Cazes, Hijzen and A. Saint-Martin, 2015).

□ **위험한 노동환경과 근로기준법**

○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함에 따라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이 일하다가 사망하는 산재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청년,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 씨, 등 작업현장에서 청년 근로자들이 홀로 일하다가 사망하는 사건 이후 위험의 외주화에 따라 위험한 노동환경에 놓인 청년의 현실이 드러남(박채영, 2021.12.6.).

- 적절한 보호조치가 미비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사

건 이외에도 과도한 업무로 인한 CJ ENM에서 일하다 숨진 이한빛 PD 사건, 상사의 갑질 등 과도한 업무로 인한 IT 부문 종사 청년의 사망 사건, 간호사의 괴롭힘과 과로에 따른 사망 사건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따른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 이어지고 있음.

○ 산재사망 사건에 대응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제정하였으나, 여전히 산재사망 사건의 수는 줄지 않는 상황임.

- 정부는 산재사망자 수를 2021년 705명, 2022년까지 505명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으나, 2021년 11월 현재 이미 올해 목표를 초과하는 790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하면서(원승일, 2021.12.15.) 여전히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였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얼마나 어떠한 요인들이 이러한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임.

□ 변화하는 노동환경

○ 많은 일자리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디지털 일자리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화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음(ILO, 2020).

-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e커머스나 재택근무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이 급격하게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필요로 함.
- “디지털 뉴딜”과 같은 정부 정책에서도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 등, 디지털 기반의 훈련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을 도입한 바 있음.
- 실제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의 확대로 통계학이나 수학 등 자연과학 전공자들의 고용 수요가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냄(권현지, 함선유, 2021).

○ 환경오염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와 규제 강화라는 맥락에서 향후 산업별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유럽연합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린 뉴딜을 국정 아젠다로 잡고 대규모 재정투자와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철강이나 알류미늄 등 특정 부문의 기업들은 수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정은미, 2021), 이는 관련 부문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 하에서 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등 새로운 일자리가 24만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음(이근영, 2021.4.13.)

나. 청년 노동 영역 조사 내용의 초점

□ **새로운 일의 형태와 양식**

○ 비전형적인 고용관계를 포착하고자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진 바 있으나,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고용형태를 포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일부 선행조사(예: 청년패널)은 고용형태 문항을 기간제,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택/가내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등 9개 범주로 고용형태를 묻고 있음.
- 이처럼 **범주 수를 늘리는 방식은 새로운 비전형 고용형태가 등장할 경우 이를 또다시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각 범주가 완벽하게 배타적이지 않음(예: 시간제 근로-파견근로).**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주를 새롭게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자영업 여부, 계약기간, 임금산정방식, 급여지급처(파견,용역), 구직경로(플랫폼 노동 등) 등의 문항을 통하여 고용형태를 판별하고자 함.**

- 대부분의 문항을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고용형태를 포함한 자영업자

도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함.

□ **노동의 불안정성과 자율성**

○ 고용형태의 불안정성 이외에 노동시장 내 발생하는 불안정성 수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하는 시간과 소득, 소득지급 주기, 하는 일의 내용이 규칙적(안정적)인지, 얼마나 잦은 주기로 변동하는지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함.

- 유연한 근로시간과 소득이 자발적 선택인지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함.

○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의 관점에서 일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자율성과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함.

- 일하는 시간과 장소, 일의 양과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얼마나 주도권을 갖는지를 측정하고, 일자리에서 유연근무제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 **위험한 노동환경과 근로기준법**

○ 청년들의 근로환경의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나 안정 및 보호장비 미비를 비롯하여, 과중한 업무량이나 성과, 만족도(별점 등)에 따른 압박, 소진, 감정 노동, 그리고 괴롭힘 경험을 확인하고자 함.

- 연장, 야간, 주말 근로, 적절한 휴식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점검코자 함.

□ **변화하는 노동환경**

○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코딩과 데이터 분석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디지털 숙련의 필요와 현황을 가늠해보고자 함.

○ 환경오염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와 규제 강화라는 맥락에서 현재 청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 본 문항을 통하여 실제 산업별 환경오염 수준과 청년층이 인식하고 있는 일

자리의 환경오염 수준을 비교검토 가능함.

〈표 4-9〉 청년 노동 영역의 조사 내용의 초점

구분	내용
새로운 일의 형태와 양식	-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하기 위하여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방식이 아닌 복수의 문항을 통하여 근로형태를 가늠할 수 있도록 구성 - 가능한 비임금 근로자와 임금 근로자 모두 응답할 수 있는 형태로 설문지 구성
노동의 불안정성과 자율성	- 노동의 불안정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노동시간이나 급여의 규칙성과 단속성 등에 관한 문항 구성 - 일의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노동시간과 업무 내용, 작업 방식의 자율성 및 선택권한에 대한 문항 구성
위험한 노동환경과 근로기준법	-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노동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 - 주요한 근로기준법의 시행 여부에 대한 검토
변화하는 노동환경	- 디지털 기술이 실제로 일자리에서 얼마나 사용되는 지에 대한 검토 - 환경오염 및 환경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한 인식 검토

다. 청년 노동 영역 조사 내용의 개발

1) 기존 조사 검토

①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항목 중 “경제와 고용” 부문에 포함된 항목에서 고용과 관련한 항목은 아래 표 3-2와 같음.

□ 문항은 크게 경제활동참여 상태, 일자리의 특성과 희망하는 일자리, 구직 경험과 이전 직장의 특성, 정책 인식 및 활용에 관한 문항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고용상태와 일자리 특성, 구직경험과 이직 의향, 희망하는 일자리에 관한 항목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는 만큼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도 대체로 승계하여 포함하였음.

○ 다만, 노동영역에서는 일자리의 질이나 노동환경 등 인식이 아닌 실태를 중심

으로 청년의 삶을 다루고자 한 만큼, 조사 문항 중 주요 정책의 인식 및 활용에 관한 부분은 정책 인식 파트에 포괄하고, 노동영역에서 제외함.

□ 일자리의 실태를 나타내는 문항의 경우 대체로 승계하였으나 일부 문항은 여타 영역에서 반영되어 노동영역에서는 제외하거나, 보다 보편성이 있으며 국제 비교 가능성이 높은 문항 등으로 수정하여 포함하였음.

○ 니트(NEET)청년에 관한 문항(문44)는 참여 항목에서 소속에 대한 문항으로 대체하였음.

○ 항목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와 가장 주된 이유(문43, 문43-1)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복수 문항으로 묻고 있으나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문항으로 대체하였음.

○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문48)의 경우보다 청년패널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임금, 고용 안정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만족도로 대체하였음.

○ 이전 직장 채용의 공정성(문60)과 해고 여부(문61), 실직의 자발성(61-3) 등에 대하여 복수로 응답하고 있으나, 이전 취업 경험 중 해당 경험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묻는 일을 그만둔 사유에 포괄되는 항목임. 이에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에 한정하여 청년패널조사의 문항으로 대체하였음.

○ 직장 내 업무에 대한 영향력 항목(문68)의 경우 여타 공식 지표나 국제자료와의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문항을 변경하여 포함하였음.

〈표 4-10〉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2020년 조사항목과 노동 영역 반영 사항

대분류	조사내용	문항번호	포함여부	분류
경제와 고용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문31	△	희망하는 일자리
	2021년 적정 최저 임금	문32	×	정책 인식 및 활용
	중소기업 취업 의향	문37	×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문37-1	×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문38	×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분야	문39	×	

대분류	조사내용	문항번호	포함여부	분류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문39-1	×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문39-2	×	
	중소기업 일자리 선호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점	문39-3	×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문40	○	경제활동참여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문41	○	구직 경험
	지난 주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	문42	○	
	항목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해당 여부	문43	×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주된 이유	문43-1	×	
	학업,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 지속 기간	문44	×	
	구직활동을 한 기간	문45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문46	○	일자리 특성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문47(1)	○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	문47(2)	○	희망하는 일자리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문47(3)	○	일자리 특성
	지난 주 더 많은 일 및 시간을 할 수 있는 직장 내에서 업무 가능 여부	문47-3-1	○	
	지난 4주 내 현재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경험 여부	문47-3-2	○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문47(4)	○	희망하는 일자리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문48	△	일자리 특성
	이직 의향	문49	○	이직 의향
	이직 희망 사유	문49-1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문50	×	정책 인식 및 활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작)년도	문50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인지 및 참여 의향	문51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구직활동에 도움을 준 정도	문52	×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경험 여부	문53	×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시작)년도	문53	×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인지 및 참여 의향	문54	×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가 안정적 직장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	문55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경험 여부	문56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인지 및 참여 의향	문57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가 구직활동에 도움을 준 정도	문58	×	
	이전 취업 경험	문59	○	이전 직장 특성
	이전 직장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60	×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문61	×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 둔 시기	문61-1	○	
	가장 최근 그만 둔 일은 몇 번째 일자리인지 여부	문61-2	×	

대분류	조사내용	문항번호	포함여부	분류
	가장 최근 그만둔 일은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것인지 여부	문61-3	×	
	(가장 최근 그만둔 일 기준) 그만 둔 이유	문61-4	○	
	(가장 최근 그만둔 일 기준) 그만 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문61-5	○	
	실업급여 인지 여부	문62	○	정책 인식 및 활용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63	○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문63-1	○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안전 관련 경험	문64	○	일자리 특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 및 대응 절차 유무	문65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고충처리 담당자 또는 담당 창구 유무	문66	○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의 작동 여부	문67	○	
	직장 내 업무 관련 결정에 참여 또는 영향력 행사 여부	문68	×	
	직장 내 노사협의, 업무제안, 조직적응 제도 유무	문69	×	

자료: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2020), “부록: 2020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pp580-583)을 토대로 저자가 수정 및 재작성

② 한국노동패널조사

□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 노동시장과 관련한 심도 있는 분석을 목적으로 함. 최근 노동시장 내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노동 분야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다변화된 고용형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노동패널의 도급제 여부, 파견 및 용역 여부, 임금의 지급 주기와 임금 산정방식 등의 문항을 검토하고 이를 조사표에 반영하였음.

○ 더불어 일자리에서 사회보험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을 검토하고 조사표에 반영하였음.

□ 일자리의 규칙성과 노동조합 가입 여부, 일을 하는 장소, 일자리의 자발성에 관한 문항은 한국노동패널의 문항을 참고하되 일부 수정하여 조사표에 반영함.

○ 한국노동패널에서는 현재 노동시간의 규칙성과 어떠한 주기로 변경되는지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의 변동이 노동시간 이외에도 소득이나 하는 일 등의 변동성이 더 잦은 주기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문항으로 구성함.

○ 일을 하는 장소와 관련하여 재택 및 가내 근로와 관련하여 가정에서 또는 사업장 내 또는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으나, 배달 노동자 등은 길에서 근무하는 등 보다 다양한 근로 장소를 포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 반영함.

③ 근로환경조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는 근로환경 중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3년에 한번 주기로 실시됨. 특히 유럽 근로환경조사 자료와 비교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일자리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에 대하여 가까운 미래에 실직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몇 세까지 할 수 있을지, 실직을 하더라도 비슷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한 문항을 포함함.

□ 근로환경 중에서 육체적, 감정적 위험 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환경에서 피로도가 높은 자세, 감정적인 노동의 수준, 성희롱 및 폭력 경험 등에 관한 문항을 참고하여 포함함.

□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에서 얼마나 자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관한 문항을 검토하였음.

○ 근무시간 조정권한에 대하여 ① 근무시간은 회사에서 결정하여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사가 정해 놓은 근무 일정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③ 몇 가지 제한사항을 지키면 근무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예: 유연근무제 ④ 전적으로 내가 근무시간을 결정한다 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 이러한 근무시간 문항을 참고하여 장소, 양, 순서, 내용 등에 대해서도 자율성

을 묻는 문항 추가함.

□ 근로 장소에 대하여 집, 실외,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 일한 경험에 관한 문항등을 검토하고 일하는 장소에 관한 한국노동패널의 근로장소에 관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함.

□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밤샘 근무 여부, 야근, 주말 근로일수 등과 관련한 문항을 참고하되,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수정하여 본 조사표에 포함함.

④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통계로, 주요 고용 관련 지표를 산출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본적인 통계지표 산출에 활용되는 문항을 포괄하였음.

○ 낙담실업자나, 시간관련 추가 취업자 판별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의 평소활동상태 등을 포함하였음.

○ 비자발적인 취업 상태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직 사유 및 이전 직장 특성 등을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반영하였음.

⑤ 청년패널조사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청년층의 일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평과, 이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참고하였음.

□ 현 직장에 대한 전반적, 하고 있는 일의 내용, 자기발전의 추구, 임금과 수입, 업무 시간, 고용안정성 등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 항목을 청년삶 실태조사에 반영하였음.

○ 이에 더해 본인의 교육 수준, 기술 수준, 전공에 대비하여 현재 일자리의 업무 수준 평가와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음.

□ 비정규직으로 일한 사유에 관한 문항을 활용하여 비정규직에 한정하지 않고 현 일자리 선택의 자발성과 비자발적이나 이를 선택한 이유 문항으로 포함하였음.

⑥ 서울청년패널조사

□ 서울청년패널조사 자료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일 경험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음.

○ 이 때 아르바이트는 인턴이나 현장학습과 달리 아르바이트는 일경험으로 포괄하기 어려워 이 항목을 제외하고 본 조사에 포함하였음.

⑦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문항에 포함되었던 복수일자리의 수와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항을 검토 후 본 조사 문항에 포함하였음.

⑧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플랫폼 노동의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문항을 포함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⑨ 사회조사

□ 일자리의 불안정성 문항과 일-생활의 양립에 관한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문항을 포함함.

⑩ OECD PIAAC

□ 일자리에서 활용되는 숙련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OECD에서 조사하는 국제성인역량 조사를 활용하여 특정한 기술이 업무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파악하는 문항을 검토하여 본 조사에 포함하였음.

〈표 4-11〉 노동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조사명	년도	조사항목	검토 사항
한국노동패널조사	2020	구직 경로	구직에 성공한 방법
		사회보험	이 일자리를 통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고용형태	도급제 여부, 파견 및 용역 여부
		임금지급방식	임금지급 주기, 임금산정방식
		일자리의 규칙성	일자리 규칙성 여부, 근무시간의 변동 주기
		노동조합	노조가입여부
		일을 하는 장소	재택 및 가내 근로
		현 일자리의 자발성	자발적 사유 여부, 자발적이라고 응답한 사유
근로환경조사	2017	근무조건의 변동	주당근로시간, 소득/수입, 업무에 대한 재량권, 과업과 임무 등의 증가 또는 감소
		근로환경	근로환경 중 피로도가 높은 자세, 감정적 노동의 수준, 성희롱 및 폭력 경험 등 파악
		일을 하는 장소	집, 실외,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 일한 경험
		근로시간	밤샘근무, 야근, 주말 근로 일수
		일자리의 안정성	가까운 미래에 실직 가능성 및 지금 하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실직을 하더라도 비슷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
		권한 및 자율성	근무시간 조정의 권한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	경제활동상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 산업, 직업, 사업장 규모, 시간제 일자리, 평균 소득, 구직경험,
		시간제 일자리	근로시간, 시간관련 추가 취업자 판별 문항
		비경제활동인구	평소활동상태
		이전직장	이직사유 및 이전 직장 특성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유	낙담 실업자 등 판별 가능
청년패널조사	2020	복수일자리	복수일자리 수
		이직 사유	이직 사유
		주관적 평가	현직장의 상세 만족도 측정
		이직 조건	이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희망하는 일자리	직업, 산업, 임금 수준 등
		비정규직 선택 사유	비정규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이유

조사명	년도	조사항목	검토 사항
서울청년패널조사	2020	현재 활동상태	일 경험 여부(인턴, 현장실습, 아르바이트 등)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2020	복수일자리	복수일자리 수
		주휴수당	주휴수당 적용 여부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2020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 대상 확인 질문
사회조사	2021	일-가정생활	일과 가정생활 중 우선시 하는 것
		직업을 잃는 불안	직장을 잃는다는 불안 경험
PIAAC	2017	업무에서 사용하는 기술	읽기, 쓰기, IT 기기 활용, 코딩, 복잡한 문제 해결 등 업무에서 활용되는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

2) 신규 문항 개발

□ 복수일자리

○ 복수일자리가 몇 개인지에 관하여 청년패널조사,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등에서 묻고 있으나, 이들 중 어떠한 일자리가 주된 일자리인지는 묻지 않음.

○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경우 복수 일자리 중 (1) 4대보험 가입 일자리 최우선, 4대 보험 미가입 시 (2) 근로시간이 길수록 (3)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주된일자리로 판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응답자에 따라서 주된일자리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묻는 별도의 문항을 개발함.

□ 일자리의 안정성

○ 일자리 내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의 변동성이 얼마나 잦은 주기로 찾아오는지에 관한 문항을 신규 문항으로 포함함.

- 특히 매일 직무의 내용이 변동하는 등 일자리의 불규칙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이에 한국노동패널에서 일하는 시간의 규칙성과 변경 주기 문항을 참고하

여 일하는 시간을 비롯한, 일의 내용, 급여의 변동 주기를 확인하고자 하였음.

○ 더불어 일의 단속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12개월 이내에 원하지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일을 쉰 경험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항을 포함하였음.

□ 일의 미래

○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인식하는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가까운 미래에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표 4-12〉 노동 영역의 신규 문항 개발

개념			문항	척도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제 활동	복수 일자리	복수일자리 중 주된 일자리로 생각하는 사유	여러 개의 직장(일자리)를 갖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① 하나의 일자리로는 소득이 충분치 못해서 ②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③ 자아 실현을 위하여 ④ 실직을 대비하여 ⑤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⑥ 취미 활동을 위해서 ⑦ 사회봉사 ⑧ 기타( )	-	
주된 일자리 특성	일자리의 안정성	일하는 시간의 길이	현재 일자리에서 아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① 내일 ② 다음 주 ③ 다음 달 ④ 올해 ⑤ 먼 미래(최소1년 이상)까지 유지	5점	
		일하는 시간대			
		소득			
		하는 일			
		단속성	지난 12개월 동안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적이 있습니까?		
	일의 미래	기술 변화	내가 하는 일은 가까운 미래에 기술변화로 사라지게 될 일이다.	5점	
		환경 오염	내가 하는 일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다	5점	

□ 신규 문항 활용 방안

○ 복수일자리

- 복수일자리 중 어떠한 일자리가 본인의 주된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실제 일자리의 객관적인 특성과 청년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한 특성을 비교 검토 가능함.

○ 일자리의 안정성

- 일자리의 안정성을 파악하고 불안정한 특성을 가진 일자리의 특성 및 개인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이러한 불안정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 일의 미래

- 실제 변화가 예측되는 산업군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청년의 환경변화에 관한 인식 수준을 검토할 수 있음.

3) 청년 노동 영역 조사항목 구성(안)

〈표 4-13〉 노동 영역 조사표 구성(안)

개념			조사목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제활동상태	지난 주 경제활동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한 일 여부	경제활동 특성 파악
		가족무급종사자 판별	
		일시휴직자 판별	
		일시휴직 사유	
	복수일자리	복수일자리 여부	이른바 'N잡' 실태 파악, 전통적 일자리 관념 변화 진단
		복수일자리 수	
		복수일자리 선택 이유	
		복수일자리 근로일수, 근로시간, 소득, 직업	
		복수일자리 중 주된 일자리	
		복수일자리 중 주된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이유	
		복수일자리를 가진 이유	
주된 일자리 특성	고용형태	자영업 여부	다변화되는 고용형태 포착과 진단
		근로계약작성 및 기간	
		임금산정방식	
		파견 및 용역 구분	
		일 경험	
	일자리 기본	산업, 직업	청년 일자리의 직업과

개념			조사목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보	사업장 규모	산업 구조, 재직기간 동향 파악
		직업	
		일 시작 시기	
	구직경로	고용센터 포함 구직 경로	플랫폼 노동 구분, 규모 파악
		플랫폼 노동 구분	
	시간제	시간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와 불완전 고용 실태 파악
		시간 관련 추가 일자리 원하는지	
		시간 관련 추가 일자리 취업 가능 여부	
		시간관련 추가 일자리 구직 여부	
	근로기준법 적용	야간,연장,휴식, 휴일 관련 근로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적용	청년 일자리의 근로기준법 준수 실태 파악
		초장시간 근로	
		서면 근로계약 작성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근로시간 실태 파악 및 시간당 임금 계산에 활용
		주당 근로시간	
	근로소득	3개월 평균 소득	소득 수준 파악
		주휴수당 적용	
	노동조합	노동조합이나 산별노조, 유니온 가입	노조 활동 실태 파악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전반적 만족도	현재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파악, 현 일자리 불만족 결정 요인 검토 및 동향 분석
		하고 있는 일의 내용	
		사회적 공헌, 봉사 및 사회적 인정	
		자기발전의 추구	
		임금과 수입	
		업무시간(길이)	
		고용의 안정성	
		일의 자율성과 권한	
		장래가 유망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직장	
		사무실(작업장)의 물리적 근로환경	
		직장동료(상사포함)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사회적 근로환경)	
		일과 삶의 양립	
	숙련 기술	읽기 (작업지시서나 설명서, 이메일, 문서, 관련 잡지, 서적 등)	청년의 현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숙련 수준과 교육 수준의 일치 수준 파악, 청년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숙련 난이도 수준의 동향 검토
		문서 작성 (메모, 이메일이나 업무 보고서 등 문서를 작성)	
		계산 (가격, 비용, 예산, 비율 등)	
		수학이나 통계 사용(방정식, 수학공식을 사용하거나, 미적분, 삼각함수, 회귀분석 등)	
		컴퓨터 사용 (PDA기기 포함)	

개념			조사목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터넷 사용 (이메일, 자료 검색, 구매, 판매, 은행 업무 등)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 사용(엑셀 등)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사용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 및 편집	
		타인을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활동	
		회사(조직) 내부나 외부 사람들과 협상	
		해결책을 찾는 데 5분 이하 시간이 걸렸던 비교적 단순한 문제 직면	
		해결책을 찾는 데 30분 이상이 걸리는 비교적 복잡한 문제 직면	
	업무 수준 평가	교육수준 대비 업무 내용	교육과 일자리의 숙련 일치 수준 파악
		기술(기능)수준 대비 업무 내용	
		전공 대비 업무 내용	
	일자리의 자율성	일하는 시간	일자리 자원 수준의 한 형태인 자율성 정도 파악, 자율성 세부 지표별 동향 검토
		일하는 장소	
		일의 양	
		일하는 순서	
		일의 내용	
	일과 삶의 균형	유연근무제 실시	청년의 일-삶 균형 가중치 파악 및 영역별 세부 동향 검토
		유연근무제 이용 여부	
		유연근무제 사용하지 않는 이유	
		근로 장소	
		일-생활 중 우선시 하는 것	
	일자리 관련 혜택	국민연금 가입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장 적용 수준 검토
		특수직역연금 가입	
		국민건강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	
		산재보험 가입	
	일자리의 안정성	일하는 시간의 길이 지속성	일자리 자원 수준의 한 형태인 안정성 정도 파악, 안정성 세부 지표별 동향 검토
		일하는 시간대 지속성	
		소득 지속성	
		하는 일 지속성	
		나는 향후 6개월 안에 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현재의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나는 비슷한 임금을 주는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의 미래	내가 하는 일은 가까운 미래에 기술변화로 사라지게 될 일이다.	청년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 수준 파악, 불안 수준에 따른 정신 건강 및 주관적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검토
		내가 하는 일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다.	
		귀하는 가까운 미래에 직장(직업)을 잃거나 직장(직업)을 바꾸어야 한다는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지난 12개월 동안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몇 세까지 지금 하는 일이나 유사한 일을 할	

개념			조사목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직 의향	일자리 선택의 자발성	현재 일자리 선택 배경	현 일자리 선택의 자발성 파악 및 이직 동향 파악
		일자리를 선호하는 이유	
	이직 의향	이직 의향	
		이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구직	구직활동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구직 활동 세부 내역 파악, 미취업자 중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구분
		지난 주 일 가능 여부	
		구직 기간	
		지난 주 직장(일)을 원하였는 지 여부	
		지난 주 일 시작 가능 여부	
		취업을 원하면서 구직하지 않는 이유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희망하는 소득수준	청년 일자리 수요 공급의 불일치 수준 파악
		희망하는 근로시간	
		희망하는 산업	
		희망하는 직업	
미취업자	활동상태	지난 주 활동상태	비경제활동인구의 평소활동 상태 판별 및 NEET 규모 파악
	이전 취업 경험	이전 취업 경험 여부	취업 경험 및 비자발적인 실업 여부 판별
		최근 일자리를 그만 둔 시기	
		최근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 근로시간, 산업, 직업	
		일을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실업급여 인식	실업자의 사회적 안정망 적용 수준 파악
		실업급여 수급 여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	
근로 환경 경험	위험한 근로 환경	업무상 상해 경험	위험한 근로 환경에 놓인 청년층의 규모와 위험한 근로환경의 종류 및 특성 파악
		산재경험	
		과중한 업무량 경험	
		혼자서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 경험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	
		성과와 만족도(별점 등)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	
		일에 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음	
		감정을 숨기고 고객이나 환자, 학생 응대	
		안전, 보호 장비 미비	
		신체적 폭력 경험	
		성희롱 경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청년층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및 이의 해결과 대처 방안 파악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 절차 유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상담하거나 고충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담당자 또는 담당 창구 유무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여부	

4. 주거

가. 주요 현안, 이슈 검토, 문헌 고찰

□ 주거 문제는 '청년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최근 성인기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주거안정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청년은 타 연령세대와 구분된 주거정책 대상자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함.

- 「주거복지로드맵」(2017년),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등 주거복지 관련 주요 정책계획 및 「제1차 청년기본계획」에서 청년 대상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이 비중있게 제시됨.

□ '지옥고'로 대표되는 열악한 주거실태에 대한 대책이 주요 현안이나, 최근에는 '영끌' 로 대표되는 '내 집 마련'이 부각되는 등, 시기별로 다양한 주제들이 이슈화되고 있음.

○ 특히 연령대의 공통성이 아닌 연령 내 경제적 이질성에 대한 관심도 촉구되고 있음.

- 부모로부터 주택이나 재산을 물려받거나 목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소수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의 자산 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주거정책 내 대상자 설정 문제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성인으로의 이행기의 연장 및 생애주기 변화로 인해 청년의 분가 상황 및 생애 이벤트 간 관계가 흔들리고 있음.

○ 표준화되었다고 여겨졌던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 이벤트 중심의 생애주기와 '분가' '월세'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이행 간 결합 정도가 낮아짐에 따라, 주거와 관련된 표준적 모델이 점차 약화됨.

- 가족 구성 및 자가 지향의 '주거사다리'의 강화가 촉구되는 한편, 1인가구 증가와 함께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주거지원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활발

하여 기존 주거정책의 방향성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청년의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는 조사내용 및 대상에 따라 **①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청년을 분석 ② 청년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주거를 분석 ③ 고유한 주제로서의 청년 주거실태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①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년 주거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적 조사로는 **『주거실태조사』(국토연구원, 2012~)**가 대표적임.

-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전국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2020년 5.4만가구)되며, 청년 가구 실태 파악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라 할 수 있음
  - 청년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2020년)인 가구로 '특성가구별 주거실태'를 통해 분석되고 있으며, 조사문항은 가구특성 및 경제력, 주거 및 주거환경, 주거비 부담 및 주택마련, 주거이동 등으로 구성됨.
  - 1인 가구 비율과 주거이동률이 타 가구유형에 비해 높으며, 주거비는 큰 차이가 없으나 최저수준미달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전세대출이 1순위로 나타남.

○ **② 청년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주거를 분석**하는 경우로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2020)**및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서울 청년 패널조사』(서울연구원, 2020)**등을 들 수 있음.

-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는 전국 만 18세~34세를 대상(2020년)으로 총 3,500표본에 대해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로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20년 조사에서는 주거와 관련한 문항으로 주거현황 및 주거여건 등에 대한 15개 질문을 구성하였고, 추가적으로 주거의식과 관련한 심층면담 조사도 실시하였음.

- 주거의 구체적 실태보다는 주거와 관련된 인식 문항이 대다수를 이루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타연령대와의 비교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음.

-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는 전국 만19세~34세 이하를 모집단으로 3,018명 대상으로 경제적 독립여부 및 동거 가구에 따라 가구 유형으로 10개로 구분하여 5개 영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주거와 관련된 '가구형태 및 주거환경' 영역은 총 20개 문항으로 주로 주거실태조사 항목과 비주택 거주민 주거실태조사 항목을 활용하였으며, 조사 결과 1인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이 나타나 1인가구 주거비 부담 경감 정책을 제안함.
- **『서울 청년 패널조사』(2020~)**는 서울시 거주 만18~34세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추적조사 예정임.
  -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경제, 삶의 여건과 인식, 정책 경험과 평가, 코로나19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패널조사로 실시함.
- 이 외 서울시의 『서울 청년실태조사 보고서』[2], 부산시의 『부산청년종합실태조사'』[3] , 세종시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4] 등 지자체의 청년 실태조사에서도 주거 조사가 포함되어 진행됨.

○ **③ 고유한 주제로서의 청년 주거실태조사**는 지자체 내로 지역을 한정한 조사로 실시되었음.

- 충북(2018년)[5], 광주(2021년)[6], 수원(2021년)[7], 서울 광진구 화양동[8] 등 지자체에서 청년주거실태 및 주거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 외 박은선 외(2018)[9]는 50대 세대와 청년 세대의 주거의식 및 요구를

---

2) 서울특별시(2020). 서울 청년실태조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3) 김종욱, 김형균, 김도관, 박경옥, 박진명, 정엄지, 김두환, 강민주, 오재환, (2018). 부산청년종합실태조사. 부산발전연구원.
4) 세종특별자치시(2019).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세종특별자치시. 충청지방통계청.
5) 채성주, 김덕준, 최은희(2018). 충북지역 청년주거실태와 정책 수요조사 연구. 충북연구원.
6) 임형문(2021). '광주청년 주거실태조사'와 광주형 청년주거정책. 광주광역시, 광주청년센터.
7) 수원시(2021.9.6.) 수원시, 청년주거정책 마련 위한 설문조사(보도자료).
8) 서울특별시 광진주거복지센터·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2021). 광진구 화양동 청년주거 실태조사.
9) 박은선, 노현선, 김수경(2018). 50+세대와 청년세대의 주거의식 및 요구 비교.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비교하였음.

나. 주거 영역 조사 내용의 초점

□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주거영역 조사는,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 생애 이벤트 및 부모동거 여부 등 청년이 처해 있는 다양한 조건을 기반으로 주거실태 및 주거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실태를 다차원적으로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거실태조사』에서 드러나지 못했던 부모동거 청년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구주 중심의 실태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의 다양한 주거실태 조건들을 포괄하고자 함.

○ 주거면적이나 주거환경 등 그간의 청년 주거관련 실태조사와 비교할 수 있도록 공통문항을 고려하면서도, 주거인식 및 정책이용 및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향후 정책 수요 및 개선방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표 4-14〉 청년 주거 영역의 조사 내용의 초점

구분	내용
청년 가구의 다양성	청년 가구주 뿐 아니라 부모동거 청년 등 다양한 청년 가구 포괄 - 부모와의 동거여부 및 이유, 향후 계획 등
주거 현황 파악	부모 동거 시 독립된 방 여부 등 청년 상황에 따른 주거 현황 파악 - 주거 면적, 주택 유형, 주택 위치, 내부 시설 등
주거위기 청년 파악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열악한 주거 상태 및 퇴거 위기 등 주거위기상황 경험 실태를 통하여 청년 내 주거위기계층 규모 및 특징 파악
주거 인식 및 주거 내 생활	주거의미, 향후 독립의향, 주거소유 필요성 등 주거인식 파악 - 향후 청년 주거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
주거정책 평가 근거	주요 청년 주거정책 인지, 신청, 이용 여부 파악 - 주요 청년 정책 수요 및 개선방안 도출 근거 마련

다. 청년 주거 영역 조사 내용의 개발

1) 기존 조사 검토

□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년 주거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① 주거실태조사

○ 주거실태조사는 6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조사되며 주택 상태에 대한 상세한 항목을 참고할 수 있음.

○ 다만, 가구주 중심의 조사로 가구원인 청년의 실태파악이 어렵고, 청년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인구사회적 항목이 적으며, 청년 주거 욕구 및 의식 파악을 위한 항목이 보충될 필요가 있음.

□ **청년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주거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②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주거 관련 문항은 2017년~2019년까지 동일하게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16개 문항으로 증가하였으며, 주로 주거에 대한 의식이나 관점 등에 대한 문항이 참고가 될 수 있음.

○ 다만, 본 조사는 주거 자체에 대한 문항은 많지 않아 보충될 필요가 있음.

③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주거관련 문항은 가구형태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20개이며, 주거실태 및 의식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며, 가구형태와 주거를 연동하여 파악할 수 있는 문항 구성이 참고가 될 수 있음.

○ 다만, 주거정책에 대한 인식이나 이용경험 질문은 추가될 필요가 있음.

④ 서울 청년 패널조사

○ 주거 관련 항목은 주거점유, 주거비용, 주거인식 등으로 구분되며 총 15개 질문항목으로, 비교적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어 질문 구성에 참고가 될 수 있음.

○ 부모 동거 및 가족 구성과 관련된 정보를 주거와는 다른 부분에서 다루는데, 응답 수월성 및 분석 용이성, 문항의 논리적 전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고유한 주제로서의 청년 주거실태조사

⑤ 광진구 화양동 청년주거 실태조사

○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응답자 정보까지 총 3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이 직관적이고 알기 쉽게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의 주거경험이 반영된 문항은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동거가구가 있는 청년에 해당하는 문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표 4-15〉 주거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조사명	년도	조사항목	검토 사항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017/ 2018/ 2019/ 2020 공통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시기	향후 주거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근거를 위해 필요한 항목
		집에 대한 의식 (자가, 집값 수준, 부모님 도움 유무에 따른 내 집마련)	향후 주거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근거를 위해 필요한 항목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주거실태 분석을 위해 필요한 항목
		미혼 1인 거주 여부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주거실태 분석을 위해 필요한 항목
		주택 유형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2020	점유 형태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거비용 마련 주체	주거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	향후 주거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근거를 위해 필요한 항목
주거실태조사	2020 기준	주택 유형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택 위치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점유 형태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택 가격 (자가)	주거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거비 (임차)	주거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택 구조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택 면적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조사명	년도	조사항목	검토 사항
		주택 내부시설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현재주택 상태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이용현황, 만족도	주거정책 이용실태 및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항목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주거정책 이용실태 및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항목
		가구 소득	청년 개인소득과 구분하여 파악 필요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2020	주택 유형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택 위치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점유 형태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택 가격 (자가)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택 면적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거비 부담감	주거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택 내부시설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
		현재주택 상태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
		주거비 (임차) 출처	주거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혼자 살게 된 시기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주거실태 분석을 위해 필요한 항목
		혼자 살게 된 이유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주거실태 분석을 위해 필요한 항목
서울 청년 패널조사	2020	주택 유형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방 개수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택 면적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점유 형태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택 가격 (자가)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거비 (임차)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택 내부시설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현재주택 상태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거불안 상황 경험	주거빈곤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집의 의미	주거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광진구 화양동 청년주거 실태조사	2021	주택 유형	
		주거 기간	주거 생활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 독립한기간, 현재 집 기간, 기숙사 등 기간, 공공임대 거주한 기간, 이사횟수
		주택 내부시설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택 면적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집에 머무르는 시간	주거 생활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점유 형태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거비 (임차)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택 내부시설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현재주택 상태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거비 부담 (주관적)	주거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현황	주거정책 이용실태 및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항목

2) 신규 문항 개발

□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주거실태가 달라지는 점을 포착하기 위한 문항 설계가 필요함.

○ 대부분 조사에서 주거 실태를 파악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주거실태조사』와 동일하나, 『주거실태조사』는 가구주 중심의 조사여서 가구원인 청년 실태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음.

□ 주거의 의미나 인식에 대한 추가적 질문이 필요함.

○ 청년이 인식하는 주거 의미는 향후 주거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기존 조사의 문항을 재검토하여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거정책에 대한 인지, 이용, 만족과 관련한 추가적 질문이 필요함.

○ 일부 조사에서 주거정책에 대한 청년의 인식 및 이용도 등을 물어보고 있으며, 이를 참조하면서 최근의 주거정책 내용을 반영한 질문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

〈표 4-16〉 주거 영역의 신규 문항 개발

개념			문항	척도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가구의 독립 계획	(동거) 분가 경험 여부	예전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	-
		(동거) 다시 부모 동거 이유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동거) 독립할 구체적 계획	현재 부모로부터 독립하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	-
		(동거·독립계획유) 독립할 이유	독립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동거·독립계획유) 독립가능시기	언제쯤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동거·독립계획무) 계획없는 이유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개념			문항	척도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부모 비동거 가구의 독립 현황	(비동거) 비동거 이유 (비동거) 현재 거주 주택 선택 이유	현재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주거 정책과 열악한 주거 경험	주거정책 인지 및 이용 여부	정책 인지 여부	다음은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정책입니다. 알고 계신지, 신청해 보신적은 있는 지, 정책 이용 경험은 있은 지 응답해주십시오.	-	주거실태조사, 광진구 화양동 청년주거 실태조사 일부 수정
		정책 신청 여부		-	
		정책 수혜 여부		-	
	필요한 주거 정책	필요한 주거 정책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은 무엇입니까?	-	주거실태조사 일부 수정
	주거불안 경험	주거불안 경험	귀하는 현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아래와 같은 주거불안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서울 청년 패널조사 일부 수정
	열악한 거처 거주 경험	열악한 거처 거주 경험	귀하는 현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아래와 같은 거처 유형에서 1달 이상 거주한 적이 있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주거 인식	적절한 독립 시기	물리적 독립	부모로부터의 주거 독립은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거주하는 것	-	-
		실질적 경제 독립	부모로부터의 주거 독립은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거비 부담 등 실질적 경제적 독립	-	-

□ 신규 문항 활용 방안

○ 부모동거여부 및 관련 주거실태 대한 분석

- 청년 주거문제의 핵심인 '이행'의 실태 파악 및 청년의 자립 혹은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정책 시사점 도출.
- 부모동거 여부에 대한 주거실태 차이점 분석을 통하여 자립 혹은 독립하지 않는 청년도 포함한 주거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모색.

○ 주거정책 인식 및 활용과 열악한 주거 경험

-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열악한 주거 상태 및 퇴거 위기 등 주거위기상황 경험실태를 통하여 청년 내 주거위기계층 규모 및 특징 파악.

- 청년 대상 주거정책에 대한 인지, 활용여부를 통하여 정책의 접근성, 효과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

3) 청년 주거 영역 조사항목 구성(안)

〈표 4-17〉 주거 영역 조사표 구성(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조사목적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여부	부모동거 여부		주거, 가족 이행 전망과 인식 파악
	부모 동거 가구의 독립 계획	(동거) 분가 경험 여부		
		(동거) 다시 부모동거 이유		
		(동거) 독립할 구체적 계획		
		(동거·독립계획유) 독립할 이유		
		(동거·독립계획유) 독립가능시기		
		(동거·독립계획무) 계획없는 이유		
	부모 비동거 가구의 독립 현황	(비동거) 비동거 이유		
		(비동거) 주거이력		
		(비동거) 현재 거주 주택 선택 이유		
주거비	주거비	(자가) 주택 가격		주거비 부담 주체 및 부담 정도 파악
		(임차) 보증금 및 월세		
		주택 관련 부채 및 관련 이자. 그 외 주거 관리비		
		임차료 및 대출금 본인 지불 여부		
		임차료 및 대출금에 대한 부담 정도		
주거일반 사항	점유 형태	점유형태		주거점유의 안정성 파악
	주택 유형	주택 유형		주거 일반사항으로서 주택유형 파악
	주택 위치	주택 위치		지하, 옥탑 등 취약 여부 파악
	방 개수	방		주거생활 환경 실태 및 사생활 보호 가능정도 파악
		거실		
		식당		
	전용 면적	본인이 사용하는 방 면적		주거생활 환경 실태 및 사생활 보호 가능정도 파악
		집 전체 면적		
주거환경	주택 내부 시설 사용 형태	부엌	화장실	주택 내부시설 실태 파악을 통한 주거생활환경 양호도 파악
		샤워시설	세면시설	
		욕조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출입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조사목적
	주택 상태	구조물	방수 상태	주택상태 실태파악을 통한 주거생활환경 양호도 파악
		난방 및 단열 상태	환기 상태	
		채광 사태	내외부 소음	
		재난 재해 안전성	화재 안전성	
		주택 방범상태	주택 위생 상태	
	주택 환경	생활 인프라	대중교통 이용	주택환경 실태 파악을 통한 주거생활환경 양호도 파악
		치안	위생 환경	
		녹지 공간	문화/부대시설	
주거 정책과 열악한 주거경험	주거정책 인지 및 이용 여부	정책 인지 여부		주거정책 효과적 실행 여부 파악
		정책 신청 여부		
		정책 수혜 여부		
	필요한 주거 정책	필요한 주거 정책		주거정책 수요 파악
	공공임대주택 거주 희망	공공임대주택 거주 희망		공공임대주택 욕구 파악
	주거불안 경험	주거불안 경험		주거위기계층 규모 및 특징 파악
	열악한 거처 거주 경험	열악한 거처 거주 경험		
주거 인식	자가 소유 인식	자가 소유 필요성 여부		향후 주거정책 방향성 수립을 위한 주거 인식 파악
		(그렇다) 이유		
		(그렇지 않다) 이유		
	주택 의미에 대한 충족도	안전보호공간	휴식공간	
		가족공간	사적 공간	
		생리위생 등	자신증식	
		사회적 지위		
	적절한 독립 시기	물리적 독립		주거 독립 및 이행 관련 인식 파악
		실질적 경제 독립		

5. 건강

가. 청년 건강 영역의 주요 현안 및 이슈 검토

□ 청년기 건강 투자의 중요성

○ 청년기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질병발생이 적어 일생 중 가장 건강한 시기로 볼 수 있으나 청년기의 건강은 이후 성인기의 건강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

- 청년기에 건강상태가 나빴거나 만성질환을 경험할 경우 성인기 학업성취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청년기에 습득된 건강(예, 신체활동, 건강한 식습관 등) 혹은 불건강 행태(예, 흡연, 음주, 부적절한 약물사용 등)는 성인기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에 따라, 청년 건강정책은 질병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모든 청년이 자신의 건강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되어야 함.

○ 결국 청년 정책은 공정한 삶의 기회를 얻기 위한 청년의 '건강 잠재력 확보' 그 자체가 정책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며, 청년 건강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청년기 건강불평등

○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청년 시기가 가장 건강한 시기임은 분명함. 그러나 평균적인 건강수준으로 청년 집단 전체의 건강을 판단하거나 혹은 모든 청년은 '건강'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전제가 되면 이면에 가려진 청년 건강의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됨.

- '청년 삶 실태조사'는 건강불평등 측면에서 사회계층별 건강격차를 드러내고,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한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영역 설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년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의 측정과 함께 평균에 가려진 취약인구집단의 건강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음.

- 아울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년 세대의 건강수준의 변화와 집단 간 건강격차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 또한 건강영역 설문의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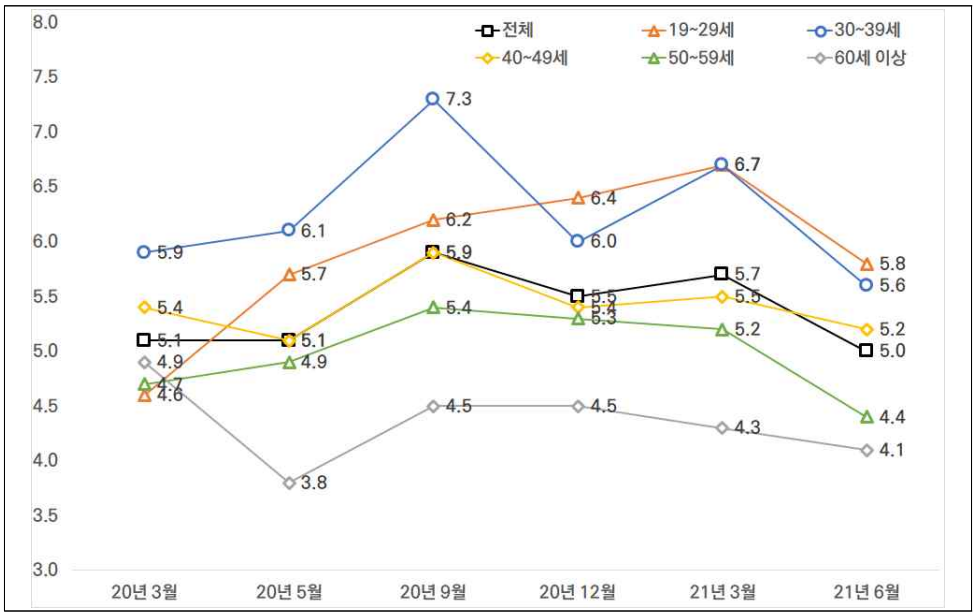
○ 특히, 사회계층 간 건강격차(social gradient)가 발생하는 요인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여 청년 세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회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 또한 건강영역 조사의 목적이 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우울 증가

○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작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20, 30대의 우울 평균점수는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울위험군 비율도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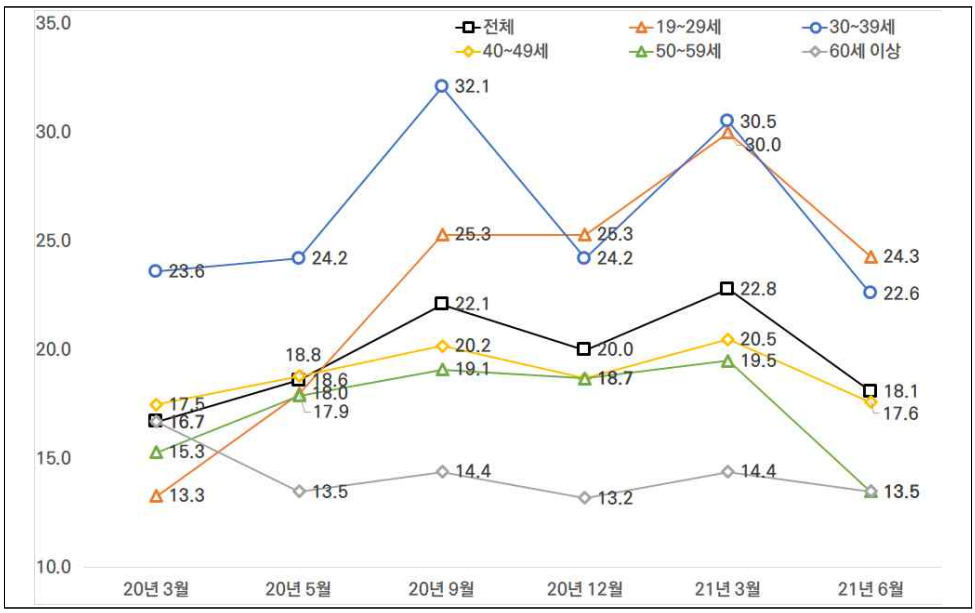
- 우울 평균점수(20대 5.8점, 30대 5.6점)의 경우 30대는 2020년 첫 번째 조사(5.9점)부터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조사 초기(2020년 3월 4.6점)에는 가장 낮았으나,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근 조사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7. 26.).
- 20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50대·60대 (각각 13.5%)에 비해 1.5배 이상 높아,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7. 26.).

〔그림 4-6〕 연령대별 우울 평균 점수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7. 26. p. 3.

〔그림 4-7〕 연령대별 우울 위험군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7. 26. p. 3.

나. 청년 건강 영역 조사 내용의 초점

□ 청년기 건강 관련 새로운 이슈 발굴

○ 청년기의 높은 자살률과 우울의 문제는 그동안 청년 정책의 중요 부분으로 자리매김해 왔음. 그러나 청년건강과 관련해서 우울, 자살 이외 다른 건강영역에서의 문제점이나 이슈 발굴은 소홀했던 것 또한 사실임.

○ 이에 따라 우울, 자살 외에 청년 건강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여 청년 건강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청년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 발굴을 위해서는 청년 집단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청년기 건강 위험요인 파악

○ 장년층이나 노인층은 건강생활습관이 고착화되고 건강생활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태 또한 이미 결정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건강조사의 경우 건강을 만성질환 유병이나 의료이용 상태로 정의하고, 건강결과를 측정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설문이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청년층의 경우 건강행태 등이 완전히 습득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불건강한 행태의 교정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건강결과의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청년기 건강영역의 설문은 건강결과보다는 향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함.

  - 청년층의 생애주기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는 청년 건강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향후의 질병부담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청년 삶 실태조사 사전 연구’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위험 요인 중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청년기 건강위험요인과 함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신종 건강위험요인을 설문에 포함하였음.

- 청년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통적 건강 위험요인 문항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스트레스, 우울 등을 포함하였음.
- 청년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종 건강 위험요인 현황 파악을 위해 수면, 소진, 약물오남용, 스마트폰 의존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음.

□ 청년층 정신건강

○ OECD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10~30대 청년들의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이하 자살률)는 25.7명으로 4.4% 감소(2019년 26.9명)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문제는 젊은 층의 자살률인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살률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10대(9.4%) 및 20대(12.8%) 등 30대 이하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9. 28.).
- 2016~2020년 기간 동안 10대 자살률은 4.9명에서 6.5명으로 32.7%, 20대 자살률도 16.4명에서 21.7명으로 32.3%, 30대 자살률도 24.6명에서 27.1명으로 10.2% 각각 증가하였음(한겨레, 2021. 9. 28.).

○ 자살은 사회 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청년층 자살의 주된 요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청년층의 불안·우울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므로 청년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함.

□ 청년층 소진 경험

○ 소진은 생산성 저하, 업무 불만족, 이직 등의 직업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신체적(당뇨,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 관상동맥질환, 근육통, 두통, 만성 피로, 사고 및 조기 사망) 및 정신적(우울증, 수면장애, 정신장애) 건강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승엽, 2020, p. 105).

- 미국 정신분석가인 Herbert Freudenberger는 마약중독자 무료 진료소에

서 자원봉사를 하던 임상 경력이 많지 않던 임상가와 심리사들이 겪은 좌절감과 심리적 문제들을 기술하면서 소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이승엽, 2020, p. 105).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건강상태에 또는 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소진'을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 등재하였음(이승엽, 2020, p. 105).

○ 최근 소진의 개념은 정서적 고갈 외에도, 피로감 등의 신체적 문제, 집중도 저하와 같은 인지 문제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대인관계의 문제 발생 및 업무 능률 저하 등으로 영역이 점차 확대되었음(이승엽, 2020, p. 106).

- 청년세대는 입시, 학업, 스펙 쌓기, 취업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경쟁 유도 사회 분위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기 어려운 현실과 더해져 과거에 비해 조기에 소진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청년층의 소진 경험과 소진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식 등 관련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표 4-18〉 건강 영역의 조사 내용의 초점

구분	내용
청년기 건강 관련 이슈 발굴	우울, 자살 외에 청년 건강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여 청년 건강 정책의 외연을 확장 - 흡연하는 담배 종류, 영양, 건강행동 변화 욕구, 약물 오남용. 스마트폰 의존 등
청년기 건강 위험요인 파악	청년층의 경우 건강행태 등이 완전히 습득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불건강한 건강 행태의 교정 가능성이 커서 건강결과의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향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함.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건강위험요인과 함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신종 건강위험요인을 설문에 포함 - 수면, 소진, 약물오남용, 스마트폰 의존 등
청년층 정신건강	자살은 사회 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청년층 자살의 주된 요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청년층의 불안·우울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므로 '청년 삶 실태조사 사전 연구'에서 청년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함. - 스트레스, 우울, 자살 생각, 정신상담 미충족 경험 등
청년층 소진 경험	청년세대는 입시, 학업, 스펙 쌓기, 취업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경쟁 유도 사회 분위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기 어려운 현실과 더해져 조기에 소진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청년층의 소전과 관련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진경험, 소진이유, 소진 시 대응 방법

다. 청년 건강 영역 조사 내용의 개발

1) 기존 조사 검토

①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건강영역 설문은 11개 문항(2020년 기준)으로 비교적 간략히 구성되어 있음.

○ 건강행태와 관련해서는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건강검진 수검 여부', '규칙적인 운동여부 및 빈도' 문항이 있고,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 등의 문항이 있으며, 의료이용과 관련해서는 '질환발생 시 대처방안' 및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문항이 있음.

- 그 외에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성형수술 경험 및 목적',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 한 이유', 그리고 '건강관련 정

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부분' 등을 조사하고 있음.

□ 청년 삶 실태조사의 건강 영역에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건강검진 수검 여부',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규칙적인 운동여부 및 빈도',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경험 여부' 등의 문항을 승계하여 수정 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문항은 스스로의 건강수준을 평가한 문항으로 개인의 건강수준 측정을 위해 각종 설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미래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을 예측할 수 있는 대리지표로 인정받고 있음.

- 이에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문항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을 참고하여 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문항으로 수정하여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 2019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20~30대 피부양자나 세대원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따라 청년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새로운 정책지표로서 활용 가능하게 되었음.

-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정책 인지도와 이용 여부 측면에서 국가건강검진 수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

○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건강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미충족 의료 경험'과 유사함. 이에 따라 청년 삶 실태조사는 선택지를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 '규칙적인 운동여부 및 빈도'는 두 개로 이루어진 문항을 수정하여 하나의 문항으로 합쳐서 정리한 후 활용함.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경험 여부'는 2018년도 한 해만 조사된 문항임. 최근 청년층 정신건강서비스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상담 미충족 경험과 미충족 경험 이유'의 두 개 문항으로 확대, 구성하였음.

② 국민건강영양조사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우리나라 국민 약 1만명에 대해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 섭취실태 조사를 통해 국가단위 통계를 산출하는 전국규모의 조사임.

○ ‘외식 및 매식빈도’, ‘체중조절 및 방법’, ‘수면시간’,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등의 문항을 참고함.

③ 지역사회 건강조사, 정신질환역학실태조사

□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주민의 건강수준에 대한 시·군·구 단위 지역통계를 매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되었음.

○ ‘현재흡연율’, ‘연간 음주율’, ‘월간 폭음 경험’, ‘스트레스 경험’, ‘우울 경험’, ‘우울 유병률’ 등의 문항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문항을 활용함.

□ 그 외 청년 건강영역에서 의미 있는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 조사가 아닌 관련 연구의 논문이나 지침 등의 문헌을 활용함.

○ ‘알코올 의존 척도’, ‘채소 및 과일 섭취 행태’, ‘스마트폰 의존’ 등은 기존 조사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았으나 청년층의 건강수준 파악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항목으로 선행연구 등을 활용하여 설문에 포함하였음.

〈표 4-19〉 건강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조사명·출처	년도	조사항목	검토 사항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018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경험 여부	청년층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경험 및 미충족 의료 경험 조사 필요
	2020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기존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문항으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활용
		건강검진 수검 여부	20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20~30대까지 확대됨에 따라 정책 평가 지표로 활용 가능함.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미충족 의료 경험 문항으로 기존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선택지를 수정하여 활용
		규칙적인 운동 여부 및 빈도	신체활동 측정을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음. 문항과 선택지를 수정하여 활용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	외식 또는 매식 빈도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외식, 매식 행태 파악
	2019	체중조절	체중조절은 비만과 관련 있어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청년층은 외모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체중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위험요인이 되기도 함.
		체중조절 방법	
		수면시간	정신건강 측면에서 수면은 매우 중요함. 수면건강 측정을 위한 수면 시간 파악
		자살생각	정신건강 수준 파악을 위한 자살생각 경험 측정
		자살계획	정신건강 수준 파악을 위한 자살계획 경험 측정
		자살시도	정신건강 수준 파악을 위한 자살시도 경험 측정
지역사회 건강조사	2019	현재흡연율	흡연은 대표적인 불건강 행태로 청년층의 현재흡연율을 측정
		연간 음주율	음주는 대표적인 불건강 행태로 청년층의 연간 음주율을 측정
		월간 폭음 경험	폭음은 대표적인 불건강 행태로 성별로 구분하여 청년층의 월간폭음률을 측정
		스트레스 경험	정신건강 수준 파악을 위한 스트레스 경험 측정
		우울 경험	정신건강 수준 파악을 위한 우울 경험 측정
		우울 유병률	정신건강 수준 파악을 위해 PHQ-9 척도를 활용한 우울 유병률 측정
정신질환실태역학 조사	2016	약물오남용	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등 비교적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청년층의 오남용 실태 파악
알코올 간질환 진료 가이드라인[1)]	2013	알코올 의존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AUDIT-K 척도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알코올 의존 비율을 측정
이정숙 외[2)]	2018	채소 섭취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채소 및 과일섭취 행태 파악
		과일 섭취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스마트폰 의존	과거에 없던 새로운 건강위해요인으로 스마트폰 의존 실태 파악

주 1) 대한간학회, 2013, 알코올 간질환 진료 가이드라인.
(https://www.kasl.org/bbs/skin/guide/download.php?code=guide&number=84)
2) 이정숙·김혜영(A)·황지윤·권세혁·정해랑·곽동경·강명희·최영선. 한국 성인을 위한 영양지수 개발과 타당도 검증,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J Nutr Health) 2018;51(4):340~356

2) 신규 문항 개발

□ 건강 설문에서 '청년'의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기존 문항을 적절히 수정하여 활용하였으며, 기존 문항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규 문항을 개발함.

○ 기존 문항의 단점을 보완하고 조사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기존 문항을 변형하여 활용함(예, 미층족 의료 경험 이유, 외식 및 매식 빈도, 약물오남용).

○ 청년의 특징적 건강행태를 포착할 수 있는 신규 문항을 개발함(예, 흡연하는 담배 종류, 운동하지 않는 이유, 건강행동 변화 욕구, 정신 상담 미충족 경험 및 이유, 소진, 의사진단 만성질환 개수).

□ 신규 문항 개발의 필요성 및 활용 방안

○ 현재 흡연하는 담배 종류

- 건강에 대한 관심과 담배가격 인상 등으로 우리나라 흡연율은 감소추세에 있음. 2019년 국민영양조사결과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현재흡연율은 35.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 사회적인 금연 열풍 속에서 금연에 어려움을 겪는 흡연자들은 금연 대신 신종전자담배(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를 선택하거나 기존의 궐련과 신종전자담배를 혼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신종 전자담배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신종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것은 기존의 궐련과 비교하여 금연이나 건강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4. 10.).
- 특히, 20~30대의 젊은 층에서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중앙일보, 2019. 11. 5)된 바 있어 청년층의 신종담배 사용 경험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음.
  - 남성 전자담배 사용 경험: 30~39세 〉 40~49세 〉 19~29세 〉 50~59세 〉 60~69세 〉 70세 이상
  - 여성 전자담배 사용 경험: 19~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70세 이상

○ 운동하지 않는 이유

- 신체활동과 관련된 질환으로는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제2형 당뇨, 골다공증, 그리고 일부의 암이 포함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될 정도로 신체활동은 건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나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국민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률은 40.9%(통계청 사회조사, 2020)에 불과함.
  - 연령별 신체활동 실천율: 20세 미만 43.4%, 20~29세 43.8%, 30~39세 34.3%
- 그런데 신체활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근린생활권의 물리적 환경, 지역 내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 사회경제적 환경,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정책·제도 등도 매우 중요하며, 이들 각각은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하여 신체활동 증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건강행동 변화 욕구

- 청년기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다른 성인기보다 더 길기 때문에 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중요함(김아린, 2018, p. 494).
  - 특히,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수면 등의 건강행태를 관리하는 것은 성인기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 이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행태 개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행태 개선 사업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신상담 미충족 경험

-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 30대의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7. 26.).
  - 20, 30대의 우울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50, 60대에 비해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높게 나타난 30대, 20대에서 각각 12.6%, 11.1% 순으로 다른 연령대(40대 6.0%, 50대 5.6%, 60대 7.9%)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이처럼 청년층의 경우 불안과 우울 증가로 인한 정신상담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나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의료기관의 접근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정신건강 관련 미충족 의료 경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청년기 건강 영역 신규문항으로 정신상담 미충족 경험을 추가하여 정신건강과 관련된 청년층의 미충족 의료 경험과 그 이유를 조사하여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은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정신상담 미충족 이유 또한 전문가와 건강의 수단 위주로 측정되는 지표가 아니라 의료필요를 인식하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였음.

○ 소진 경험

- 최근 들어 소진으로 인한 정서적 고갈, 피로감 등의 신체적 문제, 집중도 저하와 같은 인지 문제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대인관계의 문제 발생 및 업무 능률 저하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소진과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가 부재하여 소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음.
  - 건강영역의 설문에서는 기존 조사에서 그 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소진에 대한 문항을 새로 추가하여 소진 경험과 소진 경험 이유, 그리고 소진 경험시 대처방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소진과 관련된 청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는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마련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의사 진단 만성질환 개수

- 청년기 건강영역 설문에서 건강결과는 주관적 건강 인식과 객관적 건강 수

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을 시도하고 있음.

- 객관적 건강수준은 급성, 만성질환 유병 수준 혹은 의료이용 경험 등을 통해 측정 가능함.

- 건강영역 설문에서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인정된 건강수준을 설문하기 위해 의사 진단 만성질환 개수를 파악하고자 함.

- 만성질환 개수는 의료이용 필요나 건강수준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환 수를 통해 건강수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표 4-20〉 건강 영역의 신규 문항 개발

개념			문항	척도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건강행태	흡연	현재 흡연하는 담배 종류	현재 피우는 담배의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신체활동	운동하지 않는 이유	평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청년가계 현황 및 건강 실태조사
	건강행동	건강행동 변화 욕구	귀하는 건강을 위해 흡연, 음주, 식생활, 운동, 수면 등 현재의 건강행동을 조금이라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2점	
		실천하기 원하는 건강행동	귀하가 실천하고자 하는 건강행동은 무엇입니까?(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정신건강	정신상담 미충족 경험	정신상담 미충족 경험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정신상담 미충족 이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진	소진 경험	최근 1년 동안 업무,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소진(번아웃) 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소진 이유	소진(번아웃)되었다고 느끼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진 시 대응 방법	소진(번아웃)되었다고 느낄 때 주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건강결과	만성질환 이환	의사진단 만성질환 갯수	현재 의사에게 진단받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까?(감기 등 일시적인 증상은 제외, 신체질환 및 정신질환 모두 포함)		서울청년가계 현황 및 건강 실태조사

○ 아울러 외식 및 매식 빈도, 약물오남용, 미층족 의료 경험 이유 문항은 기존 조사의 문항을 수정하여 청년 삶 실태조사의 설문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변형하여 활용하였음.

- 외식 및 매식 빈도 문항에서는 청년층의 경우 학교나 회사에서 단체급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체급식의 경우 소속 영양사 등에 의해 식자재의 신선도나 영영관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순수 외식이나 배달음식, 포장음식을 포함한 매식만을 설문 대상으로 포함하였음.
- 청년층은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위해 약물에 의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하이닥, 2020. 12. 10.),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을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수면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등 주위에서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의 사용 실태와 오남용 경험을 조사하여 관련 실태 파악 및 정책 마련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 기존조사의 미충족 의료 경험 문항은 미충족 의료의 원인을 주로 개인의 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예, 시간의 부족, 경제적 이유 등). 그러나 실제 의료 미충족은 개인 요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비롯해 다양한 의료제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함.
  - 따라서 미충족 의료 경험의 이유를 물을 때에도 의료환경과 관련된 개인의 어려움이 반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원인을 중심으로 선택지를 새롭게 구성하였음.

3) 청년 건강 영역 조사항목 구성(안)

□ 건강영역 조사 항목은 건강행태, 정신건강, 의료이용, 건강결과, 청년정책인지로 크게 분류함.

○ 건강행태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체중조절, 영양, 수면, 건강행동 관련 문항을 포함함. 특히,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체중조절(다이어트), 영양 등에

대한 문항을 구성함.

- 영양의 경우 청년층의 식생활 행태를 반영하여 외식 또는 매식 빈도, 채소와 과일 섭취에 대한 문항을 포함함.

○ 정신건강은 청년층의 기존에 많이 알려진 우울, 자살과 관련된 문제 외에 소진 경험, 약물오남용, 스마트폰 의존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정신건강 관련 문제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문항을 구성함.

- 또한 정신상담 미충족 경험 문항을 새로 구성하여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접근성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표 4-21〉 건강 영역 조사항목 구성(안)

개념			조사목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건강행태	흡연	현재 흡연 여부	- 건강위험요인별 건강생활실천률 파악 - 신종담배 사용 여부 파악
		현재 흡연하는 담배 종류	
	음주	연간 음주율	- 건강위험요인별 건강생활실천률 파악 - 알코올 의존율 파악
		월간 폭음 경험(남자, 여자)	
		알코올 의존	
	신체활동	운동 여부	- 건강위험요인별 건강생활실천률 파악
		운동하지 않는 이유	
	체중조절	체중조절 여부	- 다이어트 등 체중조절 경험 파악
		체중조절 방법	
	영양	외식 또는 매식 빈도	- 건강한 식생활 및 적절한 영양섭취 여부 파악
		채소 섭취	
		과일 섭취	
	수면	수면시간	- 수면 건강 수준 파악
	건강행동	건강행동 변화 욕구	- 건강생활 실천 욕구 파악
		실천하기 원하는 건강행동	
정신건강	스트레스	스트레스 경험	- 스트레스, 우울,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 수준 파악
	우울	우울감 경험	
		우울 유병률	
	자살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정신상담 미충족 경험	정신상담 미충족 경험	- 정신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미충족 경험 파악
		정신상담 미충족 이유	
	소진	소진 경험	- 새로운 건강위험요인으로서 소진 경험률 및 대응 방법 파악
		소진 이유	
		소진 시 대응 방법	
	약물오남용	약물 사용 경험	- 약물오남용 경험률 파악
		약물 오남용 경험	
		오남용 약물 종류	
	스마트폰 의존	스마트폰 의존	- 스마트폰 의존도 파악
의료이용	미충족 의료 경험	미충족 의료 경험	- 미충족 의료 경험률 파악
		미충족 의료 경험 이유	
건강결과	주관적 건강 인식	주관적 건강 인식	- 주관적, 객관적 건강 수준 파악
	만성질환 이환	의사진단 만성질환 갯수	
청년정책인지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인지여부, 수혜여부, 도움 정도	- 청년정책 인지율, 수혜율 파악
	청년 국가건강검진	인지여부, 수혜여부, 도움 정도	

주 1) AUDIT-K: 한글판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검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Korea)
2) PHQ-9: 한글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6. 참여 및 관계

가. 주요 현안, 이슈 검토, 문헌 고찰

□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과 참여

○ 한국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20대 미만 청년의 비율은 21대 국회를 기준으로 약 0.66%로, 다른 국가의 2%(IPU, 2018; 장선화 외, 2021에서 재인용)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이정진, 2021).

○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 청년 세대의 사회적 발언권과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이상림 외, 2020).

○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 유권자 감소[10]에 더해 청년층의 투표율 역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낮은 실정임(〈표 4-22〉 참고).

〈표 4-22〉 청년층 주요선거 투표율

(단위: %)

내용	18세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	계
21대 총선	67.4	68.0	58.7	57.1	63.5	71.2	80.0	78.5	51.0	66.2
19대 대선		77.7	76.1	74.2	74.9	78.6	84.1	81.8	56.2	77.2
7회 지선		54.1	52.0	54.3	58.6	63.3	72.5	74.5	50.8	60.2
20대 총선		53.6	52.7	50.5	54.3	60.8	71.7	73.3	48.3	58.0

자료: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최종 검색일: 2021.2.4., http://info.nec.go.kr/), 이정진(2021)에서 재인용

○ 정치적 대표성의 세대적 불균형과 청년의 정치적 과소 대표, 저조한 정치 참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10) 이상림 외(2020)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중 청년 세대(18세 제외)의 유권자 비율은 2000년 38.1%에서 현재에는 24.7%로 감소하였고, 20년 후인 2040년에는 1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청년의 정치·사회참여 방식의 변화

○ 대체로 한국에서 청년의 정치참여는 정치의 본격적인 장과 시민사회 모두에서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으나(장선화 외, 2021)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존재함. 하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가 저조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가 새로운 유형으로 변화고 있는 것임(김수정 외, 2020).

○ 정치 참여를 투표나 정당활동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제도적/관습적 참여'로 한정하느냐, 청원, 서명운동, 시위 및 집회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비관습적' 혹은 '대안적 참여'까지 포함(Dalton, 2006; Milbrath & Goel, 1977; Verba, Schozman, & Brady, 1995; 김수정 외, 2020에서 재인용)) 하느냐에 따라 청년의 정치 참여 실태는 다른 모습일 수 있음.

○ 제도적/관습적 정치 참여를 통한 정치적 대표성 확대도 필요하지만, 청년의 정치·사회 참여 방식과 범위가 변화하고 있다면 이를 포착하는 것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

○ 청년이 마주한 다차원의 어려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 청년 전달체계 구성뿐만 아니라, 청년이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과정에 당사자인 청년을 직접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음.

○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러한 일부 청년의 참여가 청년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한다거나 참여한 소수의 청년이 대다수의 청년과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실질적 참여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소외 문제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사회적 관계 형성

- 기술을 발전은 사회적 관계 맺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현재의 청년 세대는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을 가장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세대로서, 이전 세대와 단순히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는 정도의 차이를 넘어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음.
- 대면하는 사회적 관계보다 비대면의 사회적 관계, 신속하고 일회성의 불특정 다수와 관계 맺기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의 사회적지지 체계로서의 역할이 청년들에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고립과 소외

- “청년기는 노동시장으로의 전환(school to work transition)과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김재희, 박은규, 2016, 김춘남 외, 2018에서 재인용)”로, 청년기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함.
- 청년 1인 가구의 증가[11]와 학업에서 직업으로 이행의 장기화 양상은 청년의 사회적 관계 맺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부진한 사회적 관계 형성은 청년들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지의 부재를 의미하는 동시에 소외감과 고립감을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우울과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나. 청년 참여 및 관계 영역 조사 내용의 초점

□ 청년 삶의 질 확보를 위하여 건강, 교육, 노동, 주거 등과 같은 물질적 여건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참여와 관계의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 청년을 포괄하는 주요 지표들에서도 참여를 주요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음.

---

11) 청년 가구(34세 이하)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015년 52.31%였던 것이 2019년에는 60.38%로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통계청, 2019).

- 예)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의 “Global Youth Wellbeing Index”에서 시민참여 영역, Commonwealth의 “Youth Development Index”에서 시민참여와 정치 참여 영역, OECD의 “Better Life Index”에서 공동체 등.

○ 「제1차 청년기본계획」에서도 ‘참여·권리’ 분야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참여를 촉진하고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청년의 참여를 청년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음.
- 「청년기본법」 따라 수립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참여·권리’를 5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참여·권리’에서는 1)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3)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를 중점 과제로 제시함.

○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참여 및 관계’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청년이 어떻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행위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음.

□ 청년의 정치 참여 실태

○ 청년은 정치적으로 과소대표 되고 있으며, 당면한 이슈에 대해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는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정치와 정책 결정 과정 참여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조사함.

○ 특히, 전통적, 관습적 참여뿐만 아니라 비관습적 참여를 파악하는 의미로서 정치·사회 현안 관련 활동의 실태와 청년의 정치·사회 활동 활성화를 필요한 요건을 파악하고자 함.

□ 사회적 관계망과 소외감

○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소속 및 활동 단체를 파악함. 또한, 학업에서 생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장기화되고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소속감 문제를 포착하고자 함.

○ 청년은 경제적, 심리·정서적 이행기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을 가장 자유롭게 빠르게 받아들이는 세대로서 사회 참여, 사회적 관계 맺기의 방식에 있어 다른 세대와 다를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의 관계/교류의 실태를 파악함.

□ 기존의 참여 관련 실태조사와 비교 가능하도록 공통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소셜네트워크 발달, 제도 정치 내에 일부 청년 진출, 취업난의 장기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실태를 포착하기 위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포함하였음.

〈표 4-23〉 청년 참여 및 관계 영역의 조사 내용의 초점

구분	내용
청년의 정치 참여 실태	-투표 참여 경험과 의향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 인식 -정치적 효능감 -정치·사회 현안 관련 활동 실태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 요건 인식(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방향성 도출)
사회적 관계망과 소외감	-소속 및 활동 단체 파악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망 실태 파악 -소속감과 소외, 불안

다. 청년 참여 및 관계 영역 조사 내용의 개발

1) 기존 조사 검토

①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청년과 관련한 대표적인 실태조사인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회 수행되었으며, 참여와 관계 관련 문항은 연도 별로 차이를 보임.

○ 2017년, 2018년, 2020년의 경우 참여와 관계 관련 문항은 비교적 간략하며,

정치적 효능감, 정치·사회 참여 의향,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 여부와 규모, 외출 빈도와 이유, 혼밥과 혼술 경험을 질문하고 있음.

○ 2019년에는 투표 참여 경험, 정치 관심도, 사회·정치 참여 이유, 단체(모임) 참여 경험과 의향, 청년 참여와 관련된 법, 정책, 기구에 대한 인지 여부, 사회·참여 활성화 요인 등으로 문항을 확대 구성하고 있음.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문항의 일부 승계 및 수정 반영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청년의 참여와 관계를 다루고 있으나, 2019년을 제외한 연도는 문항이 간략하여 청년의 정치 및 사회 참여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특히 관계와 관련한 문항의 경우, 고립과 소외를 측정하기 위한 외출 빈도와 지속, 혼술, 혼밥 등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사회적 관계의 다양성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본 조사에서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정치적 효능감, 정치·사회 참여 경험,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 요건 등을 승계하여 수정 후 활용하며, 관계와 관련한 문항은 타 조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음.

② 서울청년패널

□ 서울청년패널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와는 달리 사회·정치 참여를 간략히 다루고, 사회적 관계망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폭넓게 파악하고 있음.

□ 사회적 관계망에 대하여 전통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맺기의 다양한 형태와 변화를 포착하기 위하여 관계 맺는 방식을 세분하여 포함하고 있음.

□ 또, 소속감 여부와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을 질문하고 있는데, 이는 관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더하여 관계의 질과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4〉 참여 영역 및 관계의 기존 조사 검토

조사명	년도	조사항목	검토 사항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017~2020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효능감은 투표를 비롯한 사회·정치 참여 여부나 정도의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므로 포함.
	2017~2020	정치·사회 참여 경험	정치·사회 참여 경험은 청년들의 참여 및 사회 활동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활동의 항목을 수정 및 확장하여 포함.
	2019	투표 경험	투표는 정치 참여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므로 수정하여 포함. 청년층의 투표율 자체는 공식적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청년 개인의 투표 참여 여부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함께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의 투표 참여를 질문할 필요가 있음.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정치적 효능감과 별도로 정치 참여를 어렵하는 이유를 질문하고 있음.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를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단체(모임) 참여	단체(모임) 참여는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와 관계 형성 모두에 활용할 수 있는 문항으로서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 활동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수정하여 포함.
	2019~2020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	직접적으로 청년의 사회·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 입장에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당사자 친화적인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포함.
서울 청년패널	2020~2021	투표 의향	투표 의향은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의사이므로.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은 조사 대상자의 사회 관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구성된 널리 쓰이는 척도로서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여 포함.
		소속감	소속감 여부와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을 질문하고 있으며, 이는 관계의 질과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2) 신규 문항 개발

□ 앞에서 검토한 기존 조사 문항의 수정 보완 의견 작성

○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 조사인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2019년을 제외하고 청년의 정치 및 사회 참여에 대한 실태 파악이 간소함.

-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사회 참여 경험에 대하여 2017년~2020년 조사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으나, 정치 참여의 대표적 지표인 투표 경험 등에 대하여는 2019년 조사에만 포함되었음.

○ 서울청년패널의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망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으나 정치·사회 참여 파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투표 의향'만을 질문함.
- 사회 참여 실태는 '사회참여 활동', '기부' ,'자원봉사 활동'의 각 영역에 대하여 '있다', '없다'로 구성하였으며, '사회 참여 활동'의 내용이나 방식을 세분하지 않고 있음.

○ 청년들의 참여와 관계를 보다 균형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앞서 검토한 조사들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제시함.

□ 기존 문항을 수정·보완한 신규 문항 개발

○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실태 파악으로서 투표 경험과 투표 의향

- 투표와 관련한 질문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선거를 한정하여 질문하는 경우와, 전반적 투표 참여 실태를 질문하는 경우가 있음.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조사 시점과 인접한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 참여 여부를 예, 아니오로 묻고 있음.
- 조사 대상 연령으로 보았을 때, 투표권이 없는 대상자가 조사에 다수 응할 수 있고 따라서 '참여하지 않았다'에 투표권이 없는 사례가 포함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질문을 선거를 특정하지 않고, 전반적 투표 경험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표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기를 구성함.

○ 정치·사회 참여 경험의 경우 하위 항목을 일부 조정함.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정치·사회참여 경험은 2019년에는 총 11개 항

목, 2020년에는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청년들의 활동을 포괄하면서도 일부 통합이나 대체가 가능한 항목을 고려하여 6개 항목으로 수정하여 제시.

○ 단체(모임) 참여의 문항과 항목을 일부 수정함.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단체(모임) 참여에 대하여 참여의 빈도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선택하도록 수정함. 또한 항목에서 '학술단체'를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함.

○ 확장된 범위의 사회적 관계망 파악.

-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파악함.
- 특히,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안부를 묻거나 담소하기 위하여 연락하는 사람'과 같은 항목을 추가하여 구성함.

○ 이행 지연에 따른 소속감, 불안감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 구직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학업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이 장기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소속감 부재, 소외감, 불안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서울 청년패널에 포함된 소속감 질문을 보완하여, 소속감 여부를 공적 소속감과 사적 소속감으로 세분하였으며, 소속감에 따른 소외와 불안을 느끼는지를 질문함.

〈표 4-25〉 참여 및 관계 영역의 신규 문항 개발

개념			문항	척도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참여 및 관계	정치·사회 참여	투표 경험	최근 한국에서 열린 전국단위의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 귀하는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투표권이 없었던 선거는 제외한 선거들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범주	-
		정치·사회 참여 경험	귀하는 정치·사회 현안에 관하여 다음 활동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서열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항목 수정
	관계·교류	단체(모임)참여	귀하가 현재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범주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문항, 항목 수정
		사회적 관계망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가족 포함)?	서열	서울 청년패널 항목, 보기 수정
		소속감과 소외, 불안	귀하는 현재 학교, 직장 등과 같은 공식적(공적) 소속이 있습니까?	이분	서울 청년패널 참고하여 개발
			귀하는 학교, 직장 등 공식적 소속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5점	
			귀하는 학교, 직장 등과 같은 공식적(공적) 소속이 없거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서 소외, 불안을 느끼십니까?	5점	
			귀하는 가족, 친구, 친목 모임 등 사적 관계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5점	
			귀하는 가족, 친구, 친목 모임에 소속감이 없어서 소외, 불안을 느끼십니까?	5점	

□ 신규 문항 활용 방안

○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하여 실질적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 소속감 부재에 따른 청년들의 소외감과 불안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포착하고, 관련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 근거를 마련.

3) 청년 참여 및 관계 영역 조사항목 구성(안)

〈표 4-26〉 참여 및 관계 영역 조사표 구성(안)

개념			조사목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참여 및 관계	정치·사회참여	투표 경험	정치참여 정도와 태도 파악(관습적 참여)
		투표 의향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정치참여 제약요인 파악
		정치적 효능감	정차참여 정도와 태도의 원인 파악
		정차·사회 참여 경험	정치참여 정도와 태도 파악(비관습적 참여)
		정차·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	청년의 실질적 정치사회 참여 보장을 위한 방안 파악
	관계·교류	단체(모임) 참여	사회 참여 방식으로서 소속 및 활동 단체 파악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 여부 및 크기 파악
		공식적 소속 여부	이행의 장기화에 따른 소속감 부재와 소외, 불안 실태 파악
		공식적 소속감	
		공식적 소속의 부재에 따른 소외, 불안	
		사적 관계 소속감	
		사적 관계 소속감의 부재에 따른 소외, 불안	

7. 문화여가

가. 주요 현안, 이슈 검토, 문헌 고찰

□ 2020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문화체육관광부, 2020)에 따르면, 20대와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 관람 의향률,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문화예술행사 참여의향률, 복합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비율이 높았음. 15~19세(81.0%)를 제외하면 문화예술관람율 또한 20대(84.3%)와 30대(72.0%)가 가장 높음.

○ 매체는 텔레비전, 라디오, 스마트기기, PC, 노트북, 비디오, DVD, CD 플레이어를 포함하며, 복합문화예술행사는 2개 이상의 문화예술행사(예: 미술전시회+클래식음악회)가 합쳐진 예술행사를 일컬음.

□ 청년층에게 문화는 문화예술, 스포츠, 여행을 소비하는 것만이 아닌 'SNS에서 본 맛집을 직접 찾아가기', '모바일로 웹툰 보기', '지하철에서 이어폰으로 음악듣기'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일상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행위까지를 포함함(박영정, 2015).

□ 이는 기존의 문화활동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던 항목임. 즉, 청년층의 문화는 일상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함에 따라, 문화보다 폭넓은 범주인 여가의 범주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봄.

○ 여가는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취침, 식사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을 의미하며, 여가활동 유형은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9).

□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 문화 영역의 중점과제는 '매달 한번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이며, 1) 문화콘텐츠 분야의 콘텐츠 제작자금을 2025년까지 1조원을 지원하고, 2) 청년 문화 활동의 기반을 강화하며, 3)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관계부처합동, 2020).

- 이 중 2) 청년 문화 활동의 기반 강화는 22년부터 모든 저소득 청년(기초·차상위)에 대한 문화누리카드 지급(연 10만원)계획과, 10분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생활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확충 등이 주 골자임.
- 문화누리카드 청년층 지급률 : 77%('19) → 100%('22~)
- 생활문화센터: 336개('20) → 420여 개('22)
- 공공도서관: 5만 명당 1개(1,134개, '20) → 4만 3천 명당 1개(1,200여 개, '22)
- 그 외 '25년까지 총 5,300여 명의 청년들이 지역문화, 공예, 공공디자인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문화여가 영역 조사 내용의 초점

□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문화·여가 영역은 1) 청년층 문화·여가의 특성과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문화 영역 내용 및 이후에 살펴볼 기존 조사의 내용과의 중복을 고려하여, 2) 특성에 기반한 청년층 문화·여가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제약 요인(예: 비용, 시간, 공간, 함께할 사람, 문화자본 등)을 해소할 정책 지원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여가 유형을 기존의 여가 유형 분류인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취미오락, 휴식, 사회 및 기타활동으로 분류할 뿐 아니라 이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분류함. 이는, 앞서 살펴본, 청년층 문화생활의 특징인 일상성과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높다는 기존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임.

〈표 4-27〉 문화여가 영역의 조사 내용의 초점

구분	내용
여가 시간	평일과 휴일 여가 시간의 실태
여가 유형, 빈도, 함께 하는 사람	참여하고 있는 여가 활동의 유형, 빈도, 함께 하는 사람
여가 유형별 만족도	참여하고 있는 여가 유형별 만족도
여가 활동의 제약	여가 활동의 제약 경험 여부와 제약이 없다면, 각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의사와 빈도, 함께 하고싶은 사람
여가에 대한 실태와 필요성 인식의 격차	여가 관련 경험, 활동, 역량, 지식·정보 등에 대한 실태와 필요성 인식의 격차

다. 문화여가 영역 조사 내용의 개발

1) 기존 조사 검토

①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전국 17개 시도(제주도 및 세종시 포함) 만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단위의 조사로 10,000가구(가구당 1명)를 1년 주기로, 문화향수 및 문화의식, 문화활동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수행함(문화체육관광부, 2021b).

□ 조사문항은 총 30개로 조사내용은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7개), 문화예술교육(4개), 문화예술활동공간 이용 실태(3개), 문화관련 활동(3개), 역사문화유적지 및 축제(4개), 일반적 특성(7개), 경제활동사항(2개)을 포함함(문화체육관광부, 2021b)..

② 국민여가활동조사

□ 전국 17개 시도(제주도 및 세종시 포함) 만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단위의 조사로 10,000가구(가구당 1명)를 1년 주기로, 국민들이 여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여 정부의 여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수행함(문화체육관광부, 2021c).

□ 조사문항은 총 49개로 조사내용은 여가활동 참여실태(10개), 평일 및 휴일 여가활동(5개), 여가공간(5개), 다양한 여가활동(4개), 여가인식 및 만족도(8개), 여가활동 제약 관련(2개), 근로시간 단축 관련(3개), 일반적 특성(6개), 경제활동 사항(5개)를 포함함(문화체육관광부, 2021c).

□ 두 조사는 문화·여가 전반을 다루고 청년을 포괄하고 있어 문화·여가 활동의 분류와 파악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음. 그러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여가활동 분류 중 문화예술활동 관람 및 참여에 해당하는 분야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년층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국민여가활동조사가 좀 더 적합함.

□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여가시간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청년 문화·여가 실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봄.

○ 여가활동 유형은 1) 문화예술 관람활동, 2) 문화예술 참여활동, 3) 스포츠 관람활동, 4) 스포츠 참여활동, 5) 관광활동, 6) 취미오락활동, 7) 휴식활동, 8) 사회 및 기타활동으로 구분됨.

○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은 ①혼자, ②가족, ③친구(학교 선후배 포함, 연인), ④직장 동료, ⑤동호회원, ⑥기타로 구분됨.

□ 그러나 여가활동 유형, 여가 참여 경험 및 빈도, 여가활동 참여 만족도, 여가활동 제약 경험은 수정 보완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2) 신규 문항 개발에서 서술함.

□ 그러나 두 조사 모두 총 조사 대상이 10,000명이며, 청년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항목이 적어 다양한 청년의 특성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또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다룬 정책 대응(신규 문항에서 개발한 실태와 인식의 격차 및 제약 해

소시 참여, 활동에 대한 구체적 의사)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을 구체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표 4-28〉 문화여가 영역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조사명	년도	조사항목	검토 사항
국민여가활동조사	2020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여가 시간	평일, 휴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
		여가활동 유형	여가유형 분류를 위한 기본 정보 항목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	여가활동을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
		여가활동 참여 경험 및 빈도	각 여가유형에 대한 참여 경험 및 빈도 파악
		여가활동 참여 만족도	각 여가유형에 대한 만족도 파악
		여가활동 제약 경험	각 여가유형에 대한 제약 경험 파악

2) 신규 문항 개발

□ 기존 문항을 수정·보완한 경우

○ 참여경험의 경우, 국민여가활동은 1순위에서 5순위를 물은 반면, 청년 삶 실태조사는 모든 유형에 대해 참여 경험을 질문함.

○ 여가활동 유형은 매체 활용이 높은 청년 특성을 반영하여 각 유형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추가 구분하였음.

○ 만족도의 경우, 다른 영역과의 균형,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7점 척도를 5점 척도로 축소했음.

○ 빈도의 경우 주기의 균형을 좀 더 보완하였음.

- 국민여가활동조사: ① 매일 ②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③ 한 달에 2~3번 ④ 한 달에 1번 ⑤ 몇 달에 1번 ⑥ 기타
- 청년 삶 실태조사(안): ① 거의 매일(일주일에 3~4회 이상) ② 일주일에 1~2회 ③ 한 달에 1~2회 ④ 3개월에 1~2회 ⑤ 1년에 1~2회

○ 제약경험의 경우,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시간부족과 경제적 지출부담의 보기를

포함하되, 청년기본계획에서 포함된 인프라나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관련 경험, 지식의 부족 문제를 포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기를 수정함.

- 국민여가활동조사: 제약 요인으로 1) 시간 부족, 2) 경제적 지출 부담, 3) 미세먼지, 4) 폭염이나 폭탄, 5) 가족의 건강 (질병, 장애 등)에 대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1점) ↔ 매우 영향을 끼친다(7점)
- 청년 삶 실태조사(안): 제약 요인으로 1) 함께 즐길 사람의 부족, 2) 비용 문제, 3) 시간 문제, 4) 공간 문제,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경험, 지식, 정보나 도움의 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 신규 조사 문항을 개발한 경우

○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

- 제약이 없다면, 각 여가유형에 대한 참여 의사 및 어떻게 참여(빈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지)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여가 관련 경험, 활동, 역량, 지식·정보 등에 대한 실태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격차

- 문화여가 영역의 세대 내 불평등을 포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사용하는 조사문항 형태를 활용하여 문화여가 관련 경험, 활동, 역량, 지식·정보 등에 대한 실태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파악하는 문항을 개발함.

〈표 4-29〉 문화·여가 영역의 신규 문항 개발

개념	문항	척도	출처
여가활동 참여 경험	다음은 지난 1년간의 여가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국민여가활동조사 유형 추가
여가활동 참여 빈도	다음은 각각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5점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기수정
여가활동 제약 경험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5점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기수정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	여가활동의 제약요인이 없다면, 귀하는 다음 각각의 여가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	-
여가 관련 경험, 활동, 역량, 지식·정보 등에 대한 실태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격차	다음에 대해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	-

□ 신규 문항 활용 방안

○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와 여가 관련 경험, 활동, 역량, 지식·정보 등에 대한 실태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격차 문항

- 청년층 문화·여가 수요 및 문화·여가 영역의 세대 내 불평등에 대한 구체적 실태 확인을 통해 인프라 구축의 근거와 정책 지원 방안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3) 문화·여가 영역 조사항목 구성(안)

〈표 4-30〉 문화·여가 영역 조사표 구성(안)

개념			조사목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간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여가시간	지난 1년간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청년층 문화·여가 실태 (시간) 파악
		지난 1년간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참여경험	지난 1년간 유형별 여가활동 참여 경험	8개 유형별 경험여부 (있다/ 없다)	청년층 문화·여가 실태 (유형과 정도) 파악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빈도	
		(주로) 함께한 사람 (모두 선택)	
만족도	지난 1년간 8개 유형별 온라인 오프라인 여가활동 만족도	문화예술 관람활동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청년층 문화·여가 실태에 대한 청년층 인식 파악
		문화예술 참여활동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스포츠 관람활동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스포츠 참여활동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관광활동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취미오락활동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휴식활동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사회 및 기타활동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제약 경험	지난 1년간 여가활동 제약 경험	함께 즐길 사람의 부족으로 인한 제약 경험	청년층 문화·여가 실태 (제약) 파악
		비용 문제로 인한 제약 경험	
		시간 문제로 인한 제약 경험	
		공간 문제로 인한 제약 경험	
		여가활동에 필요한 경험, 지식, 정보나 도움의 부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한 제약 경험	
참여의사	제약이 없다면 여가활동 참여의사	8개 유형별 참여 의사	청년층 문화·여가 욕구 파악
		방식 (온라인/오프라인)	
		빈도	
		(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모두 선택)	
실태와 필요성 인식의 격차	1년에 한번 이상 2~3일 정도의 여행을 다녀오는 것	귀하가 생각하기에 ① 꼭 필요하다 ② 하면 좋다 지난 1년간 ① 하고 있다 ② 안(못)하고 있다	청년층 문화·여가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와 필요성의 인식 격차 간극 파악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있는 것		
	즐겨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1가지 이상 있는 것		
	즐겨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이 1가지 이상 있는 것		
	원하는 문화·여가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간접 경험하는 것		

8. 교육·훈련

가. 주요 현안, 이슈 검토, 문헌 고찰

□ 고등교육 이행 현황

○ 2021년 현재 고등교육(대학) 진학률(고등학교 졸업생 중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73.7%로 2001년 70.4%에 비해 3.6%포인트 증가하였음. 1991년에 33.1%에서 이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0년 후인 2001년에 70%를 넘어서게 되었음. 이후 2008년의 83.8%를 정점으로 다소 하락하면서 현재 수준에 이르게 되었음.

- 교육이 계층상향이동의 사다리라는 인식이 확고해지면서 이 기간 동안 대학진학률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 실제 우리나라 학력간 임금격차를 보면, 2017년 기준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할 경우 중학교 이하 75, 전문대학 115, 대학 145로 같은 시기 중학교 이하 81, 전문대학 121, 대학 138인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학력간 임금격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OECD, 2019)

○ 대학의 연령별 재적학생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령기라 볼 수 있는 24세 이하의 구성비가 계속 증가하다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음.

- 특히 19세 이하의 구성비가 2011년 29%에서 2021년 25% 수준으로 크게 감소(교육통계서비스 DB)하면서 대학 진학 연령이 지체되고 있음을 시사함.

○ 한편,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휴학률이 증가하고 있고 졸업유예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대 졸업생들의 진학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대학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실제 실제 학교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어 3년제 이하의 경우 36개월, 4년제는 62개월이 소요되고 있음.
- 대학업 후 취업에 이르는 기간은 3개월 이내 취업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9개월 이상 취업자 비율은 증가해 전체적으로 취업준비기간이 길어

지고 있음.

□ 대학생 학비조달 현황

○ 2021년 기준 전국 대학 등록금은 입학금 17만원, 수업료 595만원으로 2019년에 비해 입학금은 크게 줄었지만 수업료는 소폭 인상되었음(2019년 각 41.6만원, 약 588만원)(대학알리미, 각년도).

○ 한편,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대학 기준으로 2016년 328.7만원에서 2020년 335.2만원으로 6.5만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학자금 대출의 경우는 일반상환 기준으로 2019년 1학기 1인당 평균 276.5만원에서 2021년 1학기 318.5만원으로 증가해 장학금보다 학자금 대출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음(대학알리미, 각년도).

□ 비진학 청년 현황

○ 앞서 대학진학률이 70% 수준임을 확인하였는데, 30%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이른바 비진학 청년으로 분류됨. 김문길 외(2020)에 따르면 고졸이하 청년들이 다차원 빈곤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진학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 이 중 직업계고 졸업생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약 55%이 졸업생이 취업을, 나머지 45%는 진학을 각각 선택하였음(전년 대비 취업률이 증가, 진학률은 감소).

□ 교육·훈련 영역 청년정책 현황과 문제점

○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비롯한 일련의 대책들에서 교육과 훈련 영역의 다수의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이들 대책은 주로 대학생(장학금, 학자금대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어 미진학 청년이나 기 졸업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나. 교육·훈련 영역 조사 내용의 초점

□ 고등교육 진로 결정

○ 대학진학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파악

-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학력수준 등 배경변수 파악(개인사 영역 변수 활용)
- 사교육의 고등교육 진학 여부와 진학의 질(대학소재지, 전공계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사교육 경험에 대한 정보 파악

○ 대학진학을 통해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에 대한 인식 파악

□ 고등교육 이행 상황

○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진학과 졸업까지의 교육이행 과정이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정보 파악

- 휴학, 졸업유예 등 지연 경험여부, 경험이유, 경험에 따른 전망과 실태 파악
- 복수전공, 편입, 재입학, 대학원 진학 등 경험과 선택 사유 파악
- 전공관련 학업활동 이외의 일체의 활동 경험과 사유 파악

□ 미진학 청년 실태

○ 미진학 사유와 현실 인식 파악

○ 성인으로의 이행(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경험과 전망에 대한 인식 파악

○ 미진학 청년으로 살아가기에 대한 인상

□ 정책욕구

○ 교육과정별(재학생), 학력수준별(졸업생) 교육·훈련 관련 현행 정책에 대한 평가와 추가 욕구 파악

〈표 4-31〉 청년 교육 영역의 조사 내용의 초점

구분	내용
고등교육 진로결정	대학진학에 필요한 요소(경제력, 학력수준, 사교육 등)와 대학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파악
고등교육 이행 상황	고등교육 기관 이상의 진학(전문대에서 대학 진학, 대학 편입, 대학에서 대학원 진학 등) 및 재학의 동태성(휴학, 일경험, 연수, 훈련, 학원수강, 아르바이트, 근로 등 정규교과 이외 일체의 활동 상황) 파악
미진학 청년 실태	미진학 사유와 교육·훈련 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의 성인으로의 이행실태와 욕구를 파악
정책욕구	각 교육과정별, 학력수준별 교육·훈련 정책욕구 파악

다. 교육·훈련 영역 조사 내용의 개발

1) 기존 조사 검토

①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다수의 청년이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 생활을 경험하게 됨.

○ 2020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72.5%가 대학에 진학했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20)[12], 이러한 추세는 10년 넘게 지속되어 왔음.

□ 청년 조사에서 청년의 대학 생활에 대해 상세히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다수 청년이 대학 생활을 경험하고 있으며, 보통의 청년은 대부분 대학 교육 실태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또한, 고교 생활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대학 진학이며,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상 대학은 입직으로의 이행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됨.

○ 비진학을 선택한 청년에게도 그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진학 직전

12) 한국교육개발원. 2020.『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1.12.22. 인출.

의 고교 생활 및 교육의 만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청년의 교육·훈련 및 취업 준비 과정은 청년의 취업 상태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음.

○ 청년의 교육·훈련과 취업 준비는 장기화 된 청년 실업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음.

○ 취업 준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경로가 청년마다 다를 수 있고, 청년이 어떤 정보제공 주체에게서 도움을 받고,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

○ 안정적이고 노후보장이 되는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의 취업 준비 경향과 관련하여, 공무원 시험, 교사 임용 시험, 전문 자격 시험 등에 대한 준비 경험 비율 추이도 장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②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외 다른 기존 조사 검토

□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 한국장학패널(KOSAPS)

〈표 4-32〉 교육·훈련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조사명	년도	조사항목	검토 사항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020	등록금 마련 주된 방법	- 청년의 대학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을 승계 - 청년 취업으로의 이행과 관련성이 높은 문항을 선별 - 비진학 사유와 고교 교육 만족도 함께 조사
	2017-2020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건 미이수 경험	
	2018-2020	졸업 유예 이유	
	2018-2020	대학교육 만족도	
	2017-2020	대학 미진학 사유	
	2018- 2019	고교교육 만족도	
	2017-2020	공무원, 공단, 교원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 대학 생활 외의 취업 준비 과정 - 취업 준비 도움을 얻는 경로
	2019-2020	취업준비 도움 경로 및 도움 정도	
한국교육고용패널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한국장학패널			-

2) 신규 문항 개발

□ 신규 조사 문항을 개발한 경우

○ 고등교육 진로결정

- 기존 조사가 대학미진학 사유를 묻는 것과 달리 미진학 결정에 대한 영향요인 파악

○ 고등교육 이행 상황

- 전공관련 학업활동 이외의 일체의 활동 경험 여부와 그 경험의 효용성 또는 기대되는 점 파악
- 재진학, 재입학, 편입, 대학원 진학 등 고등교육 단계 내에서의 동태성 및 그 사유와 기대되는 점 파악

○ 미진학 청년 실태와 정책인식(욕구)

- 미진학자로써 경험하는 차별, 낙인감 등에 대한 경험여부와 관련 인식
- 교육훈련계좌 등 정책방안에 대한 인식

□ 신규 문항 활용 방안

○ 교육·훈련 영역에서 청년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존의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들과의 관계(상관관계,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

3) 청년 (영역명) 영역 조사항목 구성(안)

〈표 4-33〉 교육·훈련 영역 조사표 구성(안)

개념			조사 목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학 생활	등록금	등록금 마련 주된 방법	개인(가구)의 부담 정도 파악
	졸업 유예 경험 및 사유	졸업 유예 경험	교육이행 상황 파악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졸업 유예 이유	
	대학교육 만족도	대학교육 만족 정도	대학교육 성과(비용대비 편익) 평가
		대학교육이 인생에 도움을 주는 정도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	
		선택 학과(전공)의 적합 정도	
비진학	비진학 사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주된 이유	고등교육 소외 요인 파악
취업·시험 준비	준비 경험	공무원, 공단, 교원임용시험, 국가전문시험 준비 경험 여부와 사유	이른바 '공시족' 규모와 원인 파악
	취업 준비 도움	취업 준비 도움 경로별 경험 여부	취업진로서비스 관련 정책 함의
		취업 준비 도움 경로별 도움 정도	
고교 생활	고교교육 만족도	고교교육 만족 정도	비진학 청년 교육 욕구 파악
		고교교육이 인생에 도움을 주는 정도	
		고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	
		선택 문/이과 혹은 전공계열의 적합 정도	
정책욕구	교육정책	현재 청년정책 내 교육관련 정책 인지, 경험, 만족도 및 추가 욕구	정책평가와 정책욕구 파악
	훈련정책	현재 청년정책 내 훈련관련 정책 인지, 경험, 만족도 및 추가 욕구	

9. 가치관·사회인식·미래설계

가. 주요 현안, 이슈 검토, 문헌 고찰

□ 청년의 시민성(citizenship)과 사회 인식

○ 이행기 과업을 완수하고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자립한 청년은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됨. 시민성은 “일반 시민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가치관, 행동 양식, 기질 따위의 특성”으로서[13], 「대한민국헌법」에 의한 국민의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의무를 지게 됨.

○ 시민으로서의 청년이 갖는 개인 수준의 선택의 자유와 비교성향, 차별 인식과 경험, 사회적 수준의 사회적 자본, 공정성 인식, 갈등과 정부의 역할 등 다층적인 가치관과 사회에 대한 인식 구조를 파악하여, 구성원이 연대하는 공동체와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현세대 청년이 바라는 미래 설계

○ 현세대 청년은 기존 세대의 경험을 자신의 미래상으로 참조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놓임.

- 그러므로 청년정책은 (1) 자신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2) 주어진 여건에서 이를 실현해나가면서도 (3) 위기와 역경을 탄력적으로 극복해 자신의 궤도로 회복하여 시간 흐름 속에서 (4) 결국 양질의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향함.

○ 자립한 성인에게 기대되는 과업은 교육 수준, 경제활동, 경제력, 관계 형성, 사회참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각각에 따른 세부과업은 개인이 바라는 삶의 선호에 따라 상이하게 배열될 수 있음.

○ 현세대 청년이 누리는 행복 수준과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통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에 여건이 부족하거나 결핍

13) 국립국어원 우리말샘(https://opendic.korean.go.kr/search/searchResult?query=%EC%8B%9C%EB%AF%BC%EC%84%B1에서 2021.12.11. 검색)

된 집단이나 정책 영역을 식별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정책 구현에 참조할 수 있음.

나. 청년 가치관·사회인식·미래설계 영역 조사 내용의 초점

□ 시민으로서의 청년이 갖는 개인 수준의 가치관과 사회에 대한 인식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청년의 시민성과 사회 인식을 조사하고자 함.

○ 또한 미래 설계 영역에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놓인 청년이 바라는 미래상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여건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조사 목적과 쟁점 고려

○ 청년의 가치관, 사회인식, 미래 설계를 파악하여 미래지향적인 청년지표 생산에 활용하면서 현세대 청년의 취약성과 고유한 특성, 그리고 심각성을 식별하고, 대상자이자 파트너로서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과정을 고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표 4-34〉 청년 가치관·사회인식·미래설계 영역의 조사 내용의 초점

구분	내용
능력주의, 공정성 담론	청년의 능력주의와 공정성 인식 진단을 위한 설문모듈 개발
환경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청년층 인식
사회보장제도, 청년정책	환경변화의 정책대응력 평가 인식
청년의 시민성(citizenship)과 사회 인식	시민으로서의 청년이 갖는 개인 수준의 가치관과 사회에 대한 인식 구조를 파악
미래설계	기존 세대의 경험을 자신의 미래상으로 참조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놓인 청년이 바라는 미래상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여건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중요도와 비교하여 미래 전망과 여건의 괴리가 존재할 경우 이를 메울 수 있는 정책 방안이나 행복 수준이 과도하게 낮은 등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 유형을 발견할 경우 새로운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

다. 청년 가치관·사회인식·미래설계 영역 조사 내용의 개발

1) 기존 조사 검토

□ 기존 세대의 경험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세대 청년의 가치관과 사회인식, 미래설계 영역의 조사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일정 정도 검증된 주요 조사를 검토하였음.

①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선호하는 가치로서 일과 여가, 현실과 이상, 결과와 과정, 개인과 집단의 대립하는 가치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 사회의 구체적인 이슈와 정부 역할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과 요건을 갖춘 정도를 질문하고 있는데, 행복한 삶은 공공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되, 개인 단위의 삶의 양상과 실태를 우선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행복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② 갤럽월드폴, 세계가치관조사

□ 2005년 이후 전 세계 15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과 1980년 이후 5년 주기로 주요 국가의 조사자료를 생산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등에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리로서 선택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음.

○ 세계가치관조사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회 신뢰와 다양한 집단 간 갈등 정도에 대한 인식 문항을 조사하고 있음.

③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에서는 소득분배, 빈곤층 지원, 교육, 기업 규제 등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범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음.

④ 아이오와-네덜란드 비교성향척도

□ 아이오와-네덜란드 비교성향척도는 타인과 비교하려는 성향이 강한 경우 갈등과 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개인 단위의 비교성향을 파악하는 구조화된 문항 세트로, ①살면서 이룬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한다, ②종종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③다른 사람들과 나를 잘 비교하지 않는 편이다, ④비슷한 문제에 처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 ⑤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자 한다, ⑥궁금한 무언가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의 세부질문을 포함함.

⑤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0년에 실시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에서 두뇌와 능력, 일과 관련된 기술, 노력, 경력 등을 이유로 개인이 한국사회에서 받는 대우를 얼마만큼 공정하게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바 있으며, 개인 단위의 공정성 경험에 대한 문항으로 활용할 수 있음.

⑥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인권위원회에서 2020년에 수행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수성 및 취약 경험을 이유로 하는 차별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바 있으며, 청년의 실태에 비추어 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세분화할 수 있음.

⑦ 한국 청년 가치관 조사,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2016년에 수행한 “한국 청년 가치관 조사”에서는

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 대인관계, 경제활동을 위한 일자리, 내가 원하는 일자리의 요소를 통해 삶을 통해 실현하기를 꿈꾸는 삶의 요소와 요소별 실현 가능성 전망, 그리고 꿈꾸는 삶을 실현하기에 중요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자신이 갖추고 있는 정도를 질문한 바 있음.

○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에서도 2019년 사회불평등 모듈에서 삶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문항을 조사하였음.

⑧ OECD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

□ OECD에서 2013년에 공개한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에 따르면, 행복을 측정하는 핵심지표로서 삶의 평가, 삶의 만족, 어제 느낀 행복감, 삶에 대한 가치 평가 등을 제시함.

〈표 4-35〉 가치관·사회인식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조사명	년도	조사항목	검토 사항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017~2020	선호하는 가치	일과 여가, 현실과 이상, 결과와 과정, 개인과 집단의 대립하는 가치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바, 구체화 필요
Gallup World Poll	2005~2020	선택의 자유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로서 선택의 자유에 대한 인식
World Values Survey	1980~2020	사회 신뢰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문항
		갈등 인식	다양한 집단 간 갈등 정도에 대한 인식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2019	정부의 역할	소득분배, 교육 등 정부 기능 및 역할의 범위에 대한 인식
아이오와-네덜란드 비교성향척도	1999	비교성향	타인과 비교하려는 성향이 강한 경우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므로 개인 단위의 비교성향을 파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2020	공정성 인식	자신이 가진 것에 비해 받는 대우 등 공정성에 대한 인식
인권위원회,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20	차별 인식 및 경험	소수성을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인식과 경험

〈표 4-36〉 미래설계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조사명	년도	조사항목	검토 사항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017~2020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및 요건을 갖춘 정도	행복한 삶은 공공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되, 개인 단위의 삶의 양상과 실태를 우선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행복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 청년 가치관 조사	2016	바라는 미래 상과 실현가능성, 여건 중요성 인식 및 실태	청년 개인이 자신의 미래에서 살기를 바라는 삶의 형태와 실현가능성 인식,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에 필요한 여건에 대한 인식과 실태의 문항세트를 구성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사회불평등 모듈	2019	여건 중요성 인식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에 필요한 여건에 대한 인식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2013	주관적 웰빙 (subjective well-being)	주관적 웰빙은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임. 주어진 여건에서 위기를 극복하며 바라는 삶을 실현하고 양질의 삶을 누림으로써 청년은 결국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정책 지향을 반영

2) 신규 문항 개발

□ 현세대의 사회인식을 조사하는 기존 문항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청년의 삶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또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음.

○ 특히 미래 설계에 대한 문항은 현세대 청년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양상들을 세분화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신규 문항 개발의 근거

○ (사회 인식) 차별 인식과 경험

- 다양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성별이나 나이, 인종과 계층, 지역 등 특정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소수성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 구별이 만연하고 있음. 보다 다양한 측면의 정체성을 고려한 차별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개인 차원에서 경험한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회 인식) 갈등 인식

- 한국 사회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 간 대립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집단 간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짐. 하지만 특정 집단이 경험했다고 보고하는 극단적인 갈등 양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청년이 인식하는 다양한 집단 간 갈등 전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사회 인식) 미래 한국과 사회경제적 변화

- 기술과 노동시장 환경, 기후 등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환경 전반에 대한 청년의 인식과 미래 한국에의 영향에 대한 청년의 전망을 파악하고자 함.

○ (미래 설계) 바라는 미래와 실현가능성 전망

- 청년 개인이 자신의 미래에서 살기를 바라는 삶의 형태와 실현가능성 인식의 문항세트를 구성함. 미래를 바라고 실현할 수 있다면 청년은 자립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바라는 삶을 실현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면 희망과 전망의 괴리를 조정할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 (미래 설계) 바라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 중요성과 실태

- 바라는 삶을 실현하기에 필요한 여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여건의 실태에 앞서 각 요인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며, 문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국제비교도 가능함.
- 바라는 삶을 실현하기에 필요한 여건의 실태를 조사함. 중요도와 비교하여 미래 전망과 여건의 괴리가 존재할 경우, 이를 채울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음.
- 주관적 웰빙 모듈을 활용하여 청년이 누리는 행복 수준을 측정함.

〈표 4-37〉 가치관·사회인식·미래설계 영역의 신규 문항 개발

개념			문항	척도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치관	개인차원 공정성 인식	부당 이득에 대한 사회 인식	지난 1년간 직장이나 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귀하의 희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5점	[신규] European Social Survey Question Module Design Application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인식	지난 1년간 귀하의 직장의 고용주에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5점	[신규] European Social Survey Question Module Design Application
	정의에 대한 인식	결과의 정의	귀하의 월평균 근로소득에 대한 공정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9점	[신규] European Social Survey Question Module Design Application
			귀하가 공정한 수준이라 생각하는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open	
		기회의 정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나는 [내가 원하던 수준까지 교육받을, 내가 찾던 직업을 얻을] 공평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10점	[신규] European Social Survey Question Module Design Application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교육수준을 달성할, 그들이 찾는 직업을] 얻을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사회 인식	차별 인식과 경험	차별 인식	귀하는 다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만큼 심하다고 느끼십니까?: 여성 또는 남성, 성소수자, 종교, 장애, 나이, 직업이나 소득 등 경제적 지위, 비정규직, 출신지역, 인종·피부색·출신국가출신민족, 신체조건, 혼인상황,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과 학벌, 질병이나 병력	4점	인권위원회,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차별 경험	귀하는 다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 또는 남성, 성소수자, 종교, 장애, 나이, 직업이나 소득 등 경제적 지위, 비정규직, 출신지역, 인종·피부색·출신국가출신민족, 신체조건, 혼인상황,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과 학벌, 질병이나 병력	2점	
	갈등 인식	주요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귀하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십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기업가와 근로자, 부유층과 서민층, 수도권과 비수도권, 남성과 여성, 진보와 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국인과 외국인	4점	World Values Survey
	미래 한국과 사회경제	미래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귀하는 다음의 상황들이 미래 한국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십니까?: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통일안보, 기술 변화, 산업구조 변화, 테러리	4점	-

개념			문항	척도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인식	즘, 기후 변화, 감염병 위기		
	불평등 인식	우리사회 불평등 정도,	귀하는 우리나라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몇 배 더 많이 벌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4배 이하, 4~5배, 5~6배, 6~7배, 7배 이상	-	신규
		이상적인 분배상태	귀하는 어떤 분배 상태에 있는 나라에서 살고싶으십니까?: 4배 이하, 4~5배, 5~6배, 6~7배, 7배 이상	-	신규
미래 설계	바라는 미래	교육 수준, 경제활동, 경제력, 관계 형성, 사회참여 등 바라는 삶의 요소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귀하의 삶에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바라고 계십니까?: 연애, 결혼, 자녀 출산과 양육, 높은 학력수준, 취업 혹은 창업, 내가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 많은 자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 기여, 명예, 권력	4점	[신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 청년 가치관 조사
		바라는 미래 실현가능성	귀하께서는 귀하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점	
	바라는 미래 실현을 위한 여건	16개 여건에 대한 중요성	귀하가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다음이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인맥, 나의 교육수준, 내가 타고난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성실함, 나의 사교성, 창의적 사고, 글로벌 역량, 선택의 자유, 운, 뇌물을 주는 것, 롤모델이나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정책 지원, 성별	4점	
		16개 여건의 실태	귀하가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데 다음의 항목을 얼마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인맥, 나의 교육수준, 내가 타고난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성실함, 나의 사교성, 창의적 사고, 글로벌 역량, 선택의 자유, 운, 뇌물을 주는 것, 롤모델이나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정책 지원, 성별	4점	
	주관적 웰빙	삶의 평가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귀하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귀하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귀하는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점	OECD(2013)
		삶의 만족	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1점	
		행복감	귀하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까?	11점	
		삶의 가치 평가	귀하는 귀하가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점	
		선택의 자유	귀하는 귀하의 삶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11점	

□ 신규 문항 활용 방안

○ 청년의 시민성(citizenship)과 사회 인식

- 청년은 정책의 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가치관과 사회 인식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인식 구조를 확인하여 정책 파트너로서 협업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함.

○ 현세대 청년이 바라는 미래 설계

- 현세대 청년이 바라는 미래의 상은 주어진 여건의 범위 내에서 상상할 수 있거나 바라는 미래의 상에 따라 현재의 여건을 선택해나가고 있을 수 있는 양방향의 관계가 가능함.
  - 따라서 바라는 미래 모습과 실현가능성의 잠재집단을 확인하여 성별, 거주지역, 소득수준 등 하위 집단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주어진 여건이 미래를 상상하는 데에 제약으로 작동하는지, 혹은 개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해 살아가고 있는지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음.
-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여건의 중요성 인식과 실태의 차이를 성별, 거주지역, 소득수준 등 하위 집단에 따라 비교함으로써 바라는 미래를 살아가는 자립에 취약한 청년의 잠재 집단을 식별할 수 있음.
- 주관적 웰빙 측정 모듈을 활용해 행복 수준이 과도하게 낮거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 청년 집단을 발견하여 정형적인 유형의 취약계층이 아닌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 유형을 탐색할 수 있음.

3) 청년 (영역명) 영역 조사항목 구성(안)

〈표 4-38〉 가치관·사회인식·미래설계 영역 조사표 구성(안)

개념			조사목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치관	개인차원 공정성 인식	부당 이득에 대한 사회 인식	공정성 인식 파악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인식	
	정의에 대한 인식	소득 결과의 정의	정의에 대한 인식 파악
		교육과 직업의 기회의 정의	
	비교성향	타인과 비교하려는 성향	현세대 청년의 남과 비교하려는 성향 및 정도 파악
사회 인식	사회 신뢰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수준 파악
	차별 인식과 경험	소수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인식	차별 인식 및 경험 파악
		소수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 경험	
	갈등 인식	주요 집단 간 갈등 정도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 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 파악
	정부의 역할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파악
	미래 한국과 사회경제적 변화	미래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인식	미래세대인 청년의 미래 전망 파악
	불평등 인식	우리사회 불평등 정도	불평등 인식 파악
		이상적인 분배상태	
미래 설계	바라는 미래	교육 수준, 경제활동, 경제력, 관계 형성, 사회참여 등 바라는 삶의 요소	①현세대 청년들의 미래상 파악 ②세부 집단별 청년들의 미래상 차이 파악 ③조사 결과를 누적하여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상의 변화 파악
		바라는 미래 실현가능성	①청년의 미래 희망 정도 파악 ②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전망하는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 유형 발굴
	바라는 미래 실현을 위한 여건	16개 여건에 대한 중요성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 파악
		16개 여건의 실태	중요도 대비 부족/결핍된 여건을 파악하여 정책 아젠다 도출
	주관적 웰빙	삶의 평가(Cantril Ladder)	①현세대 청년의 행복 수준 및 격차 파악 ②행복 수준이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 유형 발굴
		삶의 만족	
		행복감	
		삶의 가치 평가(Eudaimonia)	
		선택의 자유	

10. 개인사

가. 개인사 영역 조사 내용의 초점

□ 본 연구에서는 청년 삶 실태에 대해 주로 논의하면서도 청년 삶 실태의 배경 요인을 함께 파악하고자 했음.

□ 이러한 취지에서 **'개인사'** 영역에서는 청년의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생각에 대해 질문함.

○ 청년의 어린 시절 경험과 배경을 파악하고, 어린 시절 가정 내, 학교 내의 폭언 및 폭력 경험에 대해 질문함. 또한 경제적 사유로 겪는 박탈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질문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음.

○ 또한, 현재 청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인식 문항을 함께 배치하여, 청년이 현재 거주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생각을 확인하고자 함.

□ 청년의 유년 시절 경험과 폭력이나 박탈 상황에 노출된 경험 등을 살펴보고, 청년의 유년기 성장 배경 및 실태를 진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개인사 영역 조사 내용의 개발

1) 기존 조사 검토

①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다양한 청년 삶의 영역에서 관찰가능한 청년의 현재 상황에 대한 문항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청년의 과거 경험이나 개인사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음.

② 한국복지패널

□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가구주의 개인사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며, 해당 문항을 활용하여 청년의 어린 시절 성장 배경에 관한 문항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박탈 경험 등에 대한 수정 문항을 구성하였음.

③ 학교폭력실태조사

□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학생의 폭력 경험이나 폭력 상황의 목격 경험에 대해 질문하고 있음. 이를 활용하여 청년의 어린 시절 교내 폭력 경험이나 가정 내의 불화와 폭언 및 폭력 경험에 대한 수정 문항을 구성하였음.

○ 이 부분의 문항은 크게 부모님과의 관계 및 경험, 학교 및 또래집단에서의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39〉 개인사 영역의 기존 조사 검토

조사명	년도	조사항목	검토 사항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성장 지역	- 청년의 성장 배경 중 가구 요인에 관한 문항
		가구의 경제 상태	
		15세 시점의 부모님 주된 직업	
		경제적 이유로 인한 박탈 경험	- 청년의 성장 배경 중 경제적 요인에 관한 문항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각 년도	부모님과의 관계 및 경험	- 청년의 성장 배경 중 가구 요인에 관한 문항
		학교 및 또래집단에서의 경험	- 청년의 성장 배경 중 또래집단 요인에 관한 문항

2) 신규 문항 제안

□ 현재 사는 지역에 대한 인식 문항은 청년의 물리적 이동의 역동성과 그 이유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고향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주된 이유와 현재

지역에서 이사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청년의 주관적 생각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음.

3) 청년 (영역명) 영역 조사항목 구성(안)

〈표 4-40〉 개인사 영역 조사표 구성(안)

개념			척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인사	아동기 상황	아동기 성장 지역	4개 범주
		아동기 가구 경제적 상태	5점 척도
	아동기 부모님 직업	15세 시점, 아버지의 주된 직업	16개 범주
		15세 시점, 어머니의 주된 직업	16개 범주
	아동기 박탈·폭력 경험	부모님과의 관계 및 경험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경험	
		학교 및 또래집단에서의 경험	
	현재 사는 지역의 고향 여부	고향 여부	
		이사오게 된 이유	
	현재 사는 지역에 대한 인식	계속 살고 싶은지 여부	
		이사하고 싶은 이유	

11. 청년정책

가. 청년정책 영역 조사 내용의 개발

□ 청년정책 영역의 조사 문항은 영역별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수혜 여부, 도움 여부를 질문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정책은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참고로 했음.

○ 인지 여부는 ①알고 있음, ②알고 있지 못함으로 응답함.

○ 수혜여부는 ①수혜를 받은 적이 있음, ②신청을 한 적이 있으나 수혜를 받은 적이 없음, ③신청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함으로 응답함.

○ 도움여부는 ①매우 도움되었음, ②도움이 되었음, ③도움이 되지 않았음, ④전혀도움이 되지 않았음으로 응답함.

□ 청년정책 영역의 조사표 구성(안)은 다음과 같음.

〈표 4-41〉 청년정책 영역 조사표 구성(안)

개념			조사목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거		1) 행복주택	영역별 청년정책 인지여부, 수혜여부, 도움여부 인지 및 경험실태 파악
		2) 청년 전세임대	
		3) 청년 매입임대	
		4) 행복기숙사	
		5) 신혼희망타운	
		6)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7) 전월세 대출지원	
		8) 주택 구입 지원	
		9) 긴급주거 지원제도	
		10) 주거급여	
건강		1)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2) 청년 국가건강검진	
일자리		1) 국민취업지원제도	
		2) 청년내일채움공제	
		3) 청년창업사관학교	
		4) 청년창업펀드	
복지·문화		3) 청년희망키움통장	
		4) 청년저축계좌	
		5) 햇살론 유스 (Youth)	
		7) 문화누리카드	
교육·훈련		1) 국가장학금	
		2) 국민내일배움카드	
		3) 평생교육바우처	

제5장

청년 삶 실태조사 최종 설계안 및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제언

제1절 조사설계 방안
제2절 예비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 검토 사항

제 5 장 청년 삶 실태조사 최종 설계방안 및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제언

제1절 조사설계 방안

1. 조사설계의 원칙

□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조사설계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함.

○ 첫째, 법정조사의 일반적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함.

- 통상 법정조사의 경우 소득, 재산 등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정책대상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들의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는 목적을 가짐. 이에 본 조사도 이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표본 설계, 조사 방법, 조사 문항 등을 제안하였음.
- 또한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새로운 청년정책 환경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구성함.
-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대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조사방법을 제시함.

○ 둘째,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조사내용을 포괄하도록 함,

- 청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 소득, 자산, 부채, 지출 등 청년가구의 경제상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 주거, 소비생활 등 청년층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 청년의 취업상태, 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역

량개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 청년의 여가와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건강과 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괄되도록 문항을 구성함.
- 청년 삶의 동태성을 반영하기 위한 수시조사 방안을 제시함.

○ 셋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발표된 청년지표(Youth Life Index) 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청년의 지속가능한 입체적 삶의 기준선을 제시하고, 청년의 삶 전반(삶의 궤적과 여건)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지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과 조사문항을 구성함.

〈표 5-1〉 법정조사 목적,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청년 삶 실태조사 관련 내용, 청년지표개발 목적

구분	내용
법정조사의 목적	- (정책적 활용) 소득·재산 등 자산조사(means-test)를 전제로 하는 정책대상 규모 추정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생산 - (정부 수요) 각 정책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대응 - (현안 대응) 새로운 정책 환경 및 영향 분석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기본계획에는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청년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청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 연령 · 학력 · 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 지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 · 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상태 · 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 교육 · 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놀이 · 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 건강 · 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소관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청년지표 목적	- 청년의 지속가능한 입체적 삶의 기준선 제시 - 청년의 삶의 궤적과 삶의 여건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지표 제시

2. 표본설계 방안

□ 본 연구에서는 표본규모 10,000가구와 15,000가구 두 가지 방안에 대한 표본설

계 방안을 제시하였음. 15,000가구 표본설계 안은 다음과 같음.

□ 목표모집단

○ 2021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일반가구 내의 만 19~34세 가구원임. 만 19~34세 가구원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가구만 해당함.

□ 조사모집단

○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중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지역 조사구 등은 제외한 조사구(일반조사구, 아파트조사구)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임.

- 본 연구 현재 시점에서 활용가능한 조사모집단은 2019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가구이나, 2022년 본 조사에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가구를 모집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별도 설계 필요).

□ 표본 크기 결정

○ 목표 표본크기는 단순임의확률추출 가정에서 모비율 추정의 최대 허용 표본오차를 고려하여 산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15,000가구로 결정함. 95% 신뢰수준 하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0.80%p임(10,000가구의 경우 ±0.98%p)

□ 표본배분

○ 통계작성 단위인 시도별 표본 조사구의 배분은 층별 만 19~34세 청년인구 규모에 대한 제곱근비례배분법을 기반으로 하여 최종 방안을 마련하였음.

- 동부와 읍·면부 구분별 표본배분은 2019 인구총조사 결과의 만 19~34세 인구 규모(청년)를 기준으로 한 비례배분법을 적용

○ 표본조사구에서의 목표 표본가구는 동부 8가구, 읍·면부 6가구로 설정

- 표본조사구 당 15~16가구를 계통추출법에 따라 표본가구 선정. 단, 가구수는 본 조사 시 조사예산, 실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함.

○ 표본설계에 의해서 추출되는 1차 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 수는 1,978개(동부:

1,588개, 읍·면부: 390개)임.

3. 조사 방법

□ 조사 방법과 관련된 핵심 사항은 조사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가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의 문제임.

○ 두 가지 사항 중 보다 핵심적인 것은 조사단위를 가구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라 할 수 있음.

○ 조사단위를 가구로 할 경우에는 원가구와 떨어져 살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청년을 개별 가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가구로 보지 않고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원가구의 가구원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임.

□ 첫 번째 사항에서 보다 이상적인 방식은 가구단위 조사임.

○ 이 경우 가구조사를 통해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각각의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도 얻는데 용이함.

- 예컨대 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으로 세분하여 파악할 수 있고, 지출도 세부 항목별 지출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이 경우 가구조사와 개인조사를 병행하게 됨에 따라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가구의 경우는 2명 이상의 대상자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둘 중 한명이 부재한 경우는 재방문에 따른 시간 소요, 유치조사에 따른 조사의 정확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두 번째 사항은 앞서 서술한 것과 두 방식 모두 비슷한 표집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없음.

○ 다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따로 사는 청년을 조사대상으로 할 경우 (household 개념) 조사구에서 표집해서 조사가 되고, 원가구를 조사구에서 표

집해서 조사가 되는 이중 조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사례).

□ 결과적으로 가구단위 조사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가구주와 청년 가구원을 모두 조사해야 할 경우에는 조사비용과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음. 특히 기본계획 수립 일정과 연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따라서 조사기간 단축과 조사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개인단위 조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함.

○ 원가구의 경제상황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가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재차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이 있음.

- 위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원가구의 가구주에게 웹조사를 하는 방법, 원가구 거주지역의 조사원에게 이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후자의 경우 조사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 조건이 부가됨.

□ 한편, 가구단위 조사를 할 경우에도 조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음.

○ 따로 떨어져 사는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조사원에게 조사를 이관하는 방법이 있음. 단, 이 경우 전국단위 조사체계(지역의 소속 조사원)를 갖춘 조사기관을 선정할 필요(조사기관 선정시 고려사항)

- 위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따로 사는 청년에 대해서는 이메일 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음. 그러나 원가구에서 따로 사는 청년의 이메일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4. 조사표 구성

□ 조사표는 크게 1) 일반사항, 2) 경제, 3) 노동, 4) 주거, 5) 건강, 6) 참여 및 관계, 7) 문화·여가, 8) 교육·훈련, 9) 가치관·사회인식·미래설계, 10) 개인사, 11) 청년정책의 영역으로 구분됨.

□ 각 영역의 조사 내용은 주요 현안, 이슈 검토, 문헌 고찰을 통해 조사 내용의 초점을 도출하여, 조사 내용이 개발되었음.

□ 이 과정에는 기존 조사의 검토와 신규 문항의 개발이 포함되었으며, 신규 문항의 개발은 신규 문항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물론, 이러한 과정의 전후에는 연구진, 각 영역별 및 청년연구 전문가, 예비조사를 통한 조사 내용의 수정 보완 작업이 포함되었음.

□ **예비조사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부당노동경험, 자살, 경험약물 등 상대적 민감도가 높을 수 있는 문항은 각 영역별 후반부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문항들은 의료패널 등 기존 승인통계조사에서 포함하고 있는 문항으로 제외를 검토할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봄.**

○ 조사 효율성을 위해 본조사에서 문항 수 축소를 고려한다면, 예비조사 분석 결과를 일부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영역별 조사항목 구성(안)은 다음과 같음.

〈표 5-2〉 일반사항 영역 조사표 구성(안)

개념			척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구 일반사항	가구원 정보	가구주와의 관계	9개 범주
		가구원 성별	
		가구원 생년월	
		조사 대상자 여부	
		가구원의 교육수준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9개 범주
		가구원 장애 유무 및 정도	
		가구원 혼인 상태	5개 범주
		가구원의 공적연금 가입 형태	
		가입한 연금 제도	6개 범주
		국민연금 가입 유형	
	가구 정보	가구원 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	

〈표 5-3〉 경제 영역의 조사항목 구성(안)

개념			척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구 지출	총생활비		연속
	식비		연속
	주거비	월세	연속
		주거관리비	연속
	교육비	공교육비	연속
		사교육비	연속
	통신비		연속
	교통비		연속
	의료비		연속
	문화여가비		연속
가구 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연속
	공적이전소득	전체	연속
		고용보험	연속
		산재보험	연속
		근로장려세제	연속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연속
		기타 정부 보조금	연속
	사적이전소득		연속
	가구총소득		연속
부채 및 재산	부채 총액		연속
	학자금부채		연속
	주택관련 부채		연속
	생활비 부채		연속
	월평균 이자		연속
	금융채무불이행 유무		2점척도
	금융재산		연속
	기타 부동산 및 재산		연속

〈표 5-4〉 노동 영역 조사표 구성(안)

개념			척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제활동상태	지난 주 경제활동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한 일 여부	
		가족무급종사자 판별	
		일시휴직자 판별	
		일시휴직 사유	
	복수일자리	복수일자리 여부	
		복수일자리 수	
		복수일자리 선택 이유	
		복수일자리 근로일수, 근로시간, 소득, 직업	
		복수일자리 중 주된 일자리	
		복수일자리 중 주된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이유	
		복수일자리를 가진 이유	
주된 일자리 특성	고용형태	자영업 여부	
		근로계약작성 및 기간	
		임금산정방식	
		파견 및 용역 구분	
		일 경험	
	일자리 기본 정보	산업, 직업	
		사업장 규모	
		직업	
		일 시작 시기	
	구직경로	고용센터 포함 구직 경로	
		플랫폼 노동 구분	
	시간제	시간제 일자리	
		시간 관련 추가 일자리 원하는지	
		시간 관련 추가 일자리 취업 가능 여부	
		시간관련 추가 일자리 구직 여부	
	근로기준법 적용	야간,연장,휴식, 휴일 관련 근로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적용	
		초장시간 근로	
		서면 근로계약 작성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주당 근로시간	
	근로소득	3개월 평균 소득	
		주휴수당 적용	
	노동조합	노동조합이나 산별노조, 유니온 가입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전반적 만족도	5점
		하고 있는 일의 내용	5점
		사회적 공헌, 봉사 및 사회적 인정	5점

개념			척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기발전의 추구	5점
		임금과 수입	5점
		업무시간(길이)	5점
		고용의 안정성	5점
		일의 자율성과 권한	5점
		장래가 유망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직장	5점
		사무실(작업장)의 물리적 근로환경	5점
		직장동료(상사포함)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사회적 근로환경)	5점
		일과 삶의 양립	5점
	숙련 기술	읽기 (작업지시서나 설명서, 이메일, 문서, 관련 잡지, 서적 등)	5점
		문서 작성 (메모, 이메일이나 업무 보고서 등 문서를 작성)	5점
		계산 (가격, 비용, 예산, 비율 등)	5점
		수학이나 통계 사용(방정식, 수학공식을 사용하거나, 미적분, 삼각함수, 회귀분석 등)	5점
		컴퓨터 사용 (PDA기기 포함)	5점
		인터넷 사용 (이메일, 자료 검색, 구매, 판매, 은행업무 등)	5점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 사용(엑셀 등)	5점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사용	5점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 및 편집	5점
		타인을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활동	5점
		회사(조직) 내부나 외부 사람들과 협상	5점
		해결책을 찾는 데 5분 이하 시간이 걸렸던 비교적 단순한 문제 직면	5점
		해결책을 찾는 데 30분 이상이 걸리는 비교적 복잡한 문제 직면	5점
	업무 수준 평가	교육수준 대비 업무 내용	5점
		기술(기능)수준 대비 업무 내용	5점
		전공 대비 업무 내용	5점
	일자리의 자율성	일하는 시간	4점
		일하는 장소	4점
		일의 양	4점
		일하는 순서	4점
		일의 내용	4점
	일과 삶의 균형	유연근무제 실시	
		유연근무제 이용 여부	
		유연근무제 사용하지 않는 이유	

개념			척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근로 장소	
		일-생활 중 우선시 하는 것	
	일자리 관련 혜택	국민연금 가입	
		특수직역연금 가입	
		국민건강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	
		산재보험 가입	
	일자리의 안정성	일하는 시간의 길이 지속성	5점
		일하는 시간대 지속성	5점
		소득 지속성	5점
		하는 일 지속성	5점
		나는 향후 6개월 안에 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5점
		현재의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더라도 나는 비슷한 임금을 주는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점
	일의 미래	내가 하는 일은 가까운 미래에 기술변화로 사라지게 될 일이다.	5점
		내가 하는 일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다.	5점
		귀하는 가까운 미래에 직장(직업)을 잃거나 직장(직업)을 바꾸어야 한다는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지난 12개월 동안 원치 않는 이유로 소득 없이 쉰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몇 세까지 지금 하는 일이나 유사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직 의향	일자리 선택의 자발성	현재 일자리 선택 배경	
		일자리를 선호하는 이유	
	이직 의향	이직 의향	
		이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구직	구직활동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지난 주 일 가능 여부	
		구직 기간	
		지난 주 직장(일)을 원하였는 지 여부	
		지난 주 일 시작 가능 여부	
		취업을 원하면서 구직하지 않는 이유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희망하는 소득수준	
		희망하는 근로시간	
		희망하는 산업	

개념			척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희망하는 직업	
미취업자	활동상태	지난 주 활동상태	
	이전 취업 경험	이전 취업 경험 여부	
		최근 일자리를 그만 둔 시기	
		최근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 근로시간, 산업, 직업	
		일을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실업급여 인식	
		실업급여 수급 여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	
근로 환경 경험	위험한 근로 환경	업무상 상해 경험	
		산재경험	
		과중한 업무량 경험	5점
		혼자서 일하는 괴로움과 무서움 경험	5점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	5점
		성과와 만족도(별점 등)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	5점
		일에 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음	5점
		감정을 숨기고 고객이나 환자, 학생 응대	5점
		안전, 보호 장비 미비	5점
		신체적 폭력 경험	
		성희롱 경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 절차 유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상담하거나 고충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담당자 또는 담당 창구 유무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여부	

〈표 5-5〉 주거 영역 조사표 구성(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여부	부모동거 여부	
	부모 동거 가구의 독립 계획	(동거) 분가 경험 여부	
		(동거) 다시 부모동거 이유	
		(동거) 독립할 구체적 계획	
		(동거·독립계획유) 독립할 이유	
		(동거·독립계획유) 독립가능시기	
		(동거·독립계획무) 계획없는 이유	
	부모 비동거 가구의 독립	(비동거) 비동거 이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현황	(비동거) 주거이력		
		(비동거) 현재 거주 주택 선택 이유		
주거비	주거비	(자가) 주택 가격		
		(임차) 보증금 및 월세		
		주택 관련 부채 및 관련 이자. 그 외 주거 관리비		
		임차료 및 대출금 본인 지불 여부		
		임차료 및 대출금에 대한 부담 정도		
주거일반사항	점유 형태	점유형태		
	주택 유형	주택 유형		
	주택 위치	주택 위치		
	방 개수	방		
		거실		
		식당		
	전용 면적	본인이 사용하는 방 면적		
		집 전체 면적		
주거환경	주택 내부 시설 사용 형태	부엌	화장실	
		샤워시설	세면시설	
		욕조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출입구	
	주택 상태	구조물	방수 상태	
		난방 및 단열 상태	환기 상태	
		채광 사태	내외부 소음	
		재난 재해 안전성	화재 안전성	
		주택 방범상태	주택 위생 상태	
	주택 환경	생활 인프라	대중교통 이용	
		치안	위생 환경	
		녹지 공간	문화/부대시설	
주거정책과 열악한 주거경험	주거정책 인지 및 이용 여부	정책 인지 여부		
		정책 신청 여부		
		정책 수혜 여부		
	필요한 주거 정책	필요한 주거 정책		
	공공임대주택 거주 희망	공공임대주택 거주 희망		
	주거불안 경험	주거불안 경험		
	열악한 거처 거주 경험	열악한 거처 거주 경험		
주거 인식	자가 소유 인식	자가 소유 필요성 여부		
		(그렇다) 이유		
		(그렇지 않다) 이유		
	주택 의미에 대한 충족도	안전보호공간	휴식공간	
		가족공간	사적 공간	
		생리위생 등	자신증식	
		사회적 지위		
	적절한 독립 시기	물리적 독립		
		실질적 경제 독립		

〈표 5-6〉 건강 영역 조사항목 구성(안)

개념			척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건강행태	흡연	현재 흡연 여부	4점
		현재 흡연하는 담배 종류	
	음주	연간 음주율	
		월간 폭음 경험(남자, 여자)	5점
		알코올 의존	AUDIT-K(10문항)[1]
	신체활동	운동 여부	
		운동하지 않는 이유	
	체중조절	체중조절 여부	4점
		체중조절 방법	
	영양	외식 또는 매식 빈도	
		채소 섭취	
		과일 섭취	
	수면	수면시간	
	건강행동	건강행동 변화 욕구	
		실천하기 원하는 건강행동	
정신건강	스트레스	스트레스 경험	4점
	우울	우울감 경험	
		우울 유병률	PHQ-9(9문항)[2]
	자살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정신상담 미충족 경험	정신상담 미충족 경험	
		정신상담 미충족 이유	
	소진	소진 경험	4점
		소진 이유	
		소진 시 대응 방법	
	약물오남용	약물 사용 경험	
		약물 오남용 경험	
		오남용 약물 종류	
	스마트폰 의존	스마트폰 의존	스마트폰 의존 척도(10문항)
의료이용	미충족 의료 경험	미충족 의료 경험	
		미충족 의료 경험 이유	
건강결과	주관적 건강 인식	주관적 건강 인식	5점
	만성질환 이환	의사진단 만성질환 갯수	
청년정책인지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인지여부, 수혜여부, 도움 정도	
	청년 국가건강검진	인지여부, 수혜여부, 도움 정도	

주 1) AUDIT-K: 한글판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검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Korea)
2) PHQ-9: 한글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표 5-7〉 참여 및 관계 영역 조사표 구성(안)

개념			척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참여 및 관계	정치·사회참여	투표 경험	범주
		투표 의향	서열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범주
		정치적 효능감	5점
		정차·사회 참여 경험	서열
		정차·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	범주
	관계·교류	단체(모임) 참여	범주
		사회적 관계망	범주
		공식적 소속 여부	이분
		공식적 소속감	5점
		공식적 소속의 부재에 따른 소외, 불안	5점
		사적 관계 소속감	5점
		사적 관계 소속감의 부재에 따른 소외, 불안	5점

〈표 5-8〉 문화·여가 영역 조사표 구성(안)

개념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간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여가시간	지난 1년간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지난 1년간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참여경험	지난 1년간 유형별 여가활동 참여 경험	8개 유형별 경험여부 (있다/ 없다)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빈도		
		(주로) 함께한 사람 (모두 선택)		
만족도	지난 1년간 8개 유형별 온라인 오프라인 여가활동 만족도	문화예술 관람활동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5점 척도	
		문화예술 참여활동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스포츠 관람활동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스포츠 참여활동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관광활동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취미오락활동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휴식활동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사회 및 기타활동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제약 경험	지난 1년간 여가활동 제약 경험	함께 즐길 사람의 부족으로 인한 제약 경험	5점 척도	
		비용 문제로 인한 제약 경험		
		시간 문제로 인한 제약 경험		
		공간 문제로 인한 제약 경험		
		여가활동에 필요한 경험, 지식, 정보나 도움의 부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한 제약 경험		
참여의사	제약이 없다면 여가활동 참여의사	8개 유형별 참여 의사		
		방식 (온라인/오프라인)		
		빈도		
		(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모두 선택)		
실태와 필요성 인식의 격차		1년에 한번 이상 2~3일 정도의 여행을 다녀오는 것	귀하가 생각하기에 ① 꼭 필요하다 ② 하면 좋다	지난 1년간 ① 하고 있다 ② 안(못)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있는 것		
		즐겨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1가지 이상 있는 것		
		즐겨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이 1가지 이상 있는 것		
		원하는 문화·여가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간접 경험하는 것		

〈표 5-9〉 교육·훈련 영역 조사표 구성(안)

개념			척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학 생활	등록금	등록금 마련 주된 방법	6개 범주
	졸업 유예 경험 및 사유	졸업 유예 경험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졸업 유예 이유	6개 범주
	대학교육 만족도	대학교육 만족 정도	5점
		대학교육이 인생에 도움을 주는 정도	5점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	5점
		선택 학과(전공)의 적합 정도	5점
비진학	비진학 사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주된 이유	7개 범주
취업·시험 준비	준비 경험	공무원, 공단, 교원임용시험, 국가전문시험 준비 경험 여부	
	취업 준비 도움	취업 준비 도움 경로별 경험 여부	
		취업 준비 도움 경로별 도움 정도	5점
고교 생활	고교교육 만족도	고교교육 만족 정도	5점
		고교교육이 인생에 도움을 주는 정도	5점
		고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	5점
		선택 문/이과 혹은 전공계열의 적합 정도	5점

〈표 5-10〉 가치관·사회인식·미래설계 영역 조사표 구성(안)

개념			척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치관	개인차원 공정성 인식	부당 이득에 대한 사회 인식	5점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인식	5점
	선택의 자유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도	11점
	비교성향	타인과 비교하려는 성향	6점
사회 인식	사회 신뢰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	11잠
	개인 차원 공정성 인식	개인이 경험하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	4점
	차별 인식과 경험	소수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인식	4점
		소수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 경험	2점
	갈등 인식	주요 집단 간 갈등 정도에 대한 인식	4점
	정부의 역할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11점
	미래 한국과 사회경제적 변화	미래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인식	4점
미래 설계	바라는 미래	교육 수준, 경제활동, 경제력, 관계 형성, 사회참여 등 바라는 삶의 요소	4점
		바라는 미래 실현가능성	2점
	바라는 미래 실현을 위한 여건	16개 여건에 대한 중요성	4점
		16개 여건의 실태	4점
	주관적 웰빙	삶의 평가(Cantril Ladder)	11점
		삶의 만족	11점
		행복감	11점
		삶의 가치 평가(Eudaimonia)	11점

〈표 5-11〉 개인사 영역 조사표 구성(안)

개념			척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인사	아동기 상황	아동기 성장 지역	4개 범주
		아동기 가구 경제적 상태	5점 척도
	아동기 부모님 직업	15세 시점, 아버지의 주된 직업	16개 범주
		15세 시점, 어머니의 주된 직업	16개 범주
	아동기 박탈·폭력 경험	부모님과의 관계 및 경험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경험	
		학교 및 또래집단에서의 경험	
	현재 사는 지역의 고향 여부	고향 여부	
		이사오게 된 이유	
	현재 사는 지역에 대한 인식	계속 살고 싶은지 여부	
		이사하고 싶은 이유	

〈표 5-12〉 청년정책 영역 조사표 구성(안)

개념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거		1) 행복주택	인지여부, 수혜여부, 도움여부
		2) 청년 전세임대	
		3) 청년 매입임대	
		4) 행복기숙사	
		5) 신혼희망타운	
		6)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7) 전월세 대출지원	
		8) 주택 구입 지원	
		9) 긴급주거 지원제도	
		10) 주거급여	
건강		1)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2) 청년 국가건강검진	
일자리		1) 국민취업지원제도	
		2) 청년내일채움공제	
		3) 청년창업사관학교	
		4) 청년창업펀드	
복지·문화		3) 청년희망키움통장	
		4) 청년저축계좌	
		5) 햇살론 유스 (Youth)	
		7) 문화누리카드	
교육·훈련		1) 국가장학금	
		2) 국민내일배움카드	
		3) 평생교육바우처	

제2절 예비조사 결과 분석

1. 예비조사 개요

가. 가구 정의 및 조사 집단 구분

□ 예비조사에서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함.

○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

□ 이러한 가구정의에 따라, 조사 집단은 경제적 독립여부와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네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음.

〈표 5-13〉 조사 집단의 구분

구분	내용
비동거, 비독립 청년	• 부모 가구와 상관없이 청년은 단독 가구주 (부모 가구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 구체적으로 조사 필요)
비동거, 독립 청년	• 부모 가구와 상관없이 청년은 단독 가구주
동거, 비독립 청년	• 청년은 부모 가구에 포함된 가구원
동거, 독립 청년	• 일반적으로, 청년은 부모 가구에 포함된 가구원 - 일부,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가 청년인 경우

□ 조사의 차원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만 거주를 달리하는 비동거, 비독립 청년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 경제(소득, 부채, 자산)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함. 이에, 개인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원이 직접 청년과 접촉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가구조사의 경우에는 개인조사에 참여한 청년에게 구조화된 설문 URL 전달 후 가구주를 통해 가구와 관련된 설문을 접속하여 조사에 참여하도록 설계함.

□ 이러한 조사 집단 구분과 조사 방식은 조사 수행 관련 쟁점 중 하나인 가구 구성에 따른 경제(소득, 부채, 자산), 주거 관련 포착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예: 비동거

독립 청년의 경우, 가구주의 경제 상황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계됨.

나. 조사 지역, 조사 대상 및 조사 방식

□ 예비조사는 연구 수행 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독립여부와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반영한 조사 집단별 유의할당을 적용하여 청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조사가구를 선정함.

○ 해당 동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계통추출을 통해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함.

○ 만19세~34세 청년 거주 가구를 응답 적격 가구로 선정함.

□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하여 만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일간 대면조사 방식을 통해 조사를 수행함. 단, 앞서 언급한 대로, 비동거, 비독립 청년의 가구 경제조사는 청년을 통해 가구주에게 전달된 URL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함.

○ 서울, 경기, 인천 각각 120, 30, 10사례를 목표로, 최종적으로 서울 121 사례, 경기 27사례, 인천 12사례, 총 160 사례에 대해 조사 완료되었음.

○ 해당 동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계통추출을 통해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특정 방향 n번째 가구)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만19세~34세 청년 거주 가구를 응답 적격 가구로 선정했음.

○ 청년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로 저녁 시간대(18시~20시)를 활용하여 가구방문 또는, 원하는 시간대를 약속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함.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사원의 가구 내 방문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 해당 가구 인근 야외공간(벤치, 커피숍 등)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함.
- 일부 가구는 해당 가구 앞에서 응답적격자(청년)를 만나 인터셉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 참고로, 대면조사시, 조사원이 설문을 불러주고 응답자가 답하는 것이 원칙이

지만,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밀접 접촉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 응답자는 조사원과 일정 간격을 두고 자기기입식으로 설문 진행했음. 설문 관련 문의사항 및 진행상황을 조사원이 지근거리에서 대응했음.

○ **코로나19 상황이 2022년 본조사시에도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코로나19 관련 대응 지침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예비조사는 조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종이 설문지로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할 때는, 조사원과 응답자 거리확보의 용이성 차원에서는 CAPI 시스템 보다는 종이 조사표가 용이성이 있으며, 로직검토를 위해서는 CAPI 시스템이 용이하여 병행 또는 관련한 사항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준비가 요구됨.**

- 코로나19와 관련한 조사지침은 아래와 같음.
  - 조사원은 마스크 착용, 여분 마스크, 손소독제, 제균티슈, 일회용장갑, 백신접종 확인서 지참
  - 면접조사시 백신접종 확인서를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손소독제, 일회용장갑 응답자에게 권유
  - 면접조사 완료 후에는 조사원 손소독, 필기구 소독(제균티슈 활용)

□ 조사 수행 전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조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됐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조사의 목적 및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표본 선정 절차 및 기준과 컨택 결과에 따른 응답자 대체 기준, 조사 문항에 대한 전반적 구조 및 진행 방법, 조사 문항 구조(설문 로직) 및 문항별 의미와 응답 방법 교육, 응답 내용 보안 및 활용범위 안내에 대한 교육, 수집된 설문지 등 개인정보 관련 보호, 코로나19 대응 보건 교육 등이 포함됨.

2. 예비조사 결과

가. 예비조사 표집 결과

□ 예비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접촉한 가구는 총 1,652가구임. 이 중 35.4%에 해당

하는 585가구는 조사 안내 단계에서 거절 의향을 보여 응답적격자 유무를 파악하지 못함.

□ 적격 대상 가구는 664가구였으며, 이 중 조사참여 거절은 504가구(75.9%)로 나타남. 최종 설문에 참여한 가구는 160가구(접촉 가구 기준 9.7%, 적격 대상 가구 기준 24.1%)임.

○ 본 조사 참여 거절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조사 참여에 대한 귀찮음 및 코로나 19로 인한 외부인 접촉 회피
- 설문 분량에 따른 사전 포기
- 설문 시작 후 소득 및 부채 등 사적 질문에 대한 응답 회피
- 본인에 해당하는 질문 외 가족 및 가구 질문에 대한 응답 회피
- 설문지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는 생각으로 인한 중도 포기

〈표 5-14〉 접촉 가구 및 조사 완료 가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접촉 가구 기준 비율	적격 대상 가구 기준 비율
전체 접촉 가구	1,652	100.0%	-
조사 안내 단계 거절	585	35.4%	-
해당 가구 적격자 없음	403	24.4%	-
적격대상 가구	664	-	100.0%
조사 참여 거절	504	30.5%	75.9%
설문 참여	160	9.7%	24.1%

□ 최종 응답자의 경제적 독립여부와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조사 집단별 표본수는 〈표 5-15〉과 같으며,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5-16〉과 같음.

〈표 5-15〉 조사 집단의 구분

구분	목표	조사 완료
비동거, 비독립 청년	40표본	40표본
비동거, 독립 청년	40표본	41표본
동거, 비독립 청년	40표본	40표본
동거, 독립 청년	40표본	39표본

〈표 5-16〉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60	100.0%
성별	남자	76	47.5%
	여자	84	52.5%
연령	만 19세~24세	31	19.4%
	만 25세~29세	77	48.1%
	만 30세~34세	52	32.5%
학력	고졸 이하	10	6.3%
	대학생, 대학원생	29	18.1%
	대졸 이상	121)	75.6%
부모동거 여부	동거	79	49.4%
	비동거	81	50.6%

나. 예비조사 내용 관련 평가

□ 예비조사 내용 관련 평가는 조사 내용 불편도, 문항 난이도, 설문의 길이 및 집중도, 기타로 구분하여, 대답하고 싶지 않거나 꺼려지는 문항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있었는지, 설문의 길이가 적절했는지, 중복이나 문항 배치의 변경 등의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파악함.

1) 조사 내용 불편도

□ 응답자 개인보다 가구원 정보(예: 장애유무/장애정도, 경제적 지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발견되는 경우가 보고. 또한, 가구 총생활비에 대해 청년 응답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청년 응답자들이 1차적으로 보고한 가구 전체의 경제상황은 실제 가구주가 보고한 경제상황과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는 청년이 모든 가구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함에 따른 결과로 보임.

□ 따라서, **조사에 대한 이해 및 가구 총생활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동영상 가이드 제작 등을 통해 응답자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구원 정보 및 가구 총생활비에 대한 조사는 가구 정의 및 조사 방식의 최종 결정에 따라, 가구주에게 질문할 경우, 조사 수월성이 일부 개선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부당 노동경험, 자살, 정신건강, 약물경험 등 민감문항은 해당 영역 후반부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5-17〉 조사 내용 불편도 보고 문항

영역	문항	내용
경제	- 가구 소득 - 가구 부채	- 청년 응답자들이 1차적으로 응답한 수치와 실제 가구주가 온라인으로 응답한 수치간 차이가 발생 - 청년이 1차적으로 설문지에 응답한 금액은 모든 가구원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주거	- 대출 시세 - 보증금	- 부모님 주거환경 정보(대출, 시세, 보증금 등) 응답에 대한 거부감
노동	- 부당경험	- 설문과정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케이스 존재
건강	- 자살 및 정신건강 관련 문항 - 경험 약물	

2) 문항 난이도

□ 맞춤형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공익직불금, 에너지바우처, 청년정책, 연봉계약제, 월급의 차이 등 정책, 용어 이해에 어려움이 보고되어, 동영상, 카드 등을 활용한 설명자료, 조사원 교육 자료 제작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경제 영역에서 일부 월평균과 연평균으로 구분된 문항, 의료비, 문화여가비 등 매달 고정지출이 아닌 특정 이슈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지출에 대한 응답의 어려움이 보고됨.

〈표 5-18〉 문항 난이도 보고 내용

영역	문항	세부 내용
일반사항	- 맞춤형 급여 수급	- 맞춤형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이해도
경제	- 유형별 보조금 - 의료비, 문화여가비 -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총소득	- 공익직불금, 에너지바우처 등 용어에 대한 이해도 - 의료비와 문화여가비는 B1-1~B1-6번 문항과 다르게 매달 고정지출 아닌 특정 이슈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지출로 월평균 금액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높음. 연평균으로 응답받아 12개월로 나눌 수 있지만, 연평균에 대해서도 응답하기 어려워 함 -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이해도 - 총 소득을 각 소득의 합계의 의미로 인식하는 경우와 재산소득(임대 등)은 제외된 소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기준의 명확성 필요
노동	- 임금산정방식 - 주휴 수당	- 연봉계약제와 월급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 -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해당 문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제시 필요
주거	- 본인 방 정보 - 난방시설	- 집 전체의 평수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본인 방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 집 전체 평수 중 본인 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사원이 되물었지만, 잘 구분하지 못함 -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
청년정책	- 정책 구분	- 정책이름만으로 해당 내용을 인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존재 - 정책별 설명문구 제시 필요

3) 설문의 길이 및 집중도

□ 응답 소요 시간은 약 60분으로 비동거가구인 경우 평균 약 40분, 동거가구인 경우 평균 약 80분 수준으로 나타남.

□ 가구설문에 대해 온라인으로 가구주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방식은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가구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 면접조사 실시에 대한 검토가 필요. 가구주 응답 거절 시, 시간 및 조사비용, 해당 사례 손실 비용은 발생함.

4) 기타

□ 그 외 조사의 단위, 조사지침 등 기타의 경우, 먼저, 일반적인 가구 의미와 조사에서 사용하는 가구의 정의 차이로 인해 독립가구의 경우에도 부모님의 정보까지 입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보고되었음.

□ 이는 주거 영역의 로직 문제로 이어졌는데, 주거 영역의 문항은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응답문항이 다른 로직을 갖고 있음. 예비조사에서는 종이 조사표를 활용함에 따라 로직과 관련한 불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 (예: 가구정보 (부모님 정보 기입)와 해당 문항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응답 불일치 하는 경우, 비동거/비독립 형태의 응답자인데 부모를 가구원으로 인식해서 일반사항에 기입한 경우)

□ 이에 대해서는 조사 도입부에서 가구 정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와 CAPI 도입 및 로직 구성 체계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음.

〈표 5-19〉 기타

영역	문항	세부 내용
일반사항	- 가구원 정보	- 일반적인 '가구'의미와 본 설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의 정보차이로 인해 독립가구 임에도 부모님의 정보까지 입력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주거	로직	- 로직; 해당 문항들은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응답문항이 다른 로직을 갖고 있음. 예비조사에서는 종이 조사표를 활용함에 따라 로직과 관련한 불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 (예: 가구정보(부모님 정보 기입)와 해당 문항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응답 불일치 하는 경우, 비동거/비독립 형태의 응답자인데 부모를 가구원으로 인식해서 일반사항에 기입한 경우)

제3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 검토 사항

1. 방향성

□ 청년 삶 실태조사가 조사의 목적과

□ 첫째, 청년의 사회과학적 정의, 즉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사람의 이행 특성, 청년 개인의 인적 속성, 배경적 속성이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해 낼 수 있도록 문항을 설계할 필요

□ 둘째, 청년정책통계체계의 주축이 되는 통계자료의 역할을 위해 우리나라 청년의 실태와 인식에 관한 기간통계가 되도록 통계적 정합성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표본 설계, 사후층화, 등 정밀한 관리. 통계품질관리에 상당한 노력 필요

□ 이와 관련. 잘 정비된 통계는 공개 원칙. 다양한 청년정책 연구자, 청년연구자, 다학제 연구 가능하도록 원 자료 공개. or 국민생활실태조사 등 특수한 이용목적을 가진 조사의 경우 공개정도가 제한적. 단,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경우 2021년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공개시기와 공개범위의 제한성 지적. 모든 신청자에게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보건복지통계포털 데이터 이관)

□ 기간통계로서의 역할을 고려. 안정성과 유연성 동시 확보. 장기 시계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문항은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시의성 있는 문항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둘 필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조사는 수시조사로 돌릴 수 있을 것

□ 기간통계라 하더라도 모든 내용들을 담을 수 없음. 각 부처별 청년정책 수립의 근거자료 생산을 위한 특수성이 요구되는 조사는 부처별로 별도로 수행될 필요. 모든 정책수요를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이는 예산제약문제만이 아니라 조사의 효율성이 조사 품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임. 문항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성의 있는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단위무응답, 항목무응답이 많아지면 비표본오차가 커져 통계의 정합성에 위해

○ 전체적인 청년통계체계 구성을 감안해서 분야별 청년조사통계 구축 필요. 청년 삶 실태조사가 근간, 통계청의 행정통계가 보완적 성격, 각 부처의 조사연구 등으로 구성

2. 시의성과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문항 설계

□ 이 연구에서는 법정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설계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각 부처로부터 청년 삶 실태조사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으며, 전체 조사의 방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하였음.

□ 청년정책기본계획, 청년정책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고, 새로운 정책 환경 및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청년참여거버넌스를 활용한 정기적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청년 삶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 및 청년참여거버넌스를 활용한 정기적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각 부처나 새로운 정책 환경의 이슈가 자체의 고유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 삶 실태조사에는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음.

□ 고유성의 성격이 강하면, 그에 따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문항의 양이 방대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청년 삶 실태조사 문항을 설계할 때도 포함할 수 밖에 없었던 문항 패키지가 있었음.

□ 주요 부처에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각 부처별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음. 이에 연구진은 정부 부처의 수요를 조사문항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통하여 부처별 의견을 수렴하였음.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대상 문화여가 관련 조사를 계획하고 있음.

〈표 5-20〉 식약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 위원회의 청년 삶 실태조사에 대한 의견

구분	내용
식약처	- 아침식사 섭취 여부 - 건강기능식품 섭취 여부 및 종류 - 카페인 섭취량(커피, 에너지드링크 등) - 주간 배달음식 주문 횟수 - 식사 중 외식 비중 - 식사 중 집단급식소(학교·직장 등) 이용 비중 - 식사 중 가정간편식 등 인스턴트 식품 섭취 비중 - 의약품 복용 여부 및 종류 - 의약품 부작용 경험 여부
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예술·콘텐츠·관광분야 일자리 선호도(타 분야와 비교) - 문화예술·콘텐츠·관광분야 창업 선호도(타 분야와 비교) - 문화예술·콘텐츠·관광분야 일자리의 고용안전성(표준계약서, 프리랜서 산재보험 등) - 일과 삶(여가)의 균형에 관한 인식 - 주거선택에 있어 문화·여가여건의 중요도(타 분야와 비교) - 청년 문화예술·콘텐츠분야 기회 정도 (타 분야와 비교) - 청년 미래역량강화에 있어 문화예술·콘텐츠분야 교육의 중요도(타 분야와 비교) - 청년 건강증진에 있어 문화·여가활동(문화예술관람, 생활문화·생활체육 참여 등)의 -중요도 - 청년 취약계층의 문화·여가활동 지원 정도 (타 분야와 비교) - 청년예술인 생계 및 창작 지원에 대한 인식 - 연간 문화·여가활동 참여여부/횟수/비용; 비중 : 디지털(%) / 현장(%) - 문화·여가활동 목적 - 주로 행하는 문화·여가활동 및 유형(TV, 게임, 스포츠, 영화, 문화강좌, 동호회, 자원봉사 등); 비중 : 디지털(%) / 현장(%) - 문화·여가 만족도(활동, 시설, 디지털 포함 등) - 적정한 문화여가활동 시간(1일 평균) -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디지털 포함) - 청년 문화·여가권 보장 중요도 (타 분야와 비교) - 청년 문화·여가권 보장을 위한 정책지원 선호도 - 청년교류에 있어 문화·여가활동의 기능(매개 또는 활성화/ 타 분야와 비교)
공정거래 위원회	[사회초년생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관련] 1.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홍보를 본적이 있는지, 어느 경로로 접하였는지? 2. 불법피라미드 피해 경험이 있는지?(주변 포함) 금전적 피해여부는? 3. 불법 피라미드(불법 다단계)의 의미를 아는지? 4. 불법 피라미드와 “합법 다단계”의 차이를 아는지? 합법여부 확인방법을 아는지? 5. “다단계”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소비자정책 청년 참여 관련] 1. 정책결정 시 청년의 입장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2. 청년을 위한 정책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2. 소비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청년위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3. 청년위원을 위촉한다면 청년친화적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지? 4. 청년위원을 위촉한다면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5. 청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어떤 소통경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3. 청년기본계획 수립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제언

□ 전술한 것과 같이 「청년기본법」 제11조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즉, 실태조사의 목적 중 하나로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청년 삶 실태조사 시기와 주기는 기본계획 수립 시기와 연계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조사 주기는 2년,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5년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이 명시하는 실태조사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기가 3년으로 일치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이 조사와 계획의 주기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계성 제고를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조사기준 시점과 조사시점, 그리고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임.

○ 아래 표는 주요 기간통계, 법정 조사, 그리고 청년대상 조사의 기준시점, 조사시기, 발표시기를 정리한 것임.

〈표 5-21〉 주요 조사통계의 조사 기준시점과 공표 시기

조사명	조사 주관	조사 규모 (표본 규모)	조사 기준시점	조사 기간	공표 시기 (KOSIS 등록, 보고서 발간)	조사 주기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전국 청년 3,500명	2020년(최근) (소득, 지출은 2019년)	2020년 6~7월 (약 2개월)	2020년 12월	매년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전국 7,200가구	매월 (1일 ~ 말일)	1개월 간	소득·지출(분기 자료) 조사 기준시점의 약 60일 이내	매분기
			2020년(최근) (소득, 지출은 2020년)		지출(연간 자료) 2021년 5월	분기 자료 통합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전국 20,000가구	2021년(최근) (소득, 지출은 2020년)	2021년 3~4월 (약 2개월)	2021년 12월	매년
주거실태조사	국토부	전국 59,250가구	2020년(최근) (소득, 지출은 2019년)	2020년 6~12월 (약 7개월)	2021년 6월	매년
국민생활 실태조사	복지부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전국 20,000가구	2018년(최근) (소득, 지출은 2018년)	2019년 7~12월 (약 6개월)	2020년 7월	3년
노인 실태조사		전국 10,000명	2020년(최근) (소득, 지출은 2019년)	2020년 6~8월 (약 3개월)	2021년 6월	3년
장애인 실태조사		전국 45,000가구	2020년(최근) (소득, 지출은 2019년)1)	2020년 하반기 (약 2개월)	2021년 4월	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전국 12,000가구	2018년(최근) (소득은 3개월간 평균 소득)	2018년 7~9월 (약 3개월)	2018년 12월	3년

주: 장애인 실태조사의 가구 소득·지출 분석은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함.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에서 인출.

□ 통상 조사기간 기준으로 조사시기, 데이터 처리 기간, 분석 기간, 보고서 작성 기간 고려시 2안은 불가능. 1안이 현실적

○ (1안) 22년 조사(21년 기준), 23년 공표(2년 시차 발생)

○ (2안) 22년 조사(21년 기준), 22년 공표(1년 시차 발생)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일정과 연계

〈표 5-22〉 조사 시기와 기본계획 수립·의결 시기 예시

구분	2022		2023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실태조사	1차 조사실시	분석	1차 조사결과 발표		2차 조사실시	분석	2차 조사결과 발표	
부가조사 (선택)			1차 조사실시	1차 조사결과 발표			2차 조사실시	1차 조사결과 발표
기본계획							조사결과 반영 계획수립	2차 계획 의결

○ 2022년 1차 조사 & 결과분석 → 2023년 조사결과 공표(1/4분기) → 2024년 2차 조사 & 결과분석 → 2024년 조사결과 공표(1/4분기) → 2025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년) 수립에 조사결과 활용

- 2022년: 1차 조사 실시 & 결과분석
- 2023년: 1차 조사결과 공표(1/4분기), 1차 부가조사 실시 & 결과분석
- 2024년: 2차 조사 실시 & 결과분석
- 2025년: 2차 조사결과 공표(1/4분기), 2차 부가조사 실시 & 결과분석,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2차 년도 기본조사, 1차 년도 부가조사 결과활용 가능)

□ 조사일정(안)

○ 2022년 내 조사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을 전제로 구상된 조사일정은 아래 표와 같음.

- 조사 전 단계: 조사표 확정, 표본설계안 확정 후 통계승인 신청, 조사수행기관(업체) 선정, 확정된 조사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시스템 탑재
- 조사 단계: 조사원 교육, CAPI 시스템 테스트, 실사, 실사점검(로밍)
- 사후 단계: 사후검증, 데이터 클리닝,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 통계표 공표(기초분석보고서 발간, KOSIS 등록)

〈표 5-23〉 청년 삶 실태조사 1차 조사 일정(안)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내용		조사표 및 표본설계안 확정 통계승인신청 조사대행기관 선정 CAPI 시스템 탑재		조사 실시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내용	조사실시		사후검증	데이터 검증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 공표 및 데이터 공개 일정

○ 조사결과 공표는 상기와 같이 기초분석 보고서 발간과 KOSIS 등록의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 기초분석 보고서 발간과 KOSIS 등록에는 시차가 발생함. 통상의 조사들은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취하고 있는데, 보고서 발간 후 KOSIS 등록 전까지 추가적인 데이터 검증을 실시함.

○ 조사결과 공표 이후 조사데이터 공개에 관한 이슈가 있음. 통계품질관리 매뉴얼 상 수집된 조사자료는 일반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표 직후 공개할 것인지 일정 시차를 두고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통계작성기관(국무조정실)의 판단이 필요. 보건복지부가 작성하는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경우 과거 2~3년의 시차를 두고 데이터를 공개했으나 2021년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공개일정을 단축할 것을 권고 받아 당초 일정을 당겨 공개한 바 있음.

4. 취약계층 청년 규모 추정과 실태 파악

□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기본계획에는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대해서 현재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

련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칭 「청년권익증진법」 제정)를 비롯하여 관련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실태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보건복지부는 『청년층 생활안정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청년정책과제 개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각각 수행하고 있음.
- 또한 2022년에 사회적 고립청년(은둔형 외톨이)과 청년돌봄자(영케어러)의 규모와 실태 파악, 그리고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음.

□ 「청년기본법」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에 의거하여 2022년에 실시가 예정된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기존 통계로 포착되기 어려운 취약계층 청년 유형을 식별할 수 있는 문항을 제안하고자 함.

○ 청년정책조정실의 연구용역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을 인적 속성, 관계적 속성, 일자리 속성, 경제적 속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기존 통계에서 별도로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청년 유형에 대해서는 “청년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규모 파악을 비롯한 대략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식별문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이에 청년 삶 실태조사에는 다음의 취약계층 청년 유형에 대한 식별 문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인적속성) 이주배경 청년, 다문화가족 자녀 청년

- 태어난 국가, 국적, 한국 귀화 여부, 부모님 태어난 국가, 부모님 국적, 부모님 귀화 여부 등

○ (관계적 속성) 청년돌봄자(영케어러)

-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구원 존재 여부, 돌봄 수행 여부, 평균 돌봄 시간, 돌봄에 소요되는 비용 등

○ (관계적 속성) 고립(은둔) 청년

- 은둔 청년 존재 여부, 은둔 기간, 은둔 사유, 정책 욕구 등(가구조사), 외출

빈도, 접촉 빈도, 은둔 사유, 정책 욕구 등(개인조사)

- 이들 유형의 경우 개인조사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정확한 규모와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부모와 같은 가구주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임.

○ 그 밖에 인적 속성에 따른 장애인 청년, 관계적 속성에 따른 경제적 부양 청년, 한부모 청년, 일자리 속성에 따른 저임금 근로 청년, 비정형 근로 청년,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 니트 청년 등, 경제력 속성에 따른 소득 빈곤 청년과 과도 채무 청년 등은 기존의 가구일반사항, 소득·자산·부채 등 경제 사항, 근로활동 관련 사항 등을 통해 식별 가능

- 예컨대, 경제적 부양청년의 경우 가구 소득 대비 본인의 개인 소득의 비율을 통해, 소득빈곤 청년은 청년층 중위소득 대비 개인 소득의 비율, 과도 채무 청년은 본인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등을 통해 식별 가능

5. 청년의 삶의 동태성을 고려한 추가조사 방안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청년 실태조사)의 2항에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 환경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본 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2년 주기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청년의 삶의 동태를 따라가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년으로 조사와 공표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그러나 대규모 조사 실시, 데이터 처리, 분석, 기초통계 분석의 일련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 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일 수 있음. 따라서 본 조사 주기는 현행 법에 적시된 것과 같이 2년 주기로 하되 중요한 이슈가 있을 경우 비조사 연도에 부가조사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

□ 위와 같은 맥락에서 긴박하게 실태파악이 요구되는 이슈들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부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본 조사에 조사문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본 조사의 내용은 청년의 삶의 궤적과 여건에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지표들을 시계열적으로 축적하는 목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부가적인 문항은 위와 같은 일종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려해야 할 것임.

○ 부가조사는 본 조사의 조사대상인 청년일반과 특성이 사뭇 다른 청년집단을 표적화해서 실시하는 방법과 질적조사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먼저, 특정 청년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조사 방안으로 앞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취약계층 청년 식별 문항을 통해 파악된 취약계층에 대한 심층조사를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영케어러(청년간병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들의 구체적인 생활실태와 복지자원 연계 실태, 그리고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재 정부는 영케어러의 전국적인 규모 추정과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추진 중),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이용한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학교밖 청소년이나 그 연령대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방법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본 조사에서 식별된 영케어러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조사를 비조사 연도에 실시함으로써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음.

○ 영케어러 외에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이주배경 청년, 한부모 청년, 니트(NEET) 청년, 빈곤청년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조사를 검토해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방식의 부가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본 조사에서 추가조사 의향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따라서 1차 년도 본 조사 실시 이전에 부가조사 실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두 번째는 양적인 정보만으로 파악이 어려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질적패널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임.

○ 미국의 맥아더 재단의 Research Network on Transition to Adulthood는 성인으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변화 과정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인으로 되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프로젝트를 실시한 바 있음.

-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총 8년 간 수행한 연구에서 미국 전역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 500명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이를 통해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성인이 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청년들의 이행과정의 질적인 변화와 정책욕구를 파악함.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사업에서 6차 년도(2011년) 조사에서 질적 패널을 구축한 바 있음.

- 사전에 조사 참여 의향을 밝힌 362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패널가구의 주요 특성, 가구구성을 비교하여 이와 유사한 특성 가진 100가구를 선정하여 수년 간 추적조사를 수행한 바 있음(김미곤 외, 2013: 76-77).

○ 위의 사례를 따라 2022년 실태조사에 사전 동의 의사를 밝히는 응답자 중 소득, 교육상태, 경제활동상태, 그리고 다양한 속성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을 선별하여 질적패널을 구축하여 비 조사연도에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6.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통계 보완

□ 조사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자료 결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데이터에 행정데이터를 결합하는 작업은 앞서 행정통계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기술적·제도적 제약에 따라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보 가치가 크지만 조사 난이도가 높은 가구의 소득, 자산, 부채와 관련한 정

보나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근로장려세제를 비롯한 각종 복지급여 수급 정보는 행정자료로 대체함으로써 통계수집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됨.

- 소득, 자산, 부채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인 동시에, 고용지원, 소득보장, 자산형성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성과지표이기도 함.
- 또한 각종 복지급여 수급 정보와 청년정책 수혜와 관련된 정보를 행정자료로 대체할 경우 보다 정교한 정책 사각지대 진단과 정책 효과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소득분배지표와 복지급여 기준선(기준 중위소득)의 원천 통계인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세청의 소득자료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주로 고소득층에서 나타나는 소득 과소보고의 편의(bias)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이원진, 정해식, 전지현, 2019). 저소득층의 경우도 사회보장정보망을 이용하여 조사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음.

- 신뢰도 높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청년정책 분석과 평가, 프로그램 기획과 설계를 모색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사항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임. 그러나 전술한 것과 같이 시간적·경제적 예산제약에 따라 개인단위 조사방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배경 정보의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자료 결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별도로 '청년통계체계' 구축의 측면에서도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결합,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금융권 대출정보를, 주택소유통계DB로부터 주택소유 정보를 수집하여 '중장년층 행정통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청년층 행정통계' 구축을 위한 1차 작업을 완료하였음(통계청 내부자료).

○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 최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21.12.9.)을 통해 중

앙부처와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사회보장 종합 행정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정책 분석과 평가, 제도기획과 설계를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음(보건복지부, 2021. p.6).

○ 이와 같이 정부의 행정통계 구축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를 청년행정통계와 연계함으로써 근거기반 정책수립의 원천자료로서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임.

7. 연구윤리검증, 성별영향평가

□ 조사를 수행과 그 결과를 공표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음. 대표적으로 성별영향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윤리검증이 있음.

□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동 훈령 중 조사와 그와 관련된 연구와 관련되는 규정은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에서 찾을 수 있음.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1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2호)가 여기에 해당함.

○ 위 내용은 문항설계와 조사방법, 조사과정, 조사자료의 보관과 처리 등의 과정에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보장할 필요성을 제기함.

- 조사방법에 있어서 위 사항들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관리가 필요함. 조사수행기관, 조사자료 처리기관(연구수행기관)의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서약서 또는 확약서 등 필수

□ 조사와 통계작성과 관련된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양성평등법」과 「통계법」이 규정하고 있음.

○ 「양성평등법」 제17조(성인지 통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할 때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성인지 통

계')를 산출하고, 관련 기관에 보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1항에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통계책임관을 지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는 통계표 작성 시 성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사표 설계 시 성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성별을 식별할 수 있는 문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21~’25). 2020.12.

김미곤, 염주희, 정희선, 최준영, 권지성, 이은미, 정선옥, 정혜숙, 조준용, 이현주. (2013).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정, 오지현, 최샛별, (2020). 청년세대의 정치: 정치의 주변화인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인가, 사회과학연구논총, 36(2). 283-318.

김아린. (2018). 1인가구 청년의 건강행태, 식습관 및 심리적 건강이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제16권 제7호. pp. 493-509.

김재희, 박은규, (2016).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3), 257-284.

김춘남, 박승민, 박승희, 김서인, (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복지재단.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한간학회. (2013). 알코올 간질환 진료 가이드라인. https://www.kasl.org/bbs/skin/guide/download.php?code=guide&number=84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9 국민여가 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0a). 2020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0b).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통계정보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20c). 국민여가활동조사 통계정보보고서.

보건복지부. (2016).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표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신종전자담배 흡연행태, 금연과 건강에 전혀 도움 안돼. 2020. 4. 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 7. 26.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1). 2020년 자살사망자 13,195명, 전년대비 다소 감소. 2021. 9. 28.

서울연구원, 가천대학교 불평등과 사회정책 연구소, 국민건강보험. (2021). 행정자료를 활용한 서울시의 소득 및 자산분배 기초연구 보고회 자료집. https://www.si.re.kr/에서 2021. 12. 20. 인출.

원승일. (2021.12.15). 산재사망자 790명… 문재인 정부 ‘500명’ 감축, 결국 수포로. 메트로신

문.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1215500331에서 2021.12.16. 추출

와일, 데이비드, 송연수 역. (2015). 균열일터,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황소자리.

이근영. (2021.4.13.). 한국 그린뉴딜 일자리 24만개 창출 '아시아 선두'.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990751.html에서 2021.12.16. 추출

이상림, 김문길, 정세정, 배혜원, 임지영.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생활·참여분과 과제 연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승엽. (2020). 소진증후군의 이해와 대처,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59(2):105-114.

이원진, 정해식, 전지현. (2019).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숙·김혜영(A)·황지윤·권세혁·정해랑·곽동경·강명희·최영선. (2018). 한국 성인을 위한 영양지수 개발과 타당도 검증, J Nutr Health 51(4):340~356.

이정진, (2021). 청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 과제, 이슈와 논점 제1803호. 국회입법조사처.

이현주, 오욱찬, 이원진, 이윤경, 성재민, 이길제, 박형존, 이병재. (2020).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세영, 윤건, 오균. (2017).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정부의 통계 구축 및 활용에 대한 현황 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장선화, 김윤철, (2021). 한국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제도, 문화, 정당을 중심으로, NGO연구, 16(1), 77-119.

정은미.(2021.9.7.).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국내 산업계 파급효과. 전기저널. 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4254 에서 2021.12.16. 추출

조성호, 변수정, 김문길, 김지민,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해언. (2021). 젊은 플랫폼 노동자의 초상. 한편 5호 일, 민음사

중앙일보. (2019). 성인 11%는 전자담배 경험, '30대 남, 20대 여' 최다, 2019. 11. 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24379#home

질병관리청. (2018). 국민건강·영양조사표.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영양조사표.

질병관리청. (2019). 지역사회 건강조사표

통계법. (2021).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에서 2021. 12. 20. 인출.

통계청, 2019.8.28.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통계청. (2020). 사회조사(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8)

통계청. (2020). 2019년「중·장년층 행정통계」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에서 2021. 12. 20. 인출.

통계청. (2021). 통계설명자료.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 검색일. 2021. 12. 19.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통계청. (2021). 202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41511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1.12.16. 추출

통계청. (2021). 통계승인업무처리지침.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계승인업무처리지침/(232,20191209)에서 2021. 12. 20. 인출.

하이닥. (2020). '공부잘하는 약', 먹어도 될까, 2020. 12. 10.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566653

한겨레. (2021). '극단선택' 10~30대만 우상향으로 올라갔다. 2021. 9. 28.

한국고용정보원. (2020a). 청년패널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2020b).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홍지민. (2021.12.7.). 故 김용균 3주기 추모 주간... 노동계 "산재 사망 사고 재발 막아야", 프레시안.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222242에서 2021.12.16. 추출

Cazes, S., A. Hijzen and A. Saint-Martin (2015), "Measuring and Assessing Job Quality: The OECD Job Quality Framework",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7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jrp02kjw1mr-en.

Dalton, R. J. (2006).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Wahington, D.D: DQ Press.

ILO. (2020). Digital skills and the future of work: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a post COVID-19 environment. Retrieved from https://www.ilo.org/wcmsp5/gr

oups/public/---ed_emp/documents/publication/wcms_766085.pdf (2021.12.16.)

Meyer, B. D., Mok, W. K. C., & Sullivan, J. X. (2015). *Household Surveys in Crisis*. NBER Working Paper Series, 21399.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Milbrath, L. W., & Goel, M. 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Rand McNally College Pub. Co.

Verba, S., Schozman, K. L., & Brady, H. (1995). Voice and Equality: Co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